





## 목차

권효연	.....	4
김민정	.....	30
김예림	.....	45
김태우	.....	57
노영빈	.....	61
서명아	.....	78
서하린	.....	86
손채은	.....	91
송륜근	.....	103
안다연	.....	109
이가원	.....	125
장우정	.....	134
조익준	.....	149
조하한	.....	155
최형규	.....	161
한승희	.....	169

꽃내음달에서 타오름달까지, 글걸음꾼의 시간\_  
/3.7~8.10까지  
작은것이아름답다

권효연

▶순서

1. 어디에, 왜 갔나?
2. 무슨 일을 했나?
3. 어떤 고민을 했나?
4. 더 기억하고 싶은 것

## 1. 어디에, 왜 갔나?

5학년까지의 나는 글쓰기에 대해 ‘완전 열심히 하지는 않으면서, 그렇다고 놓지도 않는’ 태도였다. 때문에 ‘너 뭐 좋아하는데?’라는 질문에 할 수 있는 답이 그다지 없었다. 그래서 진로 프로젝트를 통해 내 답을 정하고 싶었다.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계속 해온 사람들을 만나 ‘왜 글쓰기를 좋아 하는가’하는 질문을 던졌다. 다른 사람이 왜 좋아하는지 알게 되면, 애매한 마음이 무언지 알 수 있겠지~ 하는 가벼운 생각에서 시작된 인터뷰였다.

‘만약 어렸을 때 다른 이들이 춤을 잘 춘다 해줬다면 지금 춤꾼이 되었을 테고, 노래를 부르려면 가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때 잘한다, 소리를 들었던 게 글이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왜 지금까지 글을 쓰고 있나, 하는 질문에 대한 한 분의 대답이다. 대단하고 거창한 거 없고 그냥 잘한다고 하길래 했다는 말이, 쓰는 것을 좋아한다 말할 자신감을 주었다. ‘좋아함’의 무게가 ‘끔찍이 좋고, 평생 해야 하는 것’에서 ‘지금 관심 있는 것’ 정도로 쏙 빠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자 인턴십은 글을 많이 쓰고 볼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글’ 중에서도 ‘문학’, 더 범위를 좁혀 ‘문학출판사’를 찾아보기로 했다. 두어 번 검색을 하다 수진 쌤에게 추천 받았던 실천문학사에 진로프로젝트 인터뷰 메일을 넣었다. 인터뷰 하겠다고 가서 인턴십을 슬쩍 꺼내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인터뷰 전 인턴십에 대한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인터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턴십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결국 나는 비 오는 날에 인턴십 거절당하고, 우산 쓰고 엉엉 울다 갑작스런 바람 때문에 우산 끈다리에 눈 얻어맞는 신세가 되었다.

다시 인턴십 장소를 찾으면서, 장소를 고르는 기준이 바뀌었다. ‘문학출판사’에 가서 하고 싶었던 일이 혼자서도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글을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배울 수 있는 곳,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레이더를 뿜었다. 이 레이더망에 걸린 것이 ‘작은것이아름답다(이하 작아)’였다. 작아는 생태환경문화 잡지를 다달이 내는 녹색연합 산하 출판전문기구다. 고백하자면 나는 생태, 환경에 전혀 관심 없었다. 고리타분하다 생각했을 뿐 아니라, 자연이 아름답다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그 때문에 작아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막연히 생각하던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을 확인했던 무빙처럼, ‘4대강 사업 나쁘고, 핵발전소 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까이서 확인해보고 싶었다.

### 1\_1.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곳은 어디인가!

환경생태문화를 다루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달마다 내는 출판사. 올해(2016년)으로 20년이 되었다. 원시림을 살리는 재생종이 운동, 우리말 살리기 운동을 해왔다. 작아에서 붙인 달 이름을 사용하고, 편집장, 부편집장, 인턴 등의 이름도 바꾸어 사용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월간지 이외에 단행본 ‘그 숲길에 관한 짧은 기억’,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등이 있다.

## 2.무슨 일을 했나?

-달별 집중해서 했던 일

3월/ 방사능, 밥상에 오르다 (그 달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 주제)

교정교열

도서관에서 책 빌리기

환경 강의 듣기

4월/고치고 께매고 만들어가는 집

기획회의

교정교열

장수마을 취재

5월/지구아이

인포그래픽

개인프로젝트(고리 핵발전소 1호기 관련)

기획회의

교정교열

6월/푸른 말을 찾아서

녹색의 눈 글쓰기(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 인터뷰, 가슴기 살균제 관련)

개인프로젝트 인터뷰

인포그래픽

7월/취미는 자연

특집 취재 글쓰기(그린 스케쳐스)

녹색의 눈 글쓰기(경성대 김해창 교수 인터뷰, 고리 1호기 폐쇄 관련)

인포그래픽

기획회의

교정교열

8월/

기획회의

작아 온라인 홍보

## 2\_1.월간지

교정교열 처음 일했던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교정교열을 보았다. 그럴 때면 야근을 해야 했지만, 즐거웠다. 왜 재미있었을까? 교정교열은 말 그대로 글을 다듬는 일이다. 처음에는 이 책을 만드는데 손을 보탠다는 감각이 좋았다. 쓰는 것보단 마음 놓고 할 수 있으면서, 바꾼 글이 마음이 들 때 기분 짜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주 어려운 퍼즐을 멋지게 완성시킨 듯한 기분이 드니까. 컴퓨터 작업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도 좋았다. B3에 작아를 뽑아 동그라미 치고, 글을 빼내는 일.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교정 본 게 그대로 실리게 되어 뿌듯했다.

기획회의 기획회의를 통해 작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았다. 기획회의에는 모든 작아 식구가 참여해 다음 호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어떤 사람을 담을지 이야기를 나눈다. 참여한 식구들은 치열하게 싸운다. 이 시기에 작아가 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욕심이 많은 건 아닌지 의견이 모두 갈리기 때문이다. 얼굴 빨개진 만큼 격한 토론 덕분에 업사이클링에 대한 새 시각도 보게 되고, 희토류, 물고기 이동 권 등도 새로 알게 되었다. 또 계절의 흐름과 작아가 하려는 이야기를 맞춰가는 점도 인상 깊었다.

6월호 ‘푸른 말을 찾아서’에서는 인포그래픽(통계를 그림으로 보기 쉽게 나타낸 것)에 의견을 내어 내가 논문을 보며 느꼈던 이야기를 담았다. 9월호 기획회의를 할 때엔 ‘환경성 질환’

이라는 주제로 작아 목차에 맞게 어떤 이야기를 담으면 좋을지 기획안을 짜가기도 했다. 내가 하고픈 이야기를 찾아,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형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린 스케쳐스 취재기사 7월호 주제 ‘생태취미’에 맞춰, ‘그린 스케쳐스’를 취재했다. ‘그린 스케쳐스’는 직접 풀꽃을 보고 자수로 담는 수업이다. 환경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데, 시작 전에 자수 선생님과 간단한 인터뷰를 하고, 수업 중에는 수강생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선생님은 자수를 하면 ‘어떤 걸 자수로 놓아볼 수 있을까?’하고 주변에 예민해진다고 했다. 길가다 예쁜 꽃이 있으면 찍어 오고, 꽃을 놓을 때도 애가 어두운 걸 좋아하는지, 내가 본 것 외에 다른 모습은 없는지 알아보게 된다. 자수라는 통로로 세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수강생은 자수를 하며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집중해 자수를 할 때의 세세한 느낌을 들으니, 나도 얼른 자수하고 싶어졌다.

취미는 정말 쓸모 없기 때문에 쓸모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쓸모를 위해 노래를 부르거나, 화분을 키우지 않듯이.’ 자수로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마음에 들었다. 취미야 말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기사는 기획을 통해서, 인터뷰한 사람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 인터뷰 한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른 답을 내놓으면 쓰기가 너무 힘들다. 대신 내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는 의외의 이야기를 쓰게 될 수도 있다. 그린 스케쳐스에선 수강생들이 자수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바람에, 자수에 대한 수강생의 느낌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하지만 자수 선생님이 풍부한 경험을 말씀해주셔서 자수를 무척 매력적이게 써낼 수 있었다.

이 취재기사 외에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소장님 인터뷰, 경성대 김해창 교수님 인터뷰 등을 작아에 실었다.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통계를 그림을 보기 쉽게 하는 것.)은 5월부터 꾸준히 맡아 했다. 글이 아니라 통계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생소한 작업이었다. 여러 개의 통계를 엮어 이야기를 만들려면, 실제로 들어갈 통계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덕분에 5~7월의 주제였던 환경과 아이, 그린워싱, 여가시간에 대해 완전히 꿰고 있게 되었다. 많이 알게 되니 화나는 일도 많았고, 더 물음이 생기기도 했다. 어떤 때는 기가 차서 ‘도대체 왜?’, 여가시간 중 터무니없이 늘어나는 휴식에 궁금해서 ‘도대체 왜?’. 이런 물음이나, 내가 알게 된 화나는 일을 통계로 말했다.

이 외에 푸른 알림판, 녹취(노나메기, 각호 대담 등), 책 정리, 배송업무, 녹색희망 편집 등을 했다.

## 2\_2.재생종이 운동

주문장 보내기 작아에서는 교과서를 재생종이로 바꾸는 운동이나 직접 재생 종이를 파는 등 직접적인 재생종이 운동을 한다. 말로만 떠드는 잡지는 아닌 것이다. 같이 작아에 계시던 글메김꾼 언니가 퇴사하신 뒤 내가 재생종이 주문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다.

## 2\_3.그 외에

환경 강의 듣기 편집장님의 제안으로 일주일에 한번 환경 강의 혹은 행사를 다녀오고, 다녀온 것을 바탕으로 기사 연습을 했다. 처음 다녀오셔서 기사 쓸 때, 쓰는 방법을 몰라 허둥했다. 그래서 프레시안 기사를 보고 참고하는 등 쓰는 방법을 익히려 했다. 자투리전, 플라스틱 섬 전시, 지구의 날 축제 등 참 많은 곳을 다녀왔는데 이계삼씨의 강의와 토종씨앗축제가 기억에 남는다.

#### -이계삼씨의 강의

이계삼씨는 체르노빌 사고 때 있었던 일을 소개했다. 어떤 임신부의 이야기였다. 소방관 남편을 두었던 임신부는, 체르노빌에 불끄러갔던 남편을 돌보다 피폭되었다. 너무 심하게 피폭된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 그 뒤 얼마 방사능의 영향으로 아이가 죽어 나왔다. 대신 엄마는 무사했다. 아이를 잃은 뒤 엄마는 말한다. '사랑으로 죽이는 것이 가능한가?'

이계삼씨는 이 말이 핵 발전의 원형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친구에게,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핵으로 인해 생기는 일을 떠넘길 거냐는 질문이라 하면서. 사랑으로 죽이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말 자체도 강력했지만, 녹취를 풀며 강의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 다시 듣지 않았다면 '사랑으로 죽이는 것이 가능한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듯하다. 핵 발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당장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사능은 미래에 더 큰 해를 끼친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 강, 바다는 수백 년은 지나야 복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죽이는 건 가능하지 않다.

#### -토종씨앗축제

나는 무꽃, 배추꽃을 본적이 없다. 콩 종류도 몇 개 모른다. 그 예쁜 것들을 이제야 보았다. 토종씨앗축제에서!

사실 토종씨앗축제에는 별게 없었다. 토종작물로 만든 먹거리 판매 부스, 토종 고추 모종 판매 부스 등 체험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판매에 집중되어있는 축제였다. 하지만 이 축제에는 스티로폼과 랩에서 벗어난 식물과, 개네의 꽃이 길가에 놓여있었다. 누가 배추, 했을 때 노오란 유채꽃같은 꽃이 달린 배추를 떠올릴까? 무, 했을 때 보라색의 잔잔한 꽃알을 떠올릴 수 있었나? 배추랑 무랑, 다른 채소들이 날 때부터 비닐에 담겨 가격표 붙여진 게 아니란 걸 확인했다. 그곳에서 보았던 콩, 옥수수알도 너무 다양해서 놀라웠다. '종의 다양성', '토종 종자를 지켜야 하고...' 등을 떠올리기 전에 그냥 멋졌다. 엄지 손가락만한 콩도 있고, 새끼손톱보다 작은 콩도 있고.

책 목록 만들고, 빌려오기 다음 호 작아에 어떤 책을 참고하면 좋을지 책 목록을 만들고, 도서관에서 빌려오는 일이다. 인턴십 초반에 했던 일인데, 날이 갈수록 일이 많아져 후반에는 거의 하지 못했다. 인포그래픽과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검색하는 능력이 늘었다.

개인프로젝트 3,4월쯤 제대로 된 인턴을 하고 있나, 의문이 들어 개인프로젝트를 시작했다. 4개의 주제(밀양, 도시 밀집 현상, 핵발전소, 농사)를 세워 취재하고, 글 쓰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다. 주제 중 '도시 밀집 현상'은 3월에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이기도 했다. 하지만 '핵발전소', '도시 밀집 현상'으로 주제 좁혔을 때 '도시 밀집'은 원하는 자료가 나오지 않아 포기하게 되었다. 머릿속에 '도시 밀집'에 대해 듣고 싶은 이야기나 그 말을 들을 사람의 상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쟁쟁한 4개 주제 중 '핵발전소'를 주제로 잡은 이유는 왜 위험한지, 위험하다면 왜 핵발전소를 짓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인턴ships을 시작했던 3월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 주제가 '방사능, 밥상에 오르다'였던 탓도 있다. 아무리 저선량 방사능이라도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는 지점이 참 새로웠다.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탈핵이란 책, 핵 마피아라는 영화를 보았다. 한국탈핵 내용 중에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이름은 불가능하다. 원자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핵발전소'라 불러야한다.'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왜 나에겐 '원자력 발전소'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에 대한 의문도 생겼고. 핵 마피아를 보면서 핵발전소 하나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 돈을 받는 건설회사는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즐겁고 반항적으로 핵발전을 반대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다.

어느 정도 궁금함이 해결될 무렵, 편집장님께서 핵발전소 폐쇄 이야기를 해주셨다. 핵발전소는 형광등 불 끄듯 멈추지 않는다. 연료를 식히는 데만 5년 넘는 시간이 걸리고, 해체하고 부지를 복원하는데도 10년 넘는 세월이 소요된다. 이 역시 즉시해체를 할 때의 시간인데, 자연해체를 할 경우 60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폐쇄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주어야 한다.

핵발전소가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 새로웠다. 고리 1호기가 폐쇄되기까지 했던 운동은 많이 알려졌지만, 폐쇄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서 공부하고, 알려보기로 했다. 검색을 통해 핵발전소 폐쇄 기본 지식을 습득했다. 폐쇄에도 6000~7000억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핵발전소 폐쇄도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란 분석이 새로웠다. 이런 것도 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 뒤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조언을 받아 인터뷰 할 분을 정했다. 부산 녹색당 구자상 공동운영 위원장, 경성대 김해창 교수님,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 대표님이 그 분들이다.

구자상님, 김해창님은 모두 부산에 계셨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부산에 다녀와야 했다. 나이차이도 많이 나고, 모두 남자분이라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내 걱정과 다르게 교수님, 위원장이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무조건 딱딱하거나 고개 치켜드는 사람이 아니었다. 궁금했던 걸 손 크게 벌려가며 설명해주셔서 좋았다. 이현석님 인터뷰도 해외 폐쇄 사례를 들어 좋았다.

고리 1호기 폐쇄는 당장 다음해부터 시작해야 할 일이다. 한국에는 핵발전소 폐쇄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대로 폐쇄 한다면 폐쇄 방식에 목소리 내보지도 못하고 흘러갈 것이다. 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폐쇄에 목소리 내지 못하나? 폐쇄한다는 건 연료봉을 식히고, 구조물을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발전소가 돌아가고 있을 때보다 위험하진 않다. 그러나 해체 방법이 바뀔에 따라 방사능 누출 위험 정도가 달라지고, 부지복원 시기도 달라진다. 그리고 이것에는 주변 주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부터라도 핵발전소 폐쇄에 대해 알 자리가 필요하다. 또 주변에 살지 않아도 핵발전소가 어떻게 해체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이에게 공개를 하는 미국처럼 말이다. 지금껏 해왔듯이 밝게 살 거라면 이 정도는 알고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 3. 어떤 고민을 했나?

꽃내음달, 잎새달 처음 작아에 갔던 3월, 4월엔 작아 분들이 참 좋다고 느낌과 동시에, 하는 일에 녹아들지 못해 괴로웠다. 혼자 작아 읽은 소감, 환경 강의 다녀온 기사를 쓰고 있자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었다. 무엇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만드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니 힘들었다. 어떤 때에는 일이 없어 환경기사만 주구장창 읽기도 했다. 무슨 일을 할지 그날 아침에서야 아는 나날의 반복이었다. 작아 분들과 밥 먹고, 차 마시고 즐겁다가도 초조한 마음이 불쑥 올라왔다. 너무 작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마음이라 그런가 의심이 들어 자꾸 노력해보기도 했었고.

하지만 눈길의 변화는 이 달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 나는 당최 푸른걸 보고 예쁘다고 느끼질 못하는 사람이었다. 필리핀 계단식 논을 보고서도 '아름답다'라는 생각보단, '저거 만드느라 엄청 힘들었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단풍이 곱게 든 산이나, 한창 햇살을 받아 파릇파릇한 나무를 보아도 별 감흥이 없었다.

3월 내내 산책을 참 많이 했다. 처음으로 갔던 곳이 성북동의 산토리니(1.5m밖에 안 되는 속성 코스 산토리니!)와 성곽길이었다. 아직 3월이라 꽃이 만개하지는 않았지만, 개나리랑 매화가 피어나려는 모습에 괜히 행복했다. 생각해보니 난 산이나 하늘이나 계곡같은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다. 내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는 항상 개네를 보러 간 게 아니라, 다른 걸 하러 갔는데 그것이 부차적으로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작아의 산책은 달랐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봄 산책 나갈 때처럼 수다 떨러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필리핀 계단식 논을 마주했을 때처럼 프로그램 중도 아니었다. 봄이니까. 봄이었으니까 꽃이랑 풀 보러 나간 거였다. 무엇보다 나 혼자도 아니었다. 날아다니는 새 보고, 곧 피어나려고 숨어있는 꽃을 찾는데 선수인 분들과 함께였다. 그래서 움트는 매화를 보고 마음 설렘 줄 알게 되었고, 집 가는 길에 핀 꽃이 예뻐 찍다 핸드폰 떨어뜨릴 줄도 알게 되었다.

직접 해온 밥을 먹으며, 함께 밥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만끽하기도 했다. 일이 없어 심란할 때도 작아 사람들과 이것저것 만들어 먹으면 기분이 좋아졌다.

푸른달 5월이 됐는데도 내 생각에 의미 있는 일이나, 작아 일에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시간이 이어지니, 내가 참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새롭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게 더 필요했다. 작아에 정식으로 일하고픈 마음도 자꾸만 들었다. 4월까지의 내가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만으로 인턴 잘 하고 있다 생각했다. 하지만 내 업무가 '다른 누구라도 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자 무척 우울했다. 마치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래서 개인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뭐라도 해야 인턴십을 잘하고 있다는 위안이 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그런지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다. 다른 일이 생기면 자주 미뤄졌다. 그래도 스스로 해보려 노력하고, 인터뷰도 다녀온 건 참 잘한 일인 것 같다.

5월 인포그래픽을 할 때는 욕심드는 부분을 포기하기도 했다. 어린이가 노출되는 환경이 어떤지 조사할 때의 일이었다. 나는 조사하면서 '어린이 음료'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색소나 화학물질이 성인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아이들 운동장 흙과 인조잔디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자 내가 인포그래픽을 정리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그렇지만 내 역할은 정보를 모아오는 것에서 끝났다. 거기서 내 욕심대로 해보고 싶다고 말하지 못했다. 누구보다 내가 먼저 '작아에 들어갈 만한 글 쓸 능력 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럴만한 능력 없다 자책하면서도, '같이 작아를 만드는 사람'으로 인정받고파 안달복달했다. 시간이 지나고 작아에서 많은 일을 맡겨주자,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자격지심은 점점 사라졌다.

#### 4. 더 기억하고 싶은 것

동물과 채식 동물보호단체 카라에서 연 고돌씨네 생명극장, 그곳에서 '화이트 갓'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학대받고, 관리되던 동물들이 인간을 공격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이 소 배를 갈라 피와 내장이 쏟아지는 것이었다. 어떤 남자는 그 고기에 유통해도 좋다는 딱지를 붙인다. 평범한 도살 장면이다. 어떤 것의 목숨을 뺏어야 고기를 얻는다. 하지만 그것과 마주하게 되니 내게 당연했던 고기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내가 맛있게 위해 벌어지는 장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고기를 먹어도 될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고기를 줄여보았다.

고기를 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밥 먹을 때 채식한다는 걸 자주 잊었다. 그만

큼 밥 먹을 때 무엇을 먹는지 생각하지 않는단 증거일까. 바깥 음식은 채식하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엄마와 함께 서울에서 영화 본 후 밥을 먹으려 했더니, 고기 들어가지 않은 메뉴가 거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어묵탕이랑 라면을 시켜 먹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채식한 것은 아니었다. 요일을 정하고 일주일에 하루, 나중에는 3일 정도 채식하면서 보냈다. 나로 인해 어떤 일이 이뤄졌는지 몰라도, 내가 먹는 고기가 어떤 것인지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었다. 눈앞의 고기를 볼 때 마다 내게 어떻게 온 고기일까, 의식하게 되었다. 또 영화 상영 뒤 관객과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 자기 집 뒷산 산책로에 강아지가 못 들어가는데, 이게 참 인간중심적인 생각으로 이뤄진 일이란 거였다. 인간에게 방해된다고 옛날엔 누구나 다녔을 곳을 막는 건 같은 생명이란 감수성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란단다. 그런데 나는 사람이 피해 받는 것 먼저 생각이 들었다. 저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게 대단했다. ‘보통’과 다른 것의 곁에 있으면 그 시선으로 문제를 볼 수 있을까? 그들이 같은 위치의 생명이란 건 머리로만 알기 쉽지, 느끼기는 너무 어렵다.

왜 하나? 3,4월까지만 해도 ‘작은 것이 아름답다’ 내는 일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다 5월이 되어 인포그래픽을 하게 되고, 6월엔 글메김꾼(기자)로 있던 다영언니가 나가면서 일을 많이 해볼 수 있었다. 마감 때마다 야근, 주말출근 등을 하게 되었다.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본 건 처음이었다. 두 번의 마감을 보내는 동안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다. 산책도 나가고, 저녁마다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녀서 그런 걸까? 하지만 힘들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한계는 딱 거기까지였다. 편집장, 부편집장님처럼 작아에서 먹고 자면서 일하면 도망치고 싶어질 거다. ‘엄청 힘들 텐데 왜 계속하는 걸까?’ 하는 고민이 절로 드는 환경이었다.

골똘히 ‘왜 하나?’의 답을 찾아보았다. 그러자 편집장, 부편집장님의 답은 아니지만, 내가 많은 일 속에서 괴롭지 않은 이유는 찾을 수 있었다. 난 동네방네 알려주고픈 이야기가 많아서 괴롭지 않았다. 예를 들어 6월호를 만들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둔갑한 상품, 사람, 기업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을 때, 7월호 기획하면서 매항리 사격장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 때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과 풀이 모두 사라졌다는 걸 알았을 때가 그랬다. 한 달 동안 모니터 속에서 보던 글이 책이 되었을 때의 기쁨도 이 일을 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일과는 별개로 작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아 힘이 나기도 하고. 바로 이런 이유 덕분에 작아 다니며 ‘행복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

스무살 스무살에 대해선 막연한 생각밖에 없었다. ‘혼자 있으면 너무 풀어질 것 같은데, 어디 대학이라도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수준에 고민이 멈춰있었다. 그런데 인턴 다녀오니 뭐가 바뀌긴 바뀌더라.

작아 다니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요리 배워서 요리책도 만들어보고 싶고, 내 땅을 가지고 농사도 지어보고 싶어졌다. 인턴 다니면서 참 많이 걸었는데, 그러다보니 풀이나 꽃이나 예쁜 게 참 많았다. 그것들도 사진으로 담아보고 싶고. 하루 한잔 꼭 먹었던 커피 만드는 것도 배우고 싶어졌다. 그 외에 알바도, 여행도, 다 하고 싶어졌다. 꼭 드높은 댐을 발차기 한 번으로 깨뜨린 것 같았다. 한 번 마음이 생기니 봇물 터지듯 흘렀다.

무엇보다 스무살 뒤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스무살이라고 대학을 가거나 돈을 버는, 남한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충분할거란 안도가 들었다. 대신 지금 하고 싶어진 일들로 졸업 뒤의 시간을 짹짹 채우자는 욕심이 생겼다. 이제 스무살이 무섭지 않다. 새해 첫날 버킷리스트에 쓴 ‘스무 살이 두렵지 않도록 버틸 힘 찾기’ 칸에 체크할 수 있어 다행이다.

환경문제 나는 항상 어떤 문제를 접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리한다. 그래서 핵발전, 4대강 등 환경문제와 마주하게 되자,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막연한 질문을 던졌다. 어쩌면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기 힘들니까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마음이 아니라 머리만 굴리고 있었던 거다. 하지만 어떤 문제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도 해야지, 번쩍 생각이 든다. 고리 1호기 폐쇄 인터뷰 할 때가 그랬다. 나는 ‘세상에 관심 가져야 하는 문제가 이리 많은데, 어떻게 다 책임지고 살 수 있나’하는 푸념 섞인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에 세월호 가족을 인터뷰 했을 때와 같은 답을 들었다. 일단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자꾸 알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먼저 공부하고, 당사자나 그 일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치지 않고 환경 얘기를 해온 작은 것이 아름답다 처럼. 나이 먹을수록 세상도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걸 알아간다. 내가 놓인 환경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예쁜 사랑도 변하는데, 세상이라고 안 변할 거 뭐가 있겠나?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자꾸만 변하겠지. 그래서 뭐라도 하면서 살고 싶다. 다른 애들이랑 프로젝트를 하든, 시위에 나서든, 활동가가 되든지. 알고 하는 사람이 될 테다.

#### 4\_1.활동사진



-산책하는 사진, 윗 사진이 참 신나보인다!



-3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작아 워크숍. 꽃이 정말 예뻐다.



-작아 사무실 풍경. 열심히 녹취 풀고 있다.



-살림지기 인턴이었던 회원언니와 여주, 수세미 심는 중! 애네가 자라 초록 커튼이 되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팟캐스트 하는 모습. 마지막에는 나도 참여해, 인포그래픽을 소개했다.

#### 4\_2. 내가 썼던 글

이계삼, “사랑으로 죽이지 말고…정치의 병을 깨뜨려라!”

글 권효연

평일인데도 과천시민회관 세미나실 안이 꽉 찼다. 후쿠시마 5주기였던 3월 11일 오전, 그곳에서 열린 ‘이계삼의 탈핵, 교육, 희망’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때문이다. 이 강의는 과천에 있는 세 개 생협이 주최했고, 밀양송전탑반대 대책위 사무국장 이계삼씨가 강사를 맡았다.

강의 첫 시작은 ‘밀양 송전탑 투쟁’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었다. 밀양 할머니들이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자와 연대하는 과정을 그린 ‘할매들의 희망버스’, 765kv 송전탑을 모두 뽑아낸 미래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밀양 옛날이야기’. 두 영상을 시청한 뒤, 강의를 시작되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던 3월 11일에, 학교 교무실에서 소식을 들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후쿠시마 5주기인 오늘 강의에서는 ‘교육, 희망’ 대신 탈핵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사랑으로 죽이는 것이 가능한가?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4호기가 파괴되었다. 그 까닭에 원전 안에 큰 불이 났고,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었다. 망가진 원전에 다다른 소방대원들은 6000도에 달하는 불과 마주쳤다. 사람이 끄지 못하는 불이었다. 결국 소방대원들은 피폭당한 채 모스크바 특수병동으로 옮겨져야만 했다.

피폭당한 소방대원 가운데 바실리 이그나텐코라는 남자가 있었다. 남편의 소식을 들은 그의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갔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에게 입을 맞출 수도,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이미 방사능 오염 덩어리였기 때문이다. ‘체르노빌의 목소리’,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책에 담긴 증언이다.

이계삼씨는 “학교에 근무하는 마지막 해에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읽었다. 나는 이 책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헌서이자, 역사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체르노빌의 목소리에 나오는 아내의 목소리로 탈핵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다시 ‘체르노빌의 목소리’ 속 사연으로 들어가 보자.

‘방사능 물질 덩어리’가 된 남편은 몸이 드럼통처럼 부푼 채 죽어갔다. 시체도 계속해서 방사능을 뿜어냈으므로, 그는 다른 이들과 평범한 무덤을 가질 수 없었다. 비닐에 동동 감기고, 아연을 입힌 관에 넣어져 1.5m 콘크리트로 막고 나서야 남편은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그가 죽은 뒤 아내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힌다. 자신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죽어서 나온 것이다. 남편이 내내 뿜어내던 방사능 때문이었다. 아내는 아이가 죽고 나서 이렇게 절규한다. “딸이 나를 살렸다. 그렇게 작은 아이가. 딸이 나를 지켜주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죽이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사랑으로. 사랑과 죽음은 왜 나란히 있는가,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이계삼씨는 아이를 잃은 아내의 말을 읽으며, 우리가 쓰는 전기 속에는 이러한 절규가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고통과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미래세대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전기가 주는 즐거움을 양껏 누리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내의 죽음을 아이가 대신 받은 것처럼, 아이에게 사랑을 말하며 죽음도 쥐어주게 될 겁니다. 이 아내가 했던 이야기는 핵 발전에 대한 완전한 은유입니다. 사랑으로, 죽이는 것이 가능한가.”

그의 말대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발전, 그 핵발전이 남기는 핵폐기물(10만년에서 100만년동안 보관해야한다.)이 미래에 일으킬 문제는 우리가 책임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계삼씨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말하며, 핵발전의 고통도 같이 쥐어주지는 말자”고 주장



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병목을 깨고 민주주의자가 되자!

2013년 10월, 중지되었던 밀양 송전탑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13번째 공사재개였다. 경찰 3000명을 앞세워 들어오는 한전의 공사강행에, 주민들은 더 이상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 활동가들 모두 공사현장에서 들러나왔다. 더 이상 공사진행을 현장 안에서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국회산업통상지원회에 ‘밀양 송전탑 공사 연기·대화 촉구안’을 올리기를 위한 농성이다.

그렇게 시작된 농성은, 안이 의결될 때까지 이어졌다. 밀양 주민 한분당 총 4800번의 농성이 있었다. 그러나 국회산업통상지원회에서 그들의 안건을 다루는 시간은 2~30분. ‘밀양 송전탑 공사 연기·대화 촉구안’을 올리기를 위해 버텼던 시간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계삼씨는 이 사실에 성을 내며 “우리가 농성했던 4800일의 시간과, 5분일지, 30분일지, 20분일지 모르는 시간의 무게가 같아질 수 있나”고 말했다.

그는 4800번 농성과, 국회산업통상지원회의 30분이 같아진 이유가 ‘정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오직 정치인들의 주제로만 돌아가고, 정치인들의 관심 밖인 밀양 송전탑 등의 문제는 외면 받는다는 것이다. 그 탓에 밀양 송전탑 공사 연기 안을 올리기를 까지 4800번의 농성이 필요했다. 또 종합 편성 채널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정치인 양’ 비춘다고 꼬집었다.

이계삼씨는 ‘정치인들의 주제’만 남아있는, 좁다란 병목 같은 정치를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는 밥을 굶고, 분신자결을 하고, 허공에 올라가 1년씩 머문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정치의 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의 좁다란 병목을 깨뜨리고,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치의 병 안으로 들어가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그 방법으로, ‘시민들이 직접 정치 안에 뛰어들 것’을 제안했다.

국어교사에서 밀양 대책위 사무국장. 현재 녹색당 비례대표 2번이 되기까지, 이계삼씨는 자신에게도 ‘정치’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저놈 저거 정치에 관심 있는 놈이었구나’, ‘정치하려고 그랬구나?’하는 시선과, 자신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실수’가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친구들을 통해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혼자 가면 외롭고 어려운 길을, 친구들과 함께 가 즐거웠다는 것이다.

이계삼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며 강의를 마쳤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들이, 실천들이 정치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왠지 모를 두려움, 부끄러움을 벗어나세요. 그리고 병목을 깨뜨릴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정치적인 사람, 민주주의자가 되길 바랍니다.”

-----

그 많던 자투리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글 권효연

서울시내 봉제공장에서는 일년에 9만 1250톤의 자투리 천이 버려진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쓸 방법은 없는 걸까? 그 물음의 답이 되어줄 전시가 있다. ‘업사이클 디자인’ 작품을 전시하는 ‘자투리전’이다.

자투리 전은 서울디자인재단과 DDP가 주최, 주관한 전시로, 2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DDP 디자인 돌레길 심터에서 열린다. 자투리 전에는 디자인 듀오 패브리카, 일러스트레이터 이푸로니 등 총 4팀의 디자이너와, 성균관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각자 업사이클링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가치를 담아 작품을 만든 것에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은 업사이클링을 ‘지속가능한 옷 입기’로 정의하고, 자투리를 최소화하는 무늬를 만들었다. 옷을 만들 때 남는 자투리를 줄여, 인간과 환경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처럼 자투리전의 작품들은, 업사이클링에 대한 작가의 고민을 녹여낸 작품으로 짜여있다.

디자이너 안해익, 유미현 부부의 작품을 살펴보자. 그들의 작품인 ‘자투리와 스토리의 해피엔딩’은 봉제공장이 폐업하며 버려진 실을 압착하고 박음질 하여 만들어졌다. 이 부부는 ‘업사이클링은 이야기의 재활용’이라고 이야기한다. 소재를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소재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살려낸다는 말이다. 그들은 봉제공장이 폐업하며 버려진 실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봉제공장의 꿈을 다시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일러스트레이터 이푸로니가 만든 ‘여러가지 조각’은, 버려지는 자투리에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녀는 업사이클링이 ‘다시 상상하기’라고 말한다. 자투리가 가지고 있던 물질, 시간, 정보의 한계를 상상함으로써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푸로니는 이 과정을 통해, 동대문 특수 인쇄지역의 자투리를 미술품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밖에 쓸 수 없는 청바지 천을 이용해 하늘과 바다를 나타낸 ‘Denim in the True Blue’, 장난감 박스를 이용한 패브리카의 ‘확산-자투리’, 종이심을 이용한 의자까지. 자투리전에서는 자투리에 대한 작가들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자투리전에서 엿본 업사이클링은, 그저 ‘재활용’의 굴레에 갇혀있지 않았다. 누군가는 버려지는 것에 이야기를 담고, 새로운 상상을 담고, 지속가능한 옷의 고민을 담는다. 버려지는 물건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므로써 업사이클링은 이루어진다.

그들의 상상을 통해 고쳐쓰고, 다시쓰고, 다시 살 때도 신중한 문화가 퍼져나가길 기대한다. 쓰레기를 미술작품으로 만들지 않아도, 헌옷 하나를 고쳐 입는 상상력이면 지구를 웃길 수 있다. ‘자투리전’의 업사이클링을 시작으로 그러한 상상력이 가득찬다면, ‘그 많던 자투리는 어디로 갔나’라는 생각을 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  
16090708\_특집\_자연은 취미

푸름을 찾는 눈 표현하는 손 나누는 입

글 사진 권효연

고사리 손부터 울퉁불퉁한 손까지 각양각색이다. 대흥동의 들꽃을 수놓을 ‘우리동네 그린 스케쳐스’들이다. 환경교육센터가 진행하는 이 수업에서는 서울동네 사람의 손들이 모여 일상의 푸름을 수놓는다. 주변에서 푸름을 찾고 표현하여, 스스로 회복하는 ‘자연치유력’을 배우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첫째 주에는 서울 대흥동 한 바퀴를 돌며 골목과 길가 꽃을 관찰했다. 또 꽃잎모양을 만드는 레이저데이지, 점을 찍는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배워 자수 책갈피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 수업에서 놓는 수는 프랑스 자수인데, 동양자수보다 여러 기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 번째 시간인 7월 11일, 앞선 수업에서 배웠던 기법을 활용해 천 가방을 만들기로 했다. 동그랗게 꽃을 수놓고, 안감 넣는 것까지 모두 해보는 시간이다.

두시가 되자 자수 도구를 가지고 온 분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삼십분 전에 도착해 열심히 숙제를 하는 분도 있고, 딸과 함께 온 엄마들도 있다. 엄마는 자수를 놓고 아이는 실 정리

를 한다. 손발이 짝짝 맞는 엄마와 아이의 모습이 노련한 단짝 같다. 강사가 돌아다니며 자수 해온 것을 봐주는 동안, 같은 책상에 앉은 분들끼리 서로 작품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듣기도 한다. 지금 놓고 있는 꽃의 이름을 아냐고 묻자 토끼풀 꽃이라는 대답이 바로 나온다.

자수를 가르치는 유지연42세 님은 원래 현미경 들여다보는 일을 했다. 아이를 가지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꽃과 풀을 기르는 취미가 생겼다. “꽃을 피우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재밌고 신기했어요. 생명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죠.” 집에 화분을 들여놓으면서 예쁜 꽃을 그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곧 자수 배우기로 이어졌다.

수를 놓다보면 자연스럽게 주위를 관찰하게 된다. 길을 걷다 보이는 것들, 화분,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입은 티셔츠까지 눈길이 간다. 손으로 ‘내 것’을 만드는 경험이 빈약해져갈 때, 자수는 ‘내가 보는 풍경, 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꽃의 이름을 알아내 여러 모습을 봐요. ‘애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네! 그럼 굳이 밝은 색을 쓰지 말자.’ 하는 식으로 대상에 대한 관심을 넓혀가는 거죠.” 같은 풍경을 봐도 각자 놓는 수는 모두 다르다. 들꽃을 수놓는 교실에는 눈과 손만 오롯이 빛난다.

우연히 30년 지기 친구 딸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된 분도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쌓여야 결과물이 나오니까 세상에 거저 되는 게 없구나 싶어요.” 옆에서 친구 딸도 말을 보탠다. “집에서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게 돼요.” 같이 앉은 분들도 집중했을 때의 느낌을 엿어주신다. 실이 ‘뿅’ 하는 소리를 내며 천을 뚫고 지나가는 것. 고른 실의 조화로움을 느끼는 것. 평소와 다른 집중 탓에 작은 느낌까지 속속들이 들어온다. 작은 느낌을 잡는 순간이 반복되면 더 넓고, 예민하게 주변을 바라보게 된다. 전에는 무서웠던 새 깃털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새순의 솜털을 보게 되고, 바람의 색이 계절마다 다르게 보이는. 모두 반 년 정도 자수를 해온 분들의 경험담이다.

자수를 하며 경험한 느낌은 자수 모임의 주된 수다거리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즐거움에 낮간지러운 대화도 쉬이 이어지곤 해요.” 어쩌다 감성이 고백하듯 튀어나와야 하는 마음이 되었을까? 자수 모임에서는 ‘오늘거리다’는 말에 막혀 있던 감성이 바늘에 찔려 새어나온다. 모여 자수를 하는 사람이 있는 한, 오늘거리든 말든 감성은 수없이 입에서 귀로 옮겨 다닐 테다.

두 시간 남짓한 자수 시간이 끝나고, 단체 사진 한 장 찍자고 이야기하는데도 손 떼는 사람 하나 없다. 어깨를 두드리며 말해야 하나 둘 일어선다. “수놓고 있으면 뭘 만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취미라면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은 결과가 중요하지만, 취미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쓸모를 위해서만 화분을 키우거나 노래를 부르지는 않잖아요.”



소통의 장, '공감 게스트 하우스'  
배움은 그 안에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아름답다!  
/03.13~06.13까지  
공감게스트하우스

김민정

▶순서

1. '공감 게스트 하우스'는
2. '공감'을 알게 되기까지...
3. 그곳에서 했던 일들
4. 인턴십을 마치며
5. <주제별 글쓰기>어떻게 살고 싶어?
  - 진로와 직업의 차이
  - 사회적 기업
  - 북한
  - 대구를 알아야하는 이유

## ‘공감 게스트 하우스’는

2013년, 모 단체인 ‘하나센터’(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북한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북한이주민정착지원센터)의 수익사업으로 시작된 통일 형 사회적 기업 ‘공감 게스트하우스’이다.

수익금의 20%를 북한 이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과 취약계층과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있다. 1,2층 공간들은 북한 이주민들의 교육이나 일일 영어 멘토링 수업으로 사용된다.

또 새롭게 주식회사 ‘공감씨즈’ 라는 신생여행사를 만들어 대구시와 함께 대구지역을 알리는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 ‘공감’을 알게 되기까지...

내가 살고 있는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이다 보니 사회적 기업과 같은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공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무작정 찾아 갔다.

평소 여행을 좋아했고 막연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던 터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나의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이 들어 이곳에서 인턴을 시작하게 되었다.

## 그곳에서 했던 일들

청소 >> 온전히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늘어남

게스트하우스 특성상 일의 대부분은 청소였다. 게스트하우스 오픈과 조식을 준비하는 일, 체크인, 체크아웃을 도와주는 일, 청소, 전화 받는 일, 길 안내, 대구여행 안내 그 외의 심부름, 이벤트 만들기, 대구 홍보 안내지 붙이기, 행사 참여(대구시민아카데미 참여), 과제하기와 같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 ◆청소

그중 나의 주 업무는 청소였다. 기본적으로 점심시간을 제외한 10시부터 3시까지 청소를 했다. 그날 숙박객 수에 따라 일의 강도가 달랐지만 대부분 하루에 4시간 이상 청소를 했다. 학교에서 스스로 청소하고 집안일을 배워 빨리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오해였다.(학교에서 하는 청소는 청소가 아니었다는...) 학교에서의 느긋함에 익숙해있던 터라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힘이 들었다. 특히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다. 퇴근하면 뻘은 일이 다반사였지만 점차 적응했다. 주 5일 근무였지만 게스트하우스 특성상 주말이 더 바쁘기 때문에 주말 근무를 했다.

청소를 할 때면 난 청소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그만큼 힘든 노동력이 필요로 했기에 이걸 통한 배움을 찾기에 급급했던 것 같다. 팀워크, 효율, 일머리를 배웠다.

### ◆ ‘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분들과 함께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람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업체험으로 오신 보민씨와 승봉씨 그리고 담당지도교사이신 미나씨, 지윤씨와 같이 청소를 하는 시간이다.(나처럼 이곳에서 직업체험을 해보러 1년 간 인턴으로 오신 분들이다.)

처음에는 같이 청소를 배우는 입장이었다면 나중에는 승봉씨를 담당해 미나씨와 함께 게스트하우스 일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다.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체력이 빨리 떨어지셔서 어쩔 때는 달래면서 해야 하고 가르쳐줬던 일들을 반복해서 알려줘야 한다거나 청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다른 대화들은 삼가 하는 일도 필요했다. 그분들보다 어린 내가 가르쳐주는데도 잘 따라와 주고 오히려 그 분들이 날 더 챙겨준 것 같아 감사했다. 지적장애가 있으시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밝게 일하시는 모습이 힘이 되었다. 쉬는 시간마다 지도교사 미나쌤의 파란만장한 인생스토리를 듣고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활기차고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좋아했던 시간이었기도 하다.

#### ◆ 팀워크, 사람들을 만나다

여러 쌤들과 팀워크를 하며 일을 했다. 직원이 많고 파트타임으로 운영되기에 사소한 일들까지 전달하는 게 중요했다. 매주 회의를 통해 그때그때 보고하고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건강하다는 생각을 했다. 한사람만 잘한다고 굴러가는 곳이 아니다 보니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었다. (혼자 청소를 하고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하셨던 적도 있다.) 그 외의 시간은 능동적으로 굴러갔다. ‘사람 책’이라고 ‘주여’와 같이 직원들끼리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게스트하우스 개선을 위한 회의, 과제를 해가기도 했다.

내가 어려워했던 부분들 사람을 대하는 부분이었다. 전화를 받는거나 길을 알려주거나 처음 보는 사람들을 대하는 게 힘들었다. 친화력이 별로 없는 성격 상 먼저 손님께 말을 붙이고 서비스를 해주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목적을 달성했다! 오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 만나기! 가장 좋았던 것도 사람들 만나기!

#### ◆대구 공부하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었다. 각종 행사, 축제, 여행을 참여해보며 대구의 새로운 면모를 알 수 있었다. 또한 대구에 대해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때의 기쁨이 컸다.

#### ◆북한

또 이곳은 북한 이주민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모 단체 하나센터와 연관이 있기에 주말이면 그분들의 일일 영어 멘토링 시간으로 이곳 공간이 사용되었다. 생각보다 이곳에서 새터민들에 관한 활동이나 분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지만 종종 기회가 되어 그분들의 행사나 수업에 참관하기도 했다. 직원 분들 중에서도 북한이주민이 있었고 종종 오시는 북한 이주민분들을 뵈면서 무관심했던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고, 다르다는 거부감이 없어졌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온전히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늘어나며 힘들기도 했지만 인정해주고 믿고 맡겨주어서 좋았다.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일들이 재밌었다.

## 인턴을 마치며

3계절을 지나고 3개월이 조금 지난 지금, 나에 인턴십 또한 끝나가고 있었다.

단체를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격차가 있긴 했지만 다행히 다들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사실 3개월간 각자의 자리와 지역에서 적응하기 바빠 서로의 안부나 생활을 공유하는 게 잘 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바쁘게 3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학교에서 느끼던 느긋함이 허용되지 않아 힘들고,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배워가야 할지 몰라서 힘들고, 학생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그냥 나라는 한 인간으로서 나를 설명하고 인정받아야 해서 힘들고, 적응하느라 힘들었다. 지금 와서는 평생 못해볼 경험이고, 후회는 없지만 하루하루가 말 그대로 빠싹했다.

인턴을 하며 무엇을 배우고 얻어 갈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었다. 뭐가 그리 급했던지 그렇게 배움이라는 말의 틀 속에서 전전공공하며 힘들어했던 내가 한심하다. 배움은 지나고 난 후에야 알 수 있는데 말이다.

이곳에선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고 서비스업이다 보니 매일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났다. 자주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기도 했다. 사람들을 대하는 게 가장 힘이 들기도 하고 이번 인턴 기간 동안의 가장 큰 배움이기도 하지 않았다 싶다.

처음부터 '공감'을 제대로 알고 간 게 아니어서 단체의 취지를 보고하게 되었던 터라 나의 본 업무가 게스트하우스의 일만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게스트하우스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일이 청소였고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라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다. 3개월 동안 청소만 하고 끝나는 거 아냐 할 정도로 주구장창 청소를 했었다. 학교의 느긋함에서 벗어나 효율을 생각해야 했기에 책임감과 부담감이 컸다.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많이 배운 것 같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턴이 힘들다며 많이 투덜거렸지만 체력적으로 힘든 거 외에는 정말 활동적이었고 재밌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의 일이 방대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처음 내가 욕심 냈던 부분은 대구 관광 안내였다. 여행에 관심이 있어서 문을 두드렸던 만큼 대구에 대해 공부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틈틈이 대구에 대해 찾아보고 직접 여행을 가보기도 했다. 대구 여행을 안내할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종종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한 가지의 일을 적응할 때면 나 혼자 책임지는 일들이 점점 늘어났고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이라는 인식이 생기니 어떻게 하면 게스트하우스가 더 개선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되었다. 일단 단체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 다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고 계셨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하고 매번 회의를 하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건강해 보였다. 전문 인력은 아니지만 우리 학교처럼 많은 영역의 일들을 할 기회를 주었다. 또 다들 활기차고 적극적이어서서 무리 없이 잘 어울릴 수 있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교육의 현장과 일의 현장의 차이도 알게 되었다. 수익과 연관이 있다 보니 제안이 많았다.

인턴을 하며 가장 많이 고민되었던 건 나의 진로였다. 하고 싶은 것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것도 그려지지 않아 막연함이 들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워낙 진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 자극도 많이 받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조언도 많이 들었다. 삶의 기준을 정하면 어떤 직업을 갖던 연관될 수 있고 내 요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게스트하우스에 다니고 계시지만 다 다른 목적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계셨다. 다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었다.

난 한 가지 느꼈다는 것은 없지만 알게나마 여러 경험을 접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또 내가 할 일이 아주 많았고 활동적이라 그만큼 에너지 있게 일했던 것 같다.

+

사람들을 만나며 느끼는 배움은 크다.

결국 내 자리, 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잠깐이라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기도 한다. 나의 인턴십 또한 그랬다.

정말 다양한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다. 어떤 장소든 어떤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결코 혼자 이루어 내는 게 아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뭐든 할 수 있었다. 여행을 가도 그렇다. 낯선 도시 낯선 땅에서 아무 사람도 없고 그냥 건물, 장소만 있다면 타지에 왔다고 할 수 없다. 현지 사람들의 행동과 모습을 보며 고로 그 나라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길을 물어보던 무얼 사던 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밖에 없다. 일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과 일하느냐가 매우 크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잠시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곳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고, 모이게 되는데 직업을 선택하기 앞서 돈을 포기하느냐 사람을 포기하느냐로 나뉘게 되는 건가?' 극단적이고 조금은 씩씩한 생각을 해 보았다.

나 또한 인턴기간 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지 않았더라면 잘 적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처음 사회를 접한 곳이 '공감'이라는 따뜻한 단체여서 너무 좋았고 궁금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은 내게 모두가 멘토였다. 또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아 사람들에게 진로에 관한 질문을 많이 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지금 만나는 인연들이 내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졸업 후에도 단체 분들과 그냥 스쳐가는 인연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오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

<부록>

주제별 글쓰기

어떻게 살고 싶어?

-진로와 직업의 차이

19살과 20살의 크기는 다르다.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지고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로서 사회에 나가는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내 삶을 좌우하는 선택의 시기라 생각하기에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19에게 화두는 진로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고 고민도 걱정도 많다. 하고 싶은 게 분명하지 않아 힘든데, 주변 사람들 그리고 무려 외국인 손님까지 'what is your subject?' 물어본다. '19에게 왜 이러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그런 얘기 들을 나이

지, 하며 씩씩히 되묻는다. 결코 잘못된 건 없는데 진로 얘기만 나오면 작아져 있는 나를 보게 된다.

학교에서 나를 성찰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정작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들었다. 진로 프로젝트도 학교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삶도 다 모호하고 멀게만 느껴졌다. 가치 있는 삶을 배웠고 학교에선 꿈을 물었을 때 그건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 중심을 잡고 사회에 나가라는 건데 그것 또한 모호했다. 돈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으로 나누어질까?

인턴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꿈에 대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게스트하우스에 계시는 쌤들 또한 다 다른 이유로 이곳에 들어왔다.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 미래에 자신의 게스트하우스를 차릴 생각으로 오신 분, 관광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신 분, 사람의 심리를 공부하고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직업은 계속 바뀌었지만 다 연결이 되었기에 현재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 바리스타를 시작으로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하다 보니 이곳 게스트하우스까지 오게 되었다는 분.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 와있었다. 다들 처음 선택한 전공과는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의 기준점은 분명한 것 같았다. 30대가 되어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안함과 방향은 똑같다는 얘기를 듣고 놀란 적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확신이 들고 명확한 길이 보일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10대 때의 제일 큰 숙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불안함을 그냥 즐길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결과만 중요시하고, 너무나 선택의 장이 많은 지금 나의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직업과 진로의 차이는 나의 중심이다. 직업만 선택을 한다면 더 삶이 불확실해지고 불안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게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꿈이라는 걸 너무나 크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난 배우고 싶은 건 많은데 하고 싶은 건 없었다. 아직 아무것도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없다면? 결코 나쁜 건 아니다.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것은 뭐든 해도 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인턴도 예상하지 못하게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배운 것들이 많았다. 영어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내가 사는 곳을 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그 다음 길이 보이고 기회가 온다는 것, 말을 조리 있게는 잘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일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또 어떤 곳이던 내가 주체가 되어 일을 할 때, 인정받을 때 성취감을 느꼈다. 또 좋아하는 일이어도 좋아하는 일이 되기까지 힘든 시간이 있고 그걸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턴의 시작과 끝, 어떤 것도 명확한 것은 없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는 않다.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을 뿐이다. 정답은 없으니까.

## 사회적 기업

난 공감에서 '사회적기업'을 몸소 경험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가치 지향적인 곳, 전 인교육을 중시하는 학교다 보니 인턴을 선택함에 있어 제한이 많았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가치라는 것은 뭔가 현실에선 거리가 멀고, 진로를 고민하는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배움과 내가 나갈 사회에 대한 괴리감이 있었다.

3개월간의 경험이 '공감'과 다른 사회적기업의 모습의 매우 단편적인 부분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경험한 것 한에서 얘기를 해보려 한다.

공감게스트하우스는 북한이주민정착을 도와준다는 목적이 분명하다 또한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와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이 단체를 잘 알아야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입 직원 교육을 자주 했고, 게스트 하우스 일을 총괄하고 있는 소장님께서선 직원 한 명 한 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 직원 면담을 한다거나 이곳에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나 분야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하지만 이곳에서 다른 꿈을 가지게 되어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셨다. 게스트하우스일의 특성이기도 하고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마치 정류장과 같이 거쳐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또 이곳에 들어오신 분들의 목적 또한 다양했다.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다는 분, 미래에 게스트하우스를 차리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 창업을 하기 위해 왔다는 분, 대학교를 휴학하고 오신 분 정말 다양했다.

이곳의 분위기는 활기찼고 다들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다. 또 직원들끼리 친목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직원 회의가 있었고 이때 업무일지를 쓰고 보고하며 그때그때 필요한 안건들을 다루었다.(1년에 한번 씩 노동자 총회를 연다) 일이 체계적이고 결정 권한은 직급이 높은 분들에게 있다 보니 일의 결정 절차가 많았다. 또 학교와 일의 현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돈이었다. 이곳에선 자신의 영역 외의 다양한 업무의 기회를 주고, 또 주인이 있는 기업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수익과 효율을 생각하다 보니 제한이 많았다. 또 근로기준법이 모든 결정에 있어 기준이 되었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법으로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사회적 기업 안에서 제한이 많았다. 또 정해진 것보다 만들어 가야 하는 게 많다 보니 도전해야 했고 그게 불안한 반면 일의 성취에 있어서는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곳 공감에서 3개월간 경험해 보며 일반 기업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다. 좋은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가장 걸리는 것은 돈이었다. 모든 사회적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다 보니 다들 어려웠다. 하지만 독립하고 무언가를 혼자서 해나가야 하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다. 가치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곳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사회적 기업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대안교육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가 개인에서 더 나아가 한 사회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또 나라에서 복지나 소외계층에 더 신경을 쓴다면 사회적 기업 또한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개인주의, 개인의 영리만 생각하는 사회에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 북한

내가 인턴한 곳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도와주는 모 단체와 함께 수익금의 일부와 카페 공간들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또 게스트하우스 직원 분들 중에도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북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신기하고 우리와 다른 점이 있을까 궁금했다. 또 직원 분들 중에 북한 분이 있다 보니 왠지 조심스러웠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북한 음식에 대해서도 뭐가 맛있는지 알려주기도 했다. 그리고 영어 일일 멘토링 수업에 참관한다거나 북한 아카데미에 참여해 북한의 문화들을 알 수 있었다.

가끔 탈북을 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어눌하시고 남의 시선에 소극적인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만난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었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대구에 상대적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북한 이주민들은 한국에 오려고 탈북을 했다기보다는 탈북을 하고 오다 보니 한국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브로커들을 통해 한국에 올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받는 정착 지원금의 대부분을 브로커에게 주는 바람에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또 요즘 들어 북한 사람

들이 나오는 예능들이 '남남북녀'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많은데 남한의 시선으로 맞춰진 방송이다 보니 편향된 시선으로 보게 되고 결국 남한이 좋은 곳이다 라는 짜여진 스토리에 맞추다 보니 그 분들에게 고향을 스스로 욕해야 되고, 부정적으로 말해야 해서 그분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 또 기사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를 위협, 도발한다는 내용이 많다 보니 학교에선 통일통일 하지만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민족성보단 사상성을 강조하는 북한 위 세력 정치인들 외에 민간인들은 그렇지 않고, 북한 사상에만 맞춰 억압받은 채 살아가고 있지만 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 않았고 민간인들의 문화나 이웃 간의 정은 우리보다 더 끈끈하고 좋았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를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북한과 통일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또 북한보단 우리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아직까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았다. 우리 세대의 과제는 통일이라고 할 만큼 많은 청년들이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인식 또한 바뀔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몰랐던 대구

### -대구를 알아야하는 이유

내 고향은 대구다. 중, 고 6년간 제천에서 있었던 시간이 많았지만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대구이다.

유년 시절 집 주변에 있는 뒷산에서 뛰어나고 놀며 자연과 어울려 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우리들만의 아지트를 만들고 구석구석 뭐가 있는지 알았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간디학교에 입학하며 집, 학교 외에는 일부러 찾아다니지는 않았다. 간디학교에서 타 지역 친구들을 만나며 다른 지역에 갈 기회도 생겼고 대구에 친구들을 초대할 기회도 많았다. 하지만 대구는 이런 곳이야 하고 소개할 거리가 없었고 놀 거리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대구는 볼 게 없어 라고 소개를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서울에 살고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장소나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서울에 몰려있다 보니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을까?

대구는 덩다. 산을 둘러싸고 있는 분지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다. 미인이 많다. 사과가 유명하다. 섬유공업이 발달되었다. 교육열이 세다. 일반적인 정보들 뿐이었다.

'공감'에서 일을 하면서 대구를 소개할 기회가 많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구에 볼거리나 먹 거리를 찾아보고 직접 가보기도 했다.

요즘은 대구도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관광청에서도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한다. 행사, 축제도 참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관광 주간, 내일로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 왔다. 그중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 근대 골목 투어를 소개하려고 한다. 대구 근대 골목 투어는 1900년도를 배경으로 옛 성터가 있었던 곳으로 일제강점기로 인해 성벽이 부서지고 많은 일본인들이 중구 북쪽에서 살면서 우리는 남쪽으로 내려와 살게 된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북성로, 남성로, 동성로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불렀던 이름이다. 대구는 일제강점기 때의 전쟁 피해가 적었던 터라 그때의 모습이 많이 보존되어 있어 골목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대구 근대골목투어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역사를 테마로 하고 있는 여행이다. 계

산 성당, 향촌 문화관, 대구 역사박물관, 3.1운동길 등 그 시절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 건물들과 기억해야 될 독립운동가 이상화 시인과 서상돈 고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에 의해 허물어졌던 성벽의 잔여물들이 곳곳의 건축물에 사용되어 볼 수 있다. 총 5코스가 있으며 주로 많이 가는 코스는 2코스이다. 그 외에 가수 김광석 고인을 기리기 위한 김광석 길, 3호선 모노레일, 대구의 큰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이 볼만하다. 최근에 개설한 서문시장 야시장도 인기이다. 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담장 허물기 운동과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나무 심기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다. 또한 매달 대구에서 하는 행사나 축제들이 많았다. 지구의 날 행사, 사회복지영화제, 동성로 축제, 거리연극 축제, 약령시 약재 축제, 토마토축제 등등 지금껏 한 번도 몰랐던 볼거리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또 대구에 왜 사과가 유명한지 교육열이 높은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것 또한 일제 강점기 때 비롯된 것이었다. (일본에서 사과 종자를 들여와 사과를 심게 했기 때문) 또 누룩 국수 납작만두, 칼국수가 유명한 이유도 전쟁 중에 못 먹고 살아 먹게 된 음식들이다. 전쟁 때문에 건물이고 역사가 다 파괴된 다른 지역에는 볼 수 없었던 아픈 역사를 대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 이번 연도에 대구 관광청과 '공감씨즈'와 같이 대구 시민들을 위한 '대구 관광 아카데미'를 주최해서 종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와드렸다. 취지는 대구 시민들이 대구를 알아야지 대구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강사들을 모셔서 진행했다. 대부분 서울에만 집중되다 보니 타 지역들은 관심 제외이다. 서울에도 서울지역만 홍보하고 이슈나 사건사고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신문사가 있다. 그곳은 아무리 타지에서 큰일이 일어나도 서울에 관련된 얘기만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흥대 스트리트H와 같은 잡지사도 있다. 이처럼 대구를 홍보하고 다루는 곳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인턴생활 동안 직원 분들과 같이 테마를 잡은 여행을 가기도 했다. 대학교만 탐방해 본다면 2코스를 문화해설사와 같이 여행하기, 전통시장에 가기, 연극 보러 가기, 복지영화제 참석, 인디연극제 보러 가기, 대구인디밴드 공연 보러 가기 등등 대구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손님들, 대구에 오는 친구들에게 대구를 알려주면서 보람을 느꼈다. 또 내가 사는 곳을 알아야지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 지역에 대해 소개할 수 있고 비교도 할 수 있기에 또 한 번 지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활동사진>>



옥천신문 인턴기자의 나날  
/2.1~5.15 까지.  
옥천신문

김예림

▶순서

1. 옥천신문 소개
2. 옥천신문으로 인턴을 간 이유
3. 14주간 내가 함께한 활동
4. 내가 던진 질문과 옥천에서 받은 답
  - ‘지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 ‘언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 지역신문의 기자로 산다는 것
5. 세상이 던진 질문과 내가 한 답
  - 대학은 갈 거야?
  - 나의 작은 공동체에 대한 고찰

● 충북 옥천에 위치한 옥천신문사에서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인턴을 했다. 편집국장님 집에서 생활했고 기자님들을 따라다니며 현장, 마감, 교정을 함께 했다. 언론의 역할과 지역 신문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인턴을 시작했다.

### ●옥천신문 소개

- 옥천신문
- 1989년 9월30일 창간호를 발행하며 26년째 주민을 위한 신문을 만드는 지역 주간지
- 지역에서 또 하나의 '작은 권력'이 아닌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고자 함. 1989년 222명의 주민들이 모여 만들며 한국신문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회사 지분을 일정 부분 이상 소유할 수 없는 형태로 설립
- 지역의 모든 행사, 사건, 민원을 취재
- 4천 부를 발행하며 5만 명, 2만 가구 옥천지역의 20%이 구독. 보통 지역 신문 구독률 5%도 안되는 것을 생각하면 높은 수치
- 총무국 총무 2명, 편집국 기자 9명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주관함
- 신문사 내 노동조합, 독자 위원회, 청소년 기자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옥천신문으로 인턴을 간 이유

신문사 국장님은 드라마에 나온 신문방송학과 대학생이 멋있어 보여서 기자라는 직업에 들어서게 됐다고 했다. 사실 나 역시 단지 재밌어 보이기 때문에 인턴으로 신문사에 가고 싶었다. 이리저리 수많은 미디어 언론, 지역 신문사, 시사 주간지 등을 기웃거리다 보니 흘러 흘러 옥천까지 가게 되었다. 이 나라의 '언론'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몰랐다. 그래서 막연히 많이 듣고 보았던 곳에 가려고 했다. 그런 별거 없는 이유에서 시사 주간지 '시사IN'에 자기소개서를 넣었다가 어렵겠다는 답변을 받고는 그럼 이 많은 언론사 중 어디로 가야 하나, 길을 헤맸다.

어디 갈지는 모르겠고, 학기는 끝나가고 초조하던 와중에 자주 조언을 구한 정환쌤과 멘토였던 상현쌤은 지역 언론사인 옥천신문을 추천해주었다. 근데 뭐 보도 듣도 못한 이름의 신문사라니, 감이 잘 안 왔다. 옥천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지역신문이 뭘 하는지 본 적도 없으니 그럴 만 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전에 인턴으로 갔던 조상님 급 선배인 나리언니의 보고서도 들춰보고, 무빙으로 다녀온 하한오빠가 경험했던 얘기도 들으며 어렵פות하게나마 지역 신문의 이미지를 그렸다.

그러나 나는 지역 언론사를 알아보면서까지 나는 가장 명성(?)이 높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쓸데없는 욕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가장 굉장한 곳에 가서 가장 멋진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런 이유로 집에서 가까운 안산 협동조합 신문사도, 부천의 콩나물 신문사도, 꽤 괜찮다는 시사인천도 있었지만 굳이 안산에서 2시간 반이나 떨어져 있는 옥천으로 짐을 싸서 떠났다.

### ●14주간 내가 함께한 활동

인턴을 하며 신문사 일정을 그대로 따라갔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기자님들 취재 다니는 것을 따라다니거나 간단한 업무를 도와드렸고, 목요일 밤에는 마감 교정교열을 함께 봤



다. 행사가 있는 주말이나 강연이 있을 때 같이 가기도 했다. 함께 취재하며 사진을 찍고 연 습기사를 썼다. 그 외에는 감사하게도 정보 게시판 ‘주민게시판’과 오일장 할머니, 할아버지를 취재하는 ‘장터사람들’ 코너를 맡겨주셔서 열심히 해나갔다.

### ●내가 던진 질문과 옥천에서 받은 답

○‘지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전에 어떤 초등학생이 그린 우리나라 지도를 봤는데, 한반도 남쪽 서울에 동그라미를 쳐 놓고 그 외의 지역에는 ‘시골’ 이라고 써놓은 그림이었다. 내가 사는 안산도 시골이라며 한참을 웃었지만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었다. ‘지역’은 옥천에서 가장 새롭게 배운 개념 중 하나다.

처음 인턴을 갔을 때 국장님이 얘기를 나눌 때마다 지역을 강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갔다. 우리 학교도 지역과 연계를 하고 마을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감이 오지 않았다. 국장님은 지역이 ‘서울의 식민지다’고 했다. 우리가 보는 티브이 뉴스, 신문 모두 지역의 소식을 중요하게 담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수신료를 내지만 내가 보는 소식은 모두 서울 중심의 이야기다. 우리의 인식 역시 다르지 않다. 학교를 옥천에서 다녔든, 안산에서 다녔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달하고 싶은 목표는 서울이다. 지역에 남아 나의 재량을 펼치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서울이라는 크고 낯선 도시에 찾아가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벌써 천만 명이다.

물론 서울에는 더 큰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턴을 정할 때만 해도 그랬다. 서울·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가면 친구들도 만나기 힘들 거고, 숙소도 따로 구해야 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이 적어진다. 다른 곳보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서울이 아닌 농촌 신문사를 선택하며 농사짓는 사람, 지역 청소년, 오일장 할머니, 지역 정치인을 만나고 나도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작은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서울에 몰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실현할 생각이 없는 정책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방자치의 개념이 없으니 우리 지역 정치에도 관심이 없다. 내가 사는 동의 시장도, 시의원도, 지역구 의원도 잘 모른다. 이런 상황에 우리 지역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돌아오고 싶은 ‘고향’이 될까?

인턴이 끝나고 다시 옥천에 갔었다. 인턴을 하기 전 나에게 옥천은 연고 없는 낯선 곳이었으나 다시 옥천에 갔을 때는 달랐다. 19년간 살았던 안산 보다 아는 사람이, 아는 곳이 많았다.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머물 곳이 있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돌아오고 싶은 고향이 이런 느낌일까 싶었다. 옥천에 있으면서 자주 들렀던 안남면은 정말 ‘마을’같은 곳이다. 1천여 명이 사는 마을에는 대청호 수계 규제로 인해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비’가 내려온다. 본래 집집마다 에어컨 사고 냉장고 사는데 썼던 돈의 일부를 모아서 마을에 쓰기로 마음을 모았다. 그 돈을 쓰기 위해 주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지금의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각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주민이 모여 40여 명이 하는 회의는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러나 그때의 기나긴 논의로 지금 안남면에는 아이들을 위한 배바우 도서관이 세워지고, 읍이 아니라 마을을 도는 순환버스가 생기고, 안남면 브랜드를 만들었다. 내가 인턴으로 있을 때는 농촌의 사라져가는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기도 했다. 이런 마을에 산다면 나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 같다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옥천이 지역으로서 힘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사실 다른 지역에 가보지 않아서 비교가 잘 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옥천은 시골벽적이다. 군청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사람이 모이고, 의견이 오가고, 비리를 고발하고, 싸우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한다.

옥천에 오기 전에는 지역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떤 커다란 것이 바뀌어야 내 일상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의 지역 하나하나가 의지를 갖고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질 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을 그리고, 그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속속들이 아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 그건 생각 보다 더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다.

○‘언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언론이 그렇게 중요한가? 특히, 지역 언론이 그렇게 중요한가? 인턴을 시작하기 전 가지고 있었던 물음이다. 그리고 옥천신문에서 그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여러 종류의 취재를 따라다니며 다양한 곳을 가보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중에도 기억에 남는 취재가 있다. ‘함께사는세상’이라는 코너로 만났던 98세 할머니였다. 한 세기를 몸으로 기억하는 할머니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셨다. 할머니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갔을 때는 몸이 안 좋은 동네 할머니 집에 병문안을 가 계셨고, 인터뷰를 할 때도 담배를 피우시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멋있기도 했다. 옥천신문 인턴 내용을 한 줄로 줄이려면 ‘사람 만나고 또 만나고’ 라고 정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많은 사람을 만났다. 인터뷰를 다니며 이야기를 듣고, 행사 취재를 가면 수많은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민원 얘기 하는 사람 하소연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을 찾아간다. 가끔은 기자님들이 정말 힘들어 보인다.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취재원 중에는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남의 말을 안 들으려는 사람도 있고, 길게 얘기 듣기 너무 힘든 사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민들을 만난다.

시도 때도 없이 주민에게 오는 전화를 받던 기자님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신문사가 아니라 민원창구인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신문사는 어느새 주민들의 확성기이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가 되어있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잘 정리해 기사로 쓰고, 어떤 사람은 기사를 잘 써주어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손을 맞잡기도 한다. 또 민원이 아니라 인터뷰를 한 것만으로도 얘기를 들어주어 고맙다고 말하곤 한다. 인턴을 하며 만났던 군의회의 속기사분은 기사가 나가자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연락이 많이 왔으며 이야기를 예쁘게 잘 써 주셨다 말해주셨다. (내가 쓴 건 아니고..) 지역신문 역할의 바탕은 주민들을 우선으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닐까? 내가 정리했던 주민게시판(정보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유익할 만한 행사나 정보만 모아 실었다. 큰 역할은 아니었지만 오타를 보고 전화를 거는 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정리한 것이 도움이 되는구나, 진짜 주민이 주인인 신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지역신문은 지역의 ‘진짜’ 신문이 된다.

또 지역신문은 기세등등한 지역 권력을 감시한다. 4.13 총선이 지나고 남부4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박덕흠 의원을 인터뷰하는 자리에 따라갔는데, 아주 보기 드문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이번 총선에 이기고 2선 의원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신문사 인터뷰를 피했다. 바쁘다는 말로 인터뷰를 미루고 미루더니 나중에는 약속을 파기하기까지 했다. 결국 어찌어찌 서울 국회의사당으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묻는 정책 질문마다 ‘기자가 더 잘 알지 않느냐’거나 ‘그런 것을 왜 묻느냐’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옥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님은 ‘예림학생 보기 부끄럽다’했으니, 할 말 다 했다.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인터뷰였으나 나는 이것을 통해 지역신문이 진짜 언론이라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옥천 공무원들은 옥천신문 여론광장 게시판(주민들 의견을 직접 게시할 수 있는 곳)을 열어놓고 업무를 보고, 관련 기사가 나올 때면 이른 아침 신문사에서 직접 신

문을 받아 간다. 언론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때 옥천신문이 오랫동안 쌓아온 흔적처럼 하나 둘 지역의 정책이 바뀐다. 지역 정치인들이 기자를 꺼리고 무서워하는 것, 어떻게 보면 조금 통쾌한 일이기도 하다.

매주 금요일 신문이 나오면 기자들 전화가 불이 나게 울린다. 보통은 항의 전화지만 가끔 감사 인사도 있다. 신문을 받아본 주민들은 이번 1면 기사를 장식한 C씨가 누구인지, 이런 일이 있었다니, 하는 이야기를 나눈다. 신문을 통해 공론장이 형성되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과 문제가 표면 위로 올라온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한다. 인구가 5만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나 시끄럽고 많은 일이 일어난다니! 지역신문은 지역을 시끄럽게 한다.

○지역신문의 기자로 산다는 것(지역기자로서의 취재원과의 관계, 급여, 생활, 의미 등)

그렇다면 나는 지역신문의 기자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지켜본 지역기자의 삶은... 아주 힘들었다,, 물론 어딜 가도 안 힘든 게 있겠느냐는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높은 강도를 요구하는 직업인 것 같았다. 일단 지역 전체가 일터다 보니 특별히 퇴근이 없다. 기자님들은 밥 먹으러 가도 민원취재가 하고, 길을 걷다가도 누가 부르면 가야하고, 취재원이 새벽에 걸어 온 전화도 받곤 했다. 수요일 목요일은 고정 야근인데다가 다른 날에도 저녁에 일이 생기면 일주일 내내 야근하는 일도 생긴다. 그리고 가장 힘들어 보였던 것은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지역에 홀로 떨어진 외로움이었다. 평생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지역에서 일하고 쉬고 일상을 이어가는 것은 생각보다도 훨씬 외롭고 힘든 일인 것 같다. 나 역시 고작 3개월 밖에 안되는 인턴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아는 곳, 아는 사람이 많은 곳을 그리워했다. 그렇지만 반대로 지역에 오래 머물다 보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긴다. 지역에서 지내며 만났던 친한 친구나 지인도 취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많이 외로운 직업이라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만큼 뿌듯한 일이라 계속할 수 있는 걸까? 기자님들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지켜보며 기자(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꽤나 보람 있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매일 새로운 일이 펼쳐진다는 것 역시 매력적인 점이였다. 더불어 고민해야 할 것도, 공부해야 할 것도 아주 많지만. 나는 지역신문의 기자로 살 수 있을까?

## ●세상이 던진 질문과 내가 한 답

○대학은 갈 거야?

옥천에서 했던 인턴 보고서를 쓰려고 보니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옥천신문의 기자님들이나 잠깐씩 만났던 지역 사람들은 졸업을 앞둔 내게 진로나 꿈에 대해 많이 물었다. 그중에는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를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학에는 갈 거야?’하는 물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던 중 옥천에서 만난 사람 중 한명인 유미언니와 길게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다. 홍성 풀무학교를 졸업한 조카가 일 년을 준비하고 겨우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가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음에도 여전히 삶의 좌표를 찾지 못하는 게 불안하다고 하셨다. 내가 얘기를 나눴던 어른들은 나이 50이 다 되어가는 운동권 출신뿐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30대 어른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재미있고 새로운 일이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 후 대학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풀었다는 생각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썼다.

졸업하면 뭐 하지. 어떤 어른은 대학을 가라고 했고 어떤 어른은 대학에 가서 놀으라고 말했다. 아직 아무 생각도 없는데 꿈을 묻고 진로를 물으니 대안교육을 받은 학생의 진로는 더

난감하다. 대안교육을 나왔으니 당연히 뚜렷한 좌표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 1%의 교육을 받던 우리가 99%가 사는 사회를 살며 느끼는 괴리감. 여기서 우리는 공교육을 받은 학생보다 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10년이 넘게 사회생활을 한 어른들에게 어른들이 보는 청소년의 모습을 들으니 여러모로 혼란스러웠다.

나는 나의 가까운 졸업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안학교를 졸업해도 참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옆에 아홉은 대학 준비, 아니면 취업이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미래'라는 압박과 '독립'이라는 부담, '소속감'없는 공포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내가 보기에 대학은 그 안전빵이었다. 물론 자기 꿈을 찾아 대학에 간 부러운 사람도 있지만 모두의 꿈이 죄다 대학에 있을 리 없는데. 현재를 보내기에, 자격증을 만들기에 대학만 한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는 것처럼 보였다. 대안학교를 나와도 결국은 별 수 없이 현실에 타협하며 사는구나. 오늘 들은 어른의 이야기처럼 비싸고 엉망인 대학도 아직은 통용되는 사회니까. 거기에 타협해야 하는가 보구나.

그렇다면 일부 어른들은 왜 대안교육을 나와도 진로만 놓고 보면 크게 다를 거 없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기대를 하나. 왜 그래도 다를 것이라고, 왜 주체적인 삶을 꾸릴 것이라 생각하나. 대안교육에서는 좋은 말만 듣는다. 안 그래도 폐쇄적인 공간에서 좋은 사회, 좋은 노동자, 좋은 인생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그렇지 못한 부조리에 맞서 싸우라고 배운다. 그랬던 애들이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괴리는 배로 클 수밖에 없다. 또 공교육이든 대안교육이든 교육받은 대로 사는 애는 어딜 가도 배운 대로 행동하고, 공교육이든 대안교육이든 다른 방향을 찾을 애는 다른 방향을 찾아간다. 대안교육은 차선일 뿐인데, 사람들은 자꾸 절대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개쩌는 사람을 알게 되면 짜증이 나고 그다음엔 자괴감 비슷한 걸 느낀다. 재는 저 나이에 티브이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돈도 막 벌었더라. 누구는 그 어린 나이에 마을을 개혁하고 독립운동을 했더라. 재는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이걸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 대단한 애들은 대안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대단해진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오래 산 사람들을 보고 크다. 여기서 나아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지는 개인의 몫이다. 어른들은 왜 '어떤 우리'를 바라나. 끈대와 스승은 한 곳 차이인 것 같다. 그 차이는 자기 삶을 바탕으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지,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지에서 온다. 나도 졸업하면 "조용히 대학이나 가야겠다.." 또는 "어른들 말이 맞았어! 나 진로를 위해 대학에 갈 거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은 아니다. 나는 뭘 할지 생각하기도 힘들고 그냥 놓고 싶다. 이런 내 진로계획에 대해 그 누구도 훈수를 두거나 잣대를 들이밀고 기대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두면, 아마 잘 찾아갈 텐데.

누가 그랬다. 별거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근데 그 하고 싶은 거 찾기도 쉽지가 않다. 내가 본 대학은 돈 들고 시간 들고 부정부패로 가득한 대기업 같다. 글에서 거창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처럼 쓰긴 했지만 꼭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나눈 유미 언니는 끈대라며 조금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대학에 갔을 때 플러스가 되진 않아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사회라는 건 맞는 것 같다. 나보다 오래 산 사람의 좋은 충고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도 '대학은 갈 거야?'라고 물으면 글썽... 하고 얼버무린다. 결국 특별히 배우고 싶은 것이나 진로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은 보편적이지 않은 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이라 생각한다. 열아홉의 나에게 모든 어른이 '대학'에 대해 물어보고 대학이 아니면 대체 '무엇'을 할지 묻기 때문이다. 어른이라는 사회적 단계에 올라서는 게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목적 없이 걷기로 마음먹었다. 어떤 근사한 걸 꿈꾸는 게 아니라 이

것저것 다 해보기로 했다. 혹시 내 수호천사 같은 게 있다면, 큰 거 안 바라니까 내 여정에 혼수 두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준다면 좋겠다. 꼭 대학에 갈 필요 없다. 꼭 꿈꿀 필요도 없고, 꼭 목표를 향해 달릴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산책하듯 천천히 걷자고 다짐했다.

#### ○나의 작은 공동체에 대한 고찰

옥천은 지역공동체가 잘 되어있는 곳이다. 지역공동체의 중심에는 신문과 주민, 시민단체들의 건강한 활동 때문이다.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런 것들을 보며 나는 우리 학교의 공동체를 자주 떠올렸다. 5년간 지내며 수많은 문제를 느끼고 불만을 가졌지만 해결하기 위해 나선 적 없이 무력하기만 했다. 또 바꾸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는 조소 어린 시선을 보내거나 무관심했다.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간디 공동체는 정말 공동체일까?’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간혹 결사체와 헛갈리는데, 공동체와 결사체가 다른 것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공동체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어울려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고 결사체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고 한다. 우리 학교는 정말 공동체일까? 어린 학생들이 모이는 집단에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 공동체라면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반드시 공공의 약속을 지켜야만 하나? 다양한 질문을 갖게 되었다. 긴 시간을 거쳐 6학년이 되고 인턴십을 나왔지만 밖에서 듣는 학교 얘기는 여전히 비슷했다. 의욕 없는 수업 참여나 무력한 자치활동, 여전히 고리를 풀지 못하는 힘든 사건을 들으니 다시 답답해졌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어느 곳이든 크고 작은 문제와 불만이 생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토론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치가 잘 되는 마을인 안남면은 여러 번 방송사에서 촬영을 나왔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회의하는 과정에 욕이 오가고 진전이 없어 찍으러 왔던 사람이 당황했다고 한다. 밖에서 보여지는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은 그 안에서 이뤄진 길고 긴 회의와 문제 제기가 녹아있는 결과인 것이다. 좋든 싫든 긴 시간을 몸담은 공동체는 내가 깊게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던 문제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 것이, 다른 사람의 불만을 귀담아듣지 않았던 것이, 나를 지치고 힘들게만 만들었던 공동체가 아쉽다. 인턴을 하며 내 공동체에 대한 케케묵은 고민의 답을 들었고 그 답에 깊게 공감했다. 내가 몸담아왔던 공동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뭐든 가능한 곳을 만들면 좋겠고, 뭐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면 좋겠다. 약자인 저학년부터 강자인 고학년이나 쌤들의 이야기를 듣는 교내 신문도 있으면 좋겠고, 싫은 건 하지 않을 수 있고 즐거운 궁리를 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곳이 되면 좋겠다. 사람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인데, 우리는 여태껏 너무 먼지 쌓인 철학에 갇혀 살진 않았나 싶다. 조금만 생각을 열어 놓으면 즐겁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았던 옥천처럼 시끌벅적한 곳이 되기를 바란다.



# 인턴십을 통해 경험한 봉사활동 /3.7~6.3까지 안중 방정환 재단 지역아동센터

김태우

나는 방정환 재단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인턴십을 했다. 평소에 아이들과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찾는 것이 어려웠고, 막연했었다. 어느 날 부모님을 통해서 안중 방정환 재단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흥미가 없었지만 인턴이라는 기회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느티나무 어린이집으로 무빙스쿨을 간 적이 있었다. 그때의 경험에 자신 있어 하며, 오래 고민하지 않고, 방정환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인턴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턴십을 시작했던 날의 충격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다. 출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어느 쌤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이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점잖고 인기 많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산만함과 드센 기운에 그런 바램은 가지지 않는 것이 나올 것 같았다. 그날 한 일이 많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온몸이 쭈셔왔다. 앞으로 인턴십을 하면서 내가 화날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직감이 왔다.

예상대로 화날 일도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과 놀아주고, 문제집을 푸는 것을 도와주는 일들이 점점 능숙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정환 재단은 사회복지단체이기 때문에 사회 복지 교육과정(?)이나 평생교육의 실습과정에 연관된 사람들이 일주일에서 3개월간 일을 도와주셨다.

일을 하는 중간에 실습생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대부분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실습과정을 끝낸 그분들과 연락을 할 정도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반가울 것 같다.

센터에서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지를 제출하게 했던 것이다. 아마 센터에서 일지를 쓰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인턴이 끝날 때까지 일지를 안 썼을 것 같다. 그렇기에 나는 꾸준히 일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 인턴을 하면서의 느낌들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일지를 통해서 나의 생각들을 센터 선생님들께 전달할 수 있게 된 장점도 있었던 것 같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불만들을 글로 알릴 수 있었다.(물론 얘기로 불만들을 전달했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반면에 센터에서의 생활이 너무 따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똑같은 일상들이 3개월간 지속 되니 배움이 아니라 공익근무처럼 느껴졌다. 초반의 마음가짐과 달라진 나를 느낄 수 있었다.

초심으로 돌아가려 해도 쉽게 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의식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다.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과 친해진다면 인턴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습생들 외에 공익 쌤들이랑은 친해지기 어려웠던 것 같다. 친해질 수 있을만한 공감대가 없었던 것 같다. 정말 의식한다고 될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돌이켜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불만들과 혼자만의 어려움이었지만, 센터에서의 배움이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인턴을 하면서 사회생활에 조금은 적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은 있었지만 나에게 안중 방정환 지역아동센터는 작은 울타리였던 것 같다.





선명한 모자이크  
/02.22~06.30까지.  
모자이크필름

노영빈

▶순서

1. 모자이크필름
2. 인턴십 소감
3. <키워드 글쓰기> 정의
  - ‘연예인’
  - ‘영화인의 삶’
  - ‘사진’
  - ‘정’
  - ‘내 작품’
  - ‘혼자’
  - ‘바쁜’
  - ‘버스 안’
  - ‘노영빈’
4. 인턴십 평가
5. 인턴십 이후

## [모자이크 필름]

<롯데 플레저 뉴스 - L7호텔>

<솔비 아트 M/V - 블랙스완>

<스포츠 토토 광고 - 일상 공감 시리즈>

<SMSATATION - 썸타 M/V>

<한국지방제정 공제회 옥외광고물 공익광고>

<WISH 29초 영화제 - 예전처럼>

<SMSATATION - 서툰 시 M/V>

<스포츠 토토 광고 - 유소년 축구 기부 캠페인>

<SMSATATION - Heartbreak hotel M/V>

<롯데 플레저 뉴스 - 롯데 콘서트홀>

<프랑스 감독 독립 단편 영화 '찰칵'>

<돈은 나에게 엘리베이터이다>

<롯데 플레저 뉴스 - 롯데 시네마 특수관>

## 인턴십 소감

인턴십은 진로를 찾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나도 진로를 찾기 위해 2015년 2학기에 조금은 늦게 많은 고민을 시작했고, 나름의 네기 내린 결론에 다다랐을 땐 '종합창작'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종합창작'은 글이나 그림 등 한 가지의 분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 글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음악도 있는, 복합적인 창작물들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평소 즐겨보고 애정 하는 웹툰 역시 내가 생각하는 '종합창작' 부합되어 웹툰계 쪽으로 인턴십을 생각했었으나 업계 특성 상 개인위주의 업무 등 문제에 부딪혀 접게 되었다.

그렇게 다시 막막해져갔고, 또다시 끝없는 고민에 휩싸였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영화'라는 '종합창작'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내 정호쌤에게 '모자이크 필름(이하 모자이크)'이라는 곳을 소개받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영화 쪽으로 인턴십을 갈까라고 했을 때 선뜻 한 발 내딛기에는 거부감이 존재했었다.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아니었고, 새로운 도전이었기에 그 고민은 방학 중에도 계속되었다. 주변에서는 얼른 인턴십 단체를 정해야 하지 않냐는 걱정스러운 말들이 오고 갔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2월 안에는 정해지겠지라는 자신감을 가졌고, 덕분에 여유를 즐기며 나를 위해 충분히 고민과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어느 때와 같이 누워서 폰을 보며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있던 날이었다. 평소 '인셉션'이라는 영화의 결말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웹서핑 중 우연히 만난 '인셉션 해석 글'을 읽게 되었다. (<http://m.cafe.daum.net/ssaumjil/LnOm/1568677?svc=cafeapp>)

당시의 나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충격을 주었는지, 방아쇠를 당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여운을 내게 안겨 주었던 글이었다.

근래에 영화가 취미로 떠올라서 영화를 자주 보러 다니곤 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내가 갈구하고 느꼈던, 어떤 그 안에 내포된 의미와 의도를 찾아내는 것을 즐겼었는데 이 글로 인해 더욱 불타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영화에 꽂혀서 인턴십을 영화 쪽인 '모자이크'에 가게 되었다.

당시의 저를 전달하기 위해 단체(모자이크)에 인턴십을 하고 싶다고 보냈던 글을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이 되는 고등학교 3학년 노영빈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모자이크 엔터테인먼트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어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학교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제천간디학교'라는 이름의 기숙형 비인가 대안학교 (중고통합과정)입니다.

학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랑과 자발성을 추구하며 학생들의 자립, 자치를 이끌어 주는 곳입니다. 학교에선 현재 시행되는 공교육을 공부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데 고3이 되면 상반기 기간 동안 학교가 아닌 외부(사회)로 나가서 자신이 성인이 되기 전에 사회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인턴십'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인턴십은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보는 방향은 무임금 유경험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인턴십을 할 수 있는지 의논하는 과정에서 부담감을 가지시기도 하여 미리 말씀드리면 인턴십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가 되지 않아서 잔심부름만 하다가 오는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사회를 경험하고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영화에 본격적으로 관심이 생긴 시기는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시간적 여유가 많아 자주 영화관을 찾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영화에 푹 빠지게 되었고 그 중 제가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영화 속에 깊은 뜻이 담긴 영화들입니다. 그런 것을 찾는 재미도 있었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들이 신기하고 멋졌습니다.

그러다가 인셉션(영화) 해석 글이라는 글을 보고서 깨달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요새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나도 모르게 습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 영화를 보다가도 인셉션이라는 영화처럼 어떠한 정보를 의도였든 의도치 않았든, 좋지 않은 선입견이나 생각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스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생각을 심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면 재미도 있고 뿌듯함도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번 인턴십 기간 동안 모자이크 엔터테인먼트에서 매스미디어에 대해 배우고 저의 생각을 키워 그것을 표현하는 연습도 하고 경험도 얻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 인턴십에서 정해져있는 것은 근무시간과 멘토입니다.

기간은 3월~ 6월 중이고,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일 때 14주 동안 합니다.

근무시간과 기간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주6회 근무나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모자이크 엔터테인먼트에서 인턴십을 하게 된다면 같이 상의 후 결정하면 됩니다. 멘토는 학교와의 소통과 제가 아직 청소년이라는 신분이다 보니 보호자 겸 저를 지도해주시는 분이 있어야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모자이크 엔터테인먼트에서 인턴십을 하게 된다면 그 때 정해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턴십을 가게 되었다. 당시에는 마냥 좋았고, 인턴십의 모습을 그리면서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면접에서도 흔쾌히 받아주셨고 적극적인 단체의 태도에서 더욱 빠르게 나는 영화계에 입문할 수 있었던 것 같다.

<2016.02.22> 제천간디학생들은 1학기를 시작하던 날, 나는 모자이크로 출근을 했다. 같은 학생이었지만 달랐다. 이렇게 나는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다.

인턴십을 시작하고 첫 주에는 바로 두 개의 촬영(롯데 플레저 뉴스, 솔비 뮤직비디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당시 나에게 촬영 현장이라는 곳은 매우 새롭고 어색한 곳이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촬영에 임했었는데 처음 겪는 상황과 모습에 실수를 할까 걱정되었지만 새로움 때문에 견학 온 듯이 재밌었다.

초반에는 책도 읽고 시나리오도 쓰고 공모전도 찾으며 여유롭게, 매섭게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보냈다. 그러다 처음, 외부로 촬영 알바를 나가게 되었다. FD님이랑 같이 가는 촬영 현장이었지만 내가 정식으로 돈을 받으며 상업적인 관계 맺음, 내가 어느 정도 돈의 가치와 현장에서의 가치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매우 즐거웠다.

이후 정말 운이 좋게 더 큰 메이저 촬영을 할 수 있었다. 바로 'SM STATION'이라는 sm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멀게만 느껴지던 세계, 다른 세계라고 생각되었던 것과 한 공간에서 나는 나대로의 업무와 담당을 가지고 일이 진행되는 것에 벅 찼었다. 이 날 처음으로 밤을 새는 촬영이 되었는데 회사 분들과 촬영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치킨을 먹고 동도 트기 전의 이른 아침에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며 슬그머니 버스 안으로 스며들어 온 햇빛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학생이 아닌 영화인이 된 기분이었고, 회사 분들과는 더 편해진 시간이었다.

인턴십을 시작할 때부터 목표했던 내 작품 만들기는 시작하던 주부터 계속해서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29초 영화제'를 접할 수 있었고, 사상 첫 내 작품을 준비하게 되었다.

처음 겪는 창작의 고통은 끔찍했다.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는 것보다(이것도 문제였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머릿속에서는 블록버스터가 그려지는데 정작 나는 그것을 구현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배우면서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영상과 현실 세계의 영상의 괴리감을 줄여 나갔다. 어떻게 해서 결국 촬영 날짜까지 정해졌다. 배우와 스태프는 제천간디학생.(내가 외부에서 생활을 해도 학교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잘 표현된 모습인 것 같다.) 부탁 같은 건 안 하고, 뭐든 혼자 하는 걸 좋아하던 나로서 혼자 할 수 없는 영상 현장에서 배울 점들이 많았고, 특히 내 작품을 찍는 현장에서 급속도로 많은 것을 배웠다.

촬영 날은 전날 한국지방제정 공제회의 공익광고를 밤새 촬영하고 와서 아침에 쪽잠을 잔 상태였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첫 작품을 찍는다는 것에 설레서 폰 액정이 깨져도 씩씩하게 촬영 장소로 향했다. 현장에서는 나도 모르는 이전 현장에서 내가 봐왔던 모습을 내가 하고 있었고 대표적으로는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촬영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면서도 존댓말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며 이상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다.(참고로 촬영 현장은 매우 행복하고 황홀했다. 좋았다. 베리 굿b)

주변의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서 결국 나의 첫 작품을 완성했다. 솔직 담백한 후기는 아쉬우면서도 앞으로 열린 나의 길을 바라보며 기뻐하기에 충분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한다.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내게는 큰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에 더 만족할 수 있었다.

이번 'SM STATION' 촬영 때는 촬영 퍼스트(보조) 역할을 맡았다. 단순한 연출부가 아닌, 조금은 전문적인 일을 현장에서 내게 믿고 맡긴다는 자체가 긴장되고 걱정되지만 그만큼 인정해주는 것 같아 감사드린다. 많은 경험을 시켜주시려는 것 같기도 하였다.

지난번에 알바로 가게 되었던 스포츠토토를 다른 내용으로 또 촬영하게 되었다. 다른 점은 이번에는 모자이크에서 맡아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촬영 분량이 많다 보니 삼일에 걸친 촬영 스케줄이 잡혔다. 하루 종일 촬영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피곤에 찌드는데 촬영 전부터 내가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막막했다. 보면 영상 일은 체력이 굉장히 필요한 직업 같다. 촬영 현장에서도 필요하지만, 몇 시간 내내 앉아서 편집하는 것도 체력이나 정신력을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촬영은 생각보다 널널했지만 현장 경험이 늘수록 내가 현장에서 책임지고 맡아야 할 범위는 계속 커졌다. 인정과 믿음을 받았기에 가능한 것이라 기분은 매우 좋았지만 그럴수록 내가 너무 초보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었다. 당연한 얘기면서도 아직은 현장에서의 내 시야가 좁아 많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제일 긴 시간 동안 촬영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다 'SM STATION'의 세 번째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촬영은 지난 두 번의 스테이션 촬영보다 스케일이 커져서 프리 단계부터 제대로 뮤직비디오의 제작 과정을 보며, 굉장히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촬영은 새벽에 시작해 새벽에 끝났지만 뭔가 여태 촬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뿌듯했다. 촬영이 끝나고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거의 기절하듯이 사무실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이번 인턴십을 통해 새로운 경험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다.

맨 처음 촬영했었던 '롯데 플레저 뉴스'를 이번에 또 촬영하게 되었다.(모자이크와 1년이 계약이 되어 있어서 두 달 정도마다 촬영한다) 처음 촬영할 때는 잔뜩 긴장하고 촬영에 임했던 내 모습이 생각나면서 이제는 그때보다 여유가 는 내 모습을 보며 기특했다. 생각해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여러 편의 촬영을 한 것이 정말 큰 경험이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그럼에도 모델들을 안내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외에도 시야가 넓지 않은 걸 보면 역시 경력인 것 같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영화 촬영을 나가게 되었다. 감독님께서 아시는 프랑스에서 한국에 영화를 배우러 오신 감독님인데 나도 몇 번 뵈었다. 이 분께서 영화를 촬영하신다고 하셔서 참여하게 되었다. 현장에 스태프 인원도 적어 내가 여러 가지를 맡아서 하다 보니 나를 훌쩍 키워준 시간이었다. 거의 일주일에 걸친 촬영이 끝나니까 뿌듯하면서도 정신적으로 제일 피곤했던 촬영이어서 시원섭섭했다.

인턴십을 마무리하기 전, 마지막으로 내 작품을 하나 더 찍게 되었다. 지난번에 촬영한 게 처음이다 보니 아쉬운 면이 많아서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잘 맞아 촬영할 수 있었다. 지난 촬영 땀 밤을 새우면서 촬영했었는데, 이번 촬영도 영화 촬영 날짜랑 겹쳤다. 내 작품을 촬영할 때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걸 보면 운이 안 따라주는 것 같다.

이번에는 많은 고민 끝에 실제로 내가 겪었던 일을 각색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실제 겪었던 일의 대상인 가족들과 촬영해서 또 색다른 경험이었다. 내가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나를 보니 지난번 촬영했던 4월의 나와 다른, 완전히 무지했던 2월의 나와는 많이 다른 나를 또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인턴십이 끝이 나고, 다들 뵈러 신촌 국제 독립 영화제(모자이크와 HIT GUN 작가님이 기획한 영화제)에 스태프로 갔다가 29초 영화제에서 전화가 와서 급하게 시상식으로 오라고 했고(이 날이 29초 영화제 시상식 날), 부랴부랴 달려가서 기다리는데 끝날 때까지 내 이름이 불리지가 않아서 당황하던 찰나에 “대상, 노영빈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얼떨떨해하며 단상으로 올라갔다. 긴장해서 말은 어버버하고 몸은 떨리고 상과 상장, 꽃을 혼자 들긴 버거웠지만 끝나고 기자님이랑 인터뷰도 하고 살면서 하기 힘든 경험으로 내 인턴십은 마무리되었다.

그러고서 학교로 돌아오기 전에 모자이크에서 연락이 와서 롯데 플레저 뉴스를 찍었는데, 나름 한동안 쉬다가 다시 촬영을 하게 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벌써 감을 잃은 것 같아서 아쉬웠다. 또 촬영 현장에 불러나갈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 키워드 -정의-

우리 반끼리 인턴십 보고서를 쓰기 전에 암묵적으로 이번에는 조금 새롭게 보고서를 써보자는 취지하에 보고서에 키워드를 넣어보자는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뭔가 몇 개의 키워드로 연결 지어 작성하기에는 아쉽고 표현이 힘들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키워드를 따로 빼보게 되었다.

제일 큰 키워드를 ‘정의’ 라고 지었다.

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인턴십을 정의할 수 없어서 정의라고 적게 되었다. 인턴십을 하며 느끼고 배운 것들은 이미 내 속에 녹아들어 다시 꺼내어 이전의 나와 구분하기 어

려웠다. 둘째는 그런 나를 나는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큰 키워드로 ‘정의’ 라고 지었다.

### ‘영화인의 삶’

이 키워드는 내가 지켜본 영화인, 영상인들의 삶이었다. 일종의 직업병인지 젊게 사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례가 되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또래랑 얘기하는 기분이 들어 흠칫 놀란 적도 있었다. 이 외에도 밤낮 없는 근무에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고작 인턴으로 3개월 일한 나도 개인 여유시간이 허덕였는데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일에 치여 사는 삶이 참 고달플 것 같다. 그럼에도 자신이 만든 작품이 나오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런 힘듦을 씻어내고 다음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 ‘연예인’

현장에 나가서 카메라 앵글에 담기는 사람들. 연예인들을 만났었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웃다가도 연기에 몰입하는 태도와 모습에서 박수를 치고 싶었다. 한편으로는 연예인이라는 자리가 궁금해지곤 했다. 그럼에도 어딜 가든 주의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지켜본다는 삶을 버틸 수 있을지 싶다. 멋진 직업인 거 같다.

### ‘사진’

인턴십 즈음부터 해서 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맛 들었다. 아이폰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진도 찍으면 나름 그럴싸해 보이고 내 기분이 좋아져서 좋아라 찍는데, 인턴십을 하고 내 작품을 만들어보다 보니 이 앵글을 사진으로나마 담아보고 그러는 것 같다. 사진 찍는 건 정말 재밌다.

### ‘정’

인턴십 기간 동안 정말 정이 철철 흘러넘쳤던 것 같다. 어딜 가나 나를 신경 써주고 생각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서로 정이 넘치시는 모습들을 보며 나도 본받고 싶고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러면서 우리 반 생각도 났다. 우리 반도 좀 정이 흘러넘쳤으면 좋겠다.

### ‘내 작품’

바쁜 인턴십을 하면서도 내 작품을 두 편이나 찍었었다. 내 작품을 찍어보는 게 많은 배움이 된다고 하셔서 조금 강행해서라도 찍어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영상에 대해 배우는 것이 정말 많았지만 그로써 배우는 영상 외적인 삶에 대한 배움, 생활에 대한 배움도 있었다.

### ‘혼자’

나는 혼자서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영상은 혼자서 만들기란 고되고 힘든 작업이라 함께 하는 작업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걱정이 있었다. 이전에 함께하는 것들에서 나 스스로의 만족을 부르지 못했던 경험이 많아 두려움도 있었다. 그렇지만 인턴십을 하면서 그런 나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졌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몇 번 있었다. 조금은 길을 터준 거 같아 여럿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굉장히 내게 화두 되는 문젯거리일 거라는 생각에 아직은 걱정이 앞선다.

### ‘바쁜’



굉장히 바쁜 3개월을 보냈는데, 인턴십은 물론 일상에서 하는 취미도 나를 놔주질 않아서 정말 매우 바쁘게 삶을 보냈다. 이토록 바쁜 삶을 보낸 적은 이번 기간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사니 뿌듯함도 있고 좋은 점도 많았다. 조금은 게으른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는 있는 것 같다.

### ‘버스 안’

인턴십을 출퇴근하느라 버스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적어도 하루 한 시간 이상은 버스 안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책도 읽고 나름 부지런한 버스 안 생활을 하다 그것도 귀찮고 지겨워져서 맨날 노래만 들었다. 그런데 노래를 듣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하나둘 물꼬를 트고 그 생각들이 퍼지고 퍼져 고민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면서 한 생각들이 영양분 있어서 버스 안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지루하거나 아깝지 않게 느껴진다. 조금은 고요하면서도 생각에 깊이 빠지기 좋았던 장소였던 것 같다.

저녁 퇴근 시간에는 언제 타든 버스는 항상 거의 만석이였다. 그렇게 가득 찬 버스 안의 직장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됨과 애환을 나눌 수 있었다. 표정에서 느껴지는 공감되는 모습 때문에 가끔은 나도 직장인들의 퇴근길에 심취하기도 했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다. 인턴 기간 동안 내게 많은 것을 안겨준 버스 안이었다.

### ‘노영빈’

나 노영빈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다. 그 외에도 여러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대답하는 과정을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가질수록 정말 나는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그러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노영빈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생각해보니 어렵פות이 나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이 인턴십을 통해 내게 가져다준 것 같아 키워드에 넣어보았다.

## 인턴십 평가

인턴십 계획서와 비교해보면서 인턴십을 마친 현재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같은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단체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최근 들어 매스미디어에 많은 관심이 생겼고, 그중 특히 영화에 제일 관심이 많이 가서 가게 되었다. 관심이 생기게 된 계기는 복잡하지만 요약하면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안 좋은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영화(영상, 미디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라고 작성을 했는데, 매스미디어나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안 좋은 영향 같은 내용에 대한 공부할 수 없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하려다 보니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쉬기 바빴다. 그래서 초기 잡았던 목표나 의도 같은 부분에서 이루지 못한 것이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쉽거나 만족을 못하지는 않는다.

-인턴십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내가 영화를 진로로 할 것인지 아닌지(뒤에서 다룰 예정.)

-영화(영상)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 배려해주신 덕분에 영상이 준비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참여하고 볼 수 있었다. 딱 한 가지 아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영화 촬영이 원래 인턴십 기간 내에 예정되어 있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계획이 미뤄져 아쉬웠다.

-나의 사고력 키우기

당시 이 내용을 작성한 이유는 광범위하게 나를 성장시키자는 의미에서 작성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없진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스며들은 좋은 생각도 많은 것 같다.

인턴십의 구체적인 계획

-현장에 따라다니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우고, 편집이나 촬영 같은 기술적인 부분들도 배워서 나중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하기

일부분은 위에서 답변해서 인턴십이 끝나고 배운 기술들을 잘 써먹었는지 얘기해보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굉장히 잘 써먹고 있다. 얼마 전엔 아빠의 선거 영상도 만들어 주는 등, 받은 상금으로 노트북도 구매해서 꾸준히 실력을 키워가며 잘 써먹을 예정이다. 편집이나 촬영, 여러 프로그램 사용은 (내가 인턴십 할 기간 동안)바쁜 스케줄 때문에 제대로 딱 날을 잡아서 배우거나 하진 않았지만 내가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시고, 서당 개가 3년이면 풍월을 읊는 다듯이 보고 배운 것들이 정말 많아서 매우 값진 배움이 있었다.

-나의 다짐

“무빙 때는 급박하게 진행한 느낌이 강했고, 고민할 시간도 적었는데 이번 인턴십은 고민도 오랫동안 한 만큼 더욱 열심히 몰입하고 집중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내가 영화의 길을 걷지 않더라도 인턴을 하며 만난 분들을 잘 간직하고 지켜나가고 싶다.”

확실히 개인 무빙과는 차이점이 있었다. 기간에서 오는 차이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 개인 무빙 때는 15일이라는 시간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딱 현장체험학습의 느낌이었는데 반면, 인턴십은 기간에 자율성이 생겨 3개월은 물론 더 길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덕분에 긴 기간 동안 정말 인턴십 단체에 집중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배움과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개인 무빙에 다녀오고서 계속해서 단체랑 소통하고 활동을 함께하는 우리 반 친구들을 보며 이번 인턴십에서 나도 그렇게 되어보자는 좋은 취지를 가지게 되었다. 내가 워낙 사람들을 신경 쓰고 소위 관리라는 거를 잘 못하는데 왠지 이번 인턴십에서 빈 분들은 친분?을 유지하고 싶었다. 정말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셨고, 같이 있으면 무진장 재미있고 정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내가 너무도 따스하게 다가와서 더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교류는

하지 않고 있다.. 저번엔 촬영 같이 하자고 물어보셨는데 개학 후라 못하게 돼서 더욱 아쉬웠다. 사무실이라도 찾아가야 하는데 머리는 생각해도 몸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거 같다. 나는 게을러터졌다.

## 인턴십 이후

-진로는 정해진 것인가?

인턴십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프로젝트의 한 부분에 속해 있는 만큼 인턴십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은 주는 프로젝트이다. 그렇기에 인턴십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 덕에 진로에 대해 진중한 고민을 적어도 한 번은 하게 된다. 나도 역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위에서도 나왔고 인턴십을 하면서 감독님 피디님과도 했던 얘기가 인턴십을 마칠 때쯤에는 내가 영상 쪽 일을 할지 말지는 구분해보자였다. 3개월 정도의 시간이라면 나도 그렇고 감독님 피디님도 결정할 수 있을만한 시간으로 판단해서 나온 얘기였는데, 3개월이 지난 후인 지금도 나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였다.

물론 진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그중 한 분야로 향하는 진로에 대해 고민했으니 이전보다는 진척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마무리하기엔 3개월의 인턴십이 조금은 아쉬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 분명 진로라는 것은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 맞아, 진로를 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순 있으나 나는 인턴십을 하며 조금 더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크다.

인턴십을 준비하면서부터 인턴십이라는 경험이 참 소중한 고마운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오히려 관심이 가는 직업들의 인턴 생활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졌다.

나는 예전부터 20대의 플랜을 세워뒀었다. 성인이 되면 재빠르게 군대를 다녀온 후 돈을 모아서 세계여행을 가는 것이 내 오랜 플랜이었다. 그런데 이 플랜이 요새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계여행을 한 번에 다 안 가고 나눠서 가도 되지 않냐 등 세상의 여러 말들에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내 20대의 플랜처럼 요새는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그것들을 다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흥미가 생기고 재미 없던 것에 갑자기 관심이 생기는 일은 계속해서 생겨가고 빈도는 오히려 전보다 는 것 같아 한편으로 걱정이다.

영상 쪽은 살면서 거의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직업이라 이번 인턴십은 내게 새로운 도전이자 새로운 분야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방대한 재미를 느끼고 일말의 가능성이 보이고 기회가 생기니 마음이 쏠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결코 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나중에 후회할진 몰라도 조금은 더 해보고 싶은 거 하다가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번 인턴십을 결정할 때도 주변에서는 2월이 다 되도록 단체를 선정하지 못해 불안해했지만 나는 굉장히 여유롭게 진지한 고민을 하며 단체를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듯이 주변에서는 내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더라도 나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살피며 더 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즐겨볼 것이 앞으로의 내 계획이다.



진저티에서의 인턴,  
그리고 내가 했던 고민들  
/03.02~6.17까지  
진저티

서명아

▶순서

1. 진저티프로젝트 : 단체 소개
2. 인턴을 정하기까지
3. 인턴을 하며
4. 인턴을 마무리하며
  -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주제들
  - 디자인
  - 나는 어떻게 살아야할까

## 1. 단체소개

진저티 프로젝트는 비영리섹터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이다. 비영리 섹터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연구/조사/출판과, 비영리/모금/커뮤니케이션/경영/교육 영역 등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공익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 비영리조직을 자가 진단하는 BIC시스템을 이용해서 컨설팅을 하는 일도 진저티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 2. 인턴 단체를 정하기까지

### 2-1. 디자인

처음 인턴을 정하면서 1순위로 생각했던 것은 ‘디자인’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5학년 때 디자인을 주제로 진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였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찾아 본 어떤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디자인은 본인의 생각을 더욱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라고 했던 게 기억난다. 어찌 보면 당연한 그 말에 내가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왔던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동의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디자인으로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러나 비영리 단체를 클라이언트로 두고 가끔은 개별적인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스튜디오와 에이전시는 많지 않았다. 몇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곳들도 나를 인턴으로 받아줄 상황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디자인이 주 업무인 곳’ 만을 기준으로 인턴을 간다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간단한 일들뿐 일 것 같았다.

### 2-2. 비영리

- 그래서 이번에는 디자인보다는 ‘비영리’에 초점을 맞춰서 인턴 단체를 알아보았다. 그중에서도 디자인 톨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곳, 내가 그곳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찾았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직업체험이 아닌 인턴이기에 작더라도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 만한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그런 곳에서 디자인을 통해 ‘컨텐츠에 작은 힘을 실어주는 경험’도 해보고 싶었다.

- ‘비영리’라는 키워드를 중요시 생각하며 인턴 장소를 물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영리라는 게 어떤 건지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던 것 같다. 그냥 학교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일까, 가장 열심히 해본 게 어떤 걸까 생각을 해봤다. 단번에 필리핀이 떠올랐다. 그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행복했다. 친구와 밤을 새가며 기획서를 쓰는 것도, 더운 날씨에 힘든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가장 열정적일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인턴을 하면서 비영리라고 하는, 사람이나 사회를 바라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

### 2-3 진저티프로젝트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내게 진저티 프로젝트는 안성맞춤 곳이었다. 마침 디자인 톨을 다룰 줄 아는 인턴을 모집하고 있었고, 디자이너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나의 역할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게다가 비영리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루 만나고, 비영리 분야에 대해 전체적으로 생각해보기에 알맞은 곳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디자인 톨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PDF 형식으로 만들어 보냈다.

### 3. 인턴을 하면서

#### 3-1. 나의 역할

##### 디자인

나의 가장 주된 역할은 디자인 업무였다. 워크샵에서 쓸 스티커나 활동지, 홈페이지에 필요한 배너, 웹자보 등의 디자인이 필요한 것들을 받아 디자인 하는 일이었다.

사진) 내가 디자인 했던 것들 중 일부이다.

##### 강의 PPT

PPT에도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PPT를 만들거나 손보는 일도 많았다. 강의안을 혼자서 짜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건 책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조직 만들기, Adaptive Leadership 4강-5강의 강의안과 PPT였다. PPT만들기라는 단계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일에 대한 이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하고 하는 일이라서 더 잘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었다. PPT의 필요한 사진을 찾거나 각 장을 디자인하는 일도 재밌었다.

##### BIC 인터뷰 프로젝트

인턴 기간 중 맡은 일 중에 제일 독립적이었던 프로젝트였다. 기획서와 일정부터 단체 선정, 인터뷰, 인터뷰 정리, 콘텐츠 편집까지 대부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었다. BIC는 비영리 조직을 자가진단할 수 있게 해주는 PQASSO의 한국형 툴인데, BIC에 참여한 단체들을 인터뷰하여 홍보하는 역할의 프로젝트였다. 내가 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일과 디자인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진저티 프로젝트에 필요한 일이라는 게 가장 좋았다.

인터뷰는 한 살림과 빅이슈를 대상으로 했고, 인터뷰 내용 정리는 페이스북 업로드 용, 홈페이지 용, 원문 세 가지 버전으로 했다. 디자인으로는 각 홈페이지 배너와 페이스북 카드뉴스를 만드는 일이 있었다. BIC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웹자보도 첨부했다.

##### 커리어 워크

커리어 워크는 방학 때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하자센터가 특성화고 학생들과 제2의 전공을 주제로 해서 새로운 직업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진저티 프로젝트도 하나의 '과'가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팀장님 한 분과 내가 개별 프로젝트처럼 진행했다. 조 담당 멘토 역할, '구글 드라이브 사용법'과 '내 주위 환경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발표, 사전 기획회의 등의 일을 했다. 대안 학교 학생이 아닌 또래들과 깊이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방학을 내줄 만큼 좋은 경험이었다.

##### 그 외

그 외에는 FGI와 워크샵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기록하는 일, 행사 보조, 발표회나 포럼에 따라다니는 일을 했다. 이 일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곳에 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작은 일들에서 얻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 4. 인턴을 마무리하며



### -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주제들

인턴을 다녀온 대부분의 6학년들은 사람들로 인해 가장 많은 것을 느꼈다고 말한다. 인턴이 즐거웠던 이유도, 힘들었던 이유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도 다 사람이라고. 나도 그렇다.

인턴을 하면서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가 깊은 이야기였던 가벼운 이야기였던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단체와 이야기들이 내겐 그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저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단체에 대해 알아보고,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알아보았던 것 같은 행동들이 돌아보면 나의 세계를 더 넓혀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인터뷰로 빅이슈의 국장님을 만났던 게 기억이 난다. 홈리스라는 주제에 대해 나는 이상하게도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빅이슈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빅이슈가 왜 그런 일들을 하는 건지가 궁금해지다 보니 홈리스라는 주제 자체에도 관심이 갔다. 매일 지나치던 빅이슈의 판매원과 말을 해보거나 관련된 전시에도 가보고 말이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그냥 글로 읽는 것과, 그 주제에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듣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험이었다.

그것 말고도 인턴을 하며 가장 새롭게 생각을 해본 주제는 북한이었다. 단체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같이 인턴을 했던 오빠가 탈북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커가면서 어렵고 민감한 주제로만 생각해버렸던 분단이나 통일 같은 문제들이 조금 더 내일로 다가왔다. 세계의 난민이나 세계의 빈곤 같은 커다란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막상 가까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다. 잘 알지 못하니 궁금한 것도 없었던 것 같다. -인턴 중 쓴 일지의 한 부분 내게 북한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른 나라였지만 지금의 내 나라인 대한민국, 남한이 분단되는 것을 상상해봤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경기도와 할머니 집이 있는 경상도가 다른 나라가 된다는 것, 어쩌면 그곳에 있는 친척들까지도 다신 보지 못한다는 것, 서로 전쟁을 한다는 것, 다른 나라가 된다는 것.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분단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였다. 내가 멀고 무섭게만 느꼈던 북한은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가족이 살고 있는 나라다. 여전히 무섭고 불편한 감정도 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르게 분리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나라였다. 북한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이 궁금해지는 일이 계속 생겼으면 좋겠다. 인턴을 하며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공부’라는 말이 이해되었던 것 같다.

### - 디자인

이번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이번 연도는 내가 디자인에 관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준 시기였다. 특히 인턴과는 따로 ‘세월의 기억을 펼치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디자인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번이 두 번째 프로젝트였는데 첫 번째와 달리 디자인이 들어간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카드뉴스와 웹자보 정도였다. 그러나 하나로 정리된,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이 생겨났다는 것에 대한 파급력이 엄청났다. 디자인이 효과적인 소통의 도구라는 말이 나의 이야기로 다가왔다. 또 생각나는 일은 유가족들께 우산을 전해드리러 갔을 때였다.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만든 우산을 펼쳐 보여드렸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우산의 그림이 와 닿는다며 우셨다. 내가 디자인 한 우산이 힘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나의 마음이 전해진다는 게 기뻐다. 그래서 한 번 더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 - 나는 어떻게 살아야할까

결국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을 나에게 계속하게 되었던 것 같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속되어있었던 간디학교를 떠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턴을 하며 한창 ‘나는 생각만 하는 사람인가, 왜 내 생각을 행동이나 말로 옮기지 못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자꾸만 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스스로에게 숨는 것 같았다. 특히 세월호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때, 막상 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관심 가져 왔던가 하는 물음에 답할 수 없어 부끄러웠다.

그런 고민을 하던 나에게 락페스티벌에서 우연히 들은 이승환의 ‘물어본다’ 라는 노래가 큰 울림을 줬다. ‘내 안에 숨지 않게 나에게 속지 않게, 그런 나이어 왔는지 나에게 물어본다, 부끄럽지 않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더 늦지 않도록.’

그래서 그 후로는 한 달에 만 원은 남이나 세상을 위해서 쓰기, 일주일에 하루는 채식하기 같은, 하려다가 말았던 작은 실천들을 해보았다.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내 생각을 작은 행동으로 옮기며 많은 것에 관심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항상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분야와 내가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잘 조율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 외의 인턴기간 동안 주제별로 쓴 일지는 CD에 별도 첨부 되어 있습니다.

진저티 프로젝트에서 제가 즐겁게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네팔: 뜻밖의 인턴십  
/03.23~06.30까지.  
생명누리 네팔 카트만두지부

서하린

▶순서

1. 개요
2. 준비 과정
3. 활동 내용
4. 느낀점
5. 후기

간략하게 개요, 준비 과정, 활동 내용, 느낀 점, 후기 총 다섯 가지로 나눴다.

#### ♥개요

단체명: 생명누리 네팔 카트만두지부

기간: 16.03.23~16.06.30

#### ♥준비 과정

인턴십으로 해외봉사를 가기로 결심하고 단체를 정한 뒤, 우선 비행기값 등 여비를 모으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항공편이 많이 없는 네팔의 비행기값은 너무나 비쌌다. 덕분에 늘어난 여비를 모으느라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꼭 가겠다는 오기 하나만으로 결국 190만 원 정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처음 예정했던 시작 날짜까지 미뤄가며 돈을 모으긴 했지만, 너무 돈 모으는 데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인턴십을 하며 만나게 될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알바 못 구하는 동안 네팔어라도 배웠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다.

#### ♥활동 내용

생명누리 카트만두지부에서는 Paul's Home이라는 고아원을 운영한다. 나는 그곳으로 들어가 8명의 아이들과 선생님 세 분과 함께 지냈다. 함께 생활을 하는 만큼 네팔이라는 나라와 생활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빨리 적응해야 했는데, 다행히 나는 억척스런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잡초 같은 기질이 있어서 거의 일주일 만에 완벽히 적응했다. 현지 음식도 곧잘 먹고 버스도 곧잘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과 금방 함께 어울릴 수 있었다.

네팔에서의 평일 하루 일과는 대강 이러했다.

- 06:30 기상 후 아침 예배
- 07:00 청소 및 휴식
- 08:10 아침식사
- 08:40 아이들 등교 후 자유시간
- 15:30 하교
- 16:00 간식 먹기
- 16:30 숙제하고.. 놀고..
- 18:30 저녁 예배 후 다시 놀고..
- 20:00 저녁 먹기
- 21:00 아이들 재우기
- 24:00 잠에 들다

주말은 좀 달랐다. 토요일은 아이들과 함께 홈 지하에 있는 교회에 갔고 일요일은 나 혼자 근처에 있는 한인 교회를 갔다.

아이들 돌보는 게 다 그렇겠지만 정말 말이야 쉽지 몸은 정말 힘든 일이다. 다들 체력이 어찌 그리도 넘쳐흐르는지! 그래도 다들 참 귀여웠다.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일 외에도 지부장님의 권유로 다른 활동도 했었다. 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기도 했고, 대사관에서 주최한 문화교류 페스티벌에 스태프로 들어가기도 했다.

#### ♥느낀 점

1. 아이들은 다가가는 대로 다가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실 나는 어린애들이랑 노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처음엔 사실 걱정도 있었다. 걱정과 더불어 인턴십을 시작하고 약 한 달 간은 아이들을 친구로 느끼기보다는 일로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함께 지내는 이 아이들이 점점 더 귀여워졌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자 공교롭게도 아이들이 내게 더 마음을 여는 것이 느껴졌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는 순간 아이들과 진심으로 친구가 될 수 있었다.

2. 종교. 사실 나는 무교이다. 그러나 생명누리라는 단체를 포함한 네팔에서 활동하는 꽤 많은 NGO단체는 대부분 예수님의 뜻을 펼치고 있었다. 지부장님의 권유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한인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몸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싫은 마음을 내비치기보단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도 해보고 성경 수업도 받아 보았지만 역시 거부감은 떨칠 수 없었고 끝까지 어딘가 불편한 기분만 남아 있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조국을 떠나 길게는 몇십 년까지 타지에서 활동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상대하기엔 내 말빨도 부족했고 그 믿음 앞에 맞설 힘도 자신감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교회만 다닐 수밖에.

#### ♥후기

솔직히 3개월 동안 정말 많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어떻게 글로 적어보려 해도 사실 적을 건 별로 없다. 물론 지금 보고서를 펴내기 위해 이렇게 보고서를 쓰지만 이런 몇 글자 글보다는 직접 가서 했던 경험들이 훨씬 많이 남는다. 차마 글로 적기 어려운 그 많은 느낌들. 이 값진 경험과 느낌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3개월 동안 홀로 네팔에서 생활한 내가 참 대단하다.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다. 아무튼 고생한 나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만 보고서를 마치겠다.

(사진 넣고 싶은 거 진짜 많았는데 다른 메모리에 있어ㅠㅠ 진짜 아쉽다..)



넓고 넓은 세상의 작은 점  
/03.14~06.17까지.  
지구마을보부상 어스맨

손채은

▶순서

1. 손채은, 인턴을 시작하다!
  - 1-1. 시작
  - 1-2. earthman은
  - 1-3. 공정무역이란?
  
2. 나 뭐했지?
  - 2-1. 평상시엔
  - 2-2. 스카프 모델
  - 2-3. 카카오메이커스X어스맨 투-투 멀티파우치
  - 2-4. 세계공정무역의 날
  - 2-5. 외부
  
3. 인턴을 하는 동안의 고민
  - 3-1. 돈
  - 3-2. 세계
  
4. 부록
  - 4-1. 사진
  - 4-2. 공정무역카페 지구마을 이남숙 총괄님 인터뷰



## 1. 손채은, 인턴을 시작하다!

### 1-1. 시작

처음 인턴을 고민했던 게 어제 같고 학교에서 인턴 어떻게 하지 고민했던 게 그저께 같은데 벌써 인턴을 마무리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게 웃기다. 나는 인턴을 정할 무렵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사실 한 단체에서 3개월의 생활을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 나를 받아준다고 해서 무작정 쫓아가지 못하는 게 인턴이었다. 모든 선배들이 다들 좋았던 경험이라 칭했던 이 교육과정을 내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가장 큰 난제였던 것 같다. 그래서 최대한 단체에 도움이 되고자 원래는 내가 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찾기 시작했다. 주로 수작업을 하는 곳 위주로 알아봤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과연 어떤 일손을 도울 수 있을지가 궁금했다. 그렇게 방학이 되고 점차 멘붕에 빠졌다. 그렇다고 선부르게 시작하고 싶지 않은 이중적인 갈등 끝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단체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세계고 앞으로 내가 졸업한 뒤에도 여행이나 공부를 하러 다양한 곳으로 떠날 것 같았다. 세계에 관련된 게 뭐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찾아보거나 해보자! 해서 공정여행 회사나 해외 봉사 등등을 고민했다. 아무래도 공정여행 회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해외 봉사 같은 경우는 살짝 부담스러웠다. 그러다가 공정무역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내가 기존으로 알고 있었던 공정무역 제품인 커피보다 더 다양한 걸 판매하는 어스맨을 알게 되며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다. 앞으로 내가 살면서 모르고 있을 세상 한 곳의 이야기를 잘 들려줄 것 같아 열심히 알아보기 시작했고 긴 연락 끝에 인턴을 시작하게 됐다.

### 1-2. EARTHMAN은!

지구마을보부상 어스맨은 공정무역 회사로 예로 등짐을 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던 보부상에 모티브를 따왔다고 한다. 보부상은 물건을 파는 상인인 동시에 이야기꾼이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지구 구석구석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건체리와 건살구, 직조 스카프다. 앞으로도 점점 제품군을 넓혀 생활 군까지 접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표님과 회계분, 디자이너분, 홍보분으로 총 4명이 이루고 있는 어스맨은 작지만 서로 간의 친목이 매우 좋았고 의견을 나누는 것 또한 원활한 회사였다. 직원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회사 안에서 나 역시 의견을 자유롭게 말했던 것 같다. 내가 막 인턴 할 때쯤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고 디자인 컨설팅을 받기 위해 슬로워크와 한창 워크숍을 하고 있어 나도 함께 했었다. 덕분에 한 회사를 갖추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갔던 것 같다.

### 1-3. 공정무역이란?

공정무역은 하나의 운동이자 사업체의 하나로 국제 무역 시장의 불편한 점에 대안하는 하나의 대안 무역이다. 보통 시장과 단절된 생산자들은 중간 상인에 의해 많은 돈을 빼앗겨 이익이 적게 되는데 생산자와 직접 연결해 중간 과정에 있는 필요치 않는 소비는 제외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좀 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더 나은 생산품을 만들도록 돕는다. 더 좋은 퀄리티의 생산품을 만듦으로 판매자는 소비자들에게 생산자의 물품이 왜 좋은지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정무역 제품은 자연 친화적 재배를 하며 후세대를 생각하고 정확한 임금과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무역을 통해 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게 공정무역이 존재하는 이유다.

## 2. 나 뭐했지?

### 2-1. 평상시엔

평상시엔 사무실에서 지냈다. 견체리와 건설구같은 경우엔 물량이 순차적으로 포장해서 들어와 물량이 들어오면 수를 썼다. 많을 땐 하루종일 셀 때도 있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난 후엔 들어온 주문을 확인해 물건을 포장하는데 아무 것도 없을 때도 있지만 많을 땐 20개 넘게 나가기도 했다. 최장 시간으론 3시간간 포장 작업을 했었다.

주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블로그에 글 한 편 올리는 게 어려웠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요했고 정보를 구하려면 인터넷도 좋지만 책이 훨씬 정확하고 쉬워서 책을 많이 뒤적었던 것 같다. 인터뷰 갔었던 애기와 축제 현장 보고, 그 외 공정무역에 관한 글을 올렸었다.

### 2-2. 스카프 모델 03/23

내가 막 인턴을 시작했을 무렵 스카프 재고가 새로 라오스에서 들어왔다. 일단, 해외에서 장기간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했다. 옥상에 올라가 다 같이 스카프를 탈탈 털고 탁탁 접어 정리해 넣어놓았다. 또한 스카프의 상세 컷이 필요해 사진이 찍어야 했는데 모델로 대표님의 사촌동생분과 연극배우분을 촬영 했었다. 연희동의 한 사진 스튜디오를 빌려 진행했고 많이 뛰어다니고 바빠 움직여 지쳤던 것 같다. 후엔 보정과 사진을 다듬어 상세 페이지에 올라가게 됐는데 부족한 사진이 있어 나로 재촬영을 하셨다. 임시로 사무실 근처(카이스트 대학원 안에 있고 주위는 굉장히 푸르다.) 나무 밑에서 찍었다. 해도 좋고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나와서 무려 홈페이지에 대문 사진으로 올라가게 됐다. 나중에 내가 두르고 찍은 스카프는 결국 1장밖에 남지 않았다는...(히히)

### 2-3. 카카오 메이커스X어스맨 투-투 멀티파우치 04/13~

카카오 메이커스는 주문 생산이 모토인 회사다. 주문이 들어온 만큼 만들어 주문자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인데 우리의 직물을 이용해 파우치를 만들기로 했다. 필통에서 파우치, 클러치까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샘플 작업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래된 재봉틀이 열일하지 않은 관계로 오랜만에 손바느질을 했다. 결국엔 양면을 다른 천을 이용한 투-투 멀티 파우치란 이름을 가진 손바닥만 한 파우치가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파우치를 제작하기 위해 말긴 봉제 공장은 내 또래 아들을 키우시는 아주머니가 운영하시고 계셨다. 여름인데도 서늘한 지하로 내려가면 다양한 천들이 널려 있는데 우린 적은 수량으로 150개를 제작했지만 많을 땐 1000개 넘게 제작하신다고 한다. 재단 외에 대부분은 혼자 작업하신다는 게 놀라웠다.

이렇게 31명의 주문으로 제작을 해서 봉제 공장에서 넘어왔다. 또다시 검수와 다리미질, 또 검수 끝에 B품과 A품을 가려 박스 포장에 파우치와 브로셔를 담아 마무리 지었다.

### 2-4. 세계공정무역의 날 05/14

세계 공정무역의 날은 내가 가장 바빴던 시기였다. 가장 우리 회사가 연관할 수 있었던 축제였는데 한공협이라 해 한국공정무역단체 협의회에서 주최한다. 사실 한공협의 존재를 몰랐던 난 신기했었는데 사실 입지가 작고 힘이 약할수록 더욱 뭉쳐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축제는 대성공이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사실 좀 의아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난 세계 공정무역의 날 때 게임부스를 맡았었다. 게임부스

는 공정무역 관련 퀴즈, 어스맨 퀴즈를 주로 다뤄 빙고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이를 위해 FAIRTRADE라 적힌 네모난 판을 제작하기도 했다. 또, 축제 부스를 꾸미기 위해 부직포에다가 글자를 바느질 해 붙이고 퍼레이드를 위해 보부상처럼 패랭이와 조끼를 제작했었다. 난 전부터 열심히 그려온 공정무역 10원칙 아이콘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10원칙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행사 당일, 덕수궁 돌담길 옆에서 이뤄졌는데 사실 난 시청도 잘 안 다니는 편이라 사람이 적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흥미를 보여 뭔가 바빠 흘러갔다. 사람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스카프나 바구니에 관심 있는 사람도 모여서 뭔가 1석 2조의 효과를 봤던 것 같다.

## 2-5. 외부

어스맨은 아직 자체 매장이 없기 때문에 청탁을 해 물건을 판매하는데 직접 물건을 팔기 위해 외부 행사를 종종 나갔었다. 대표적으로 마르쉐를 가장 많이 나갔는데 마르쉐는 농부시장으로 생각보다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한 시장이다. 03/25의 상암MBC 사회적 경제 장터와 04/10의 혜화 마르쉐를 나갔는데 더 많은 시장을 나가보지 못해 아쉬웠다. 그래도 다양한 일들이 있어 좋았던 것 같기도.(히히)

사실 판매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어스맨의 제품은 가격대가 꽤 높기 때문에 선뜻 사람들의 지갑을 열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 덕분에 진정한 물건의 가치와 가격, 손에 담긴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하나의 직조물과 같이 손으로 만든다는 건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하지만 가벼이 여겨지고 나도 때때로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는 것 같다. 그에 진정한 가격이란 무엇인지 사실 그 당사자가 만들기에 더 값진 게 아닌지 혹은 나의 안일한 이기심에 남의 노력을 낮게 보는 게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 3. 인턴을 하는 동안의 고민

### 3-1. 돈

사실 인턴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된 지점은 돈과 꿈이었다. 과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만났을 때 난 나의 부르주아를 저버리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가끔은 배고프고 가난에 시달리더라고 행복한 일을 하며 생활할 수 있을까였다. 사실 선뜻 용기 내 그렇다고 대답은 못한다. 그건 좀 가식일 것 같다.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것 같다. 좀 한심한 것 같으면서도 내 나이 또래라면 가지고 있는 고민이지 않을까 한 생각이 든다. 그들은 그저 대학을 들어가는 게 꿈인 걸까.

난 사실 사치스러운 사람이다. 새것을 좋아하고 유행을 따르고 좋은 게 있음 갖고 싶다. 어찌면 당연한 인간의 소비 욕구에 난 반해 살 수 있을까가 의문이다. 돈이 결코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원하고 더 많이 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다. 공정무역 제품이란 것은 세상의 한 쪽인 불편한 면을 바꾸기 위해 존재하는 사업이자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운동에 참여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공정무역 제품의 가격에 사람들은 망설여하고 쉽게 소비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내가 만난 모든 손님들이 그랬었다. 결국 나의 요지는 나도 소비로 하여금 하나의 운동을 실천하려면 돈이 많을 수밖에 없을까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은 뭔가 모순적이라 느꼈다. 돈이란 언제나 그런 것 같다. 뭔가 모순적이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존재.

### 3-2. 세계

애초에 더 큰 세상을 보고자는 생각으로 갔던 공정무역 회사에선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자세히 알진 못했던 세상의 이면을 알아버렸다. 알아버렸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인턴을 하며 카페 지구마을 총괄이신 이남숙님을 인터뷰했었는데 그분은 '공정무역에 대해 많이 알려려고 해요. 사실 알면 알수록 그 앞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쉬이 행동하지 못하죠'라고 말씀해주신 적이 있다. 난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한다. 알면 알수록 쌓여가는 세상의 불편한 면에 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이떠중이로 느껴진 적이 있었다.

그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면보다 훨씬 부조리하고 불편한 점은 넘쳐날 것 같다. 그때마다 피하려 할 것 같지만 더 알고 노력하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싶다. 이게 내가 인턴에서 느낀 가장 큰 점인 것 같다.

## 4. 부록

### 4-1. 사진

#### 4-2. 공정무역 카페 이남숙 총괄님 인터뷰

(이는 녹취를 풀어 정리한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실제로 블로그에 게시된 인터뷰 내용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오타가 있어도 양해해주길 바램^^ 녹취 정리란 원래 오타 투성이... 그렇다고 정리를 안한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 -지구마을과 본인 소개

지구마을은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에서 나온 카페자 가게예요. 커피샵과 수공예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멀티샵 방식의 공정무역 가게가 저희 가게의 핵심이죠.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물건을 파는 가게를 넘어서 소통의 공간인 것 같아요. 여러 오시는 분들에게 공정무역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 활동, 세미나, 교육, 워크샵을 상시로 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물건을 사는 분들이 공정무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생기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구마을을 총괄하는 총괄 매니저구요. 직함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 있어요. 카페와 수공예를 나눠서 맡는 분들이 계시고 전 카페와 수공예 매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널리 알리는 작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구마을로 오시기 전에 대안학교 선생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지구마을로 오시게 됐나요?

여러 제가 지나온 길을 보면 주로 시민사회 쪽에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엔 여성 운동을 하고 두 번째론 생협에서 일을 했었고 3번째가 대안학교 선생님, 그다음이 공정무역이네요. 각자 다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나 내용을 지향한다는 점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단체 중에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단체의 대표이신 이사님이 대안교육 연대에서 공정무역에 관련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도 공정무역에 대한 강의와 설명을 하셨는데 의외로 모르는 부분도 알게 되고 지향하는 바가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대안적인 삶과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일의 분야. 그 일 중에 하나였었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공정무역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대안학교도 그렇고 공정무역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 무역인데 지향하시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크게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것.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제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가치로 지구마을과 연계해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무역에 관련된 일을 할 때, 기대하는 바와 목표들이 있잖아요. 생산자들의 생산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주는 것, 그 노고를 소비자들도 함께 느껴서 자신이 좋은 소비를 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공정무역에 대해 알게 되고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것. 사실 이런 윤리적인 활동이 기대하는 것이 앞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일상으로 끌어와서 실천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구마을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기회와 경험을 주고 알리려고 해요. 사실 알면 알수록 그 값에 대한 무게 때문에 쉬이 가벼워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오면 직접 커피를 내려보는 세미나도 해요. 느낌을 나누고 자신이 내린 걸 마셔보기도 하고. 요즘은 중학교 과정 중에 공정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직접 지구마을로 와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가세요. 어떨 때 오시는 손님분은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 공정무역 가게라며 비싸다며 공정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요. 그러면 공정무역은 처음 시작할 땐 생산자를 위해 시작된 공정무역이라고 말씀드리죠. 하지만 저희 지구마을 커피 가격은 2000원이에요. 그런 걸 얘기해드리면서 일반 커피 프렌차이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만한 가격으로 내놓는 거죠. 중간 과정이 없고 직접 생산자와 거래하다 보니 거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로써 그걸 구매하는 소비자가 커피 한 잔의 뿌듯함을 가지게 하는 행동과 교육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

-지구마을에선 주로 어떤 소재의 워크샵이나 강의를 하시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다양한 워크샵과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수익을 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서 그곳에 집중을 하고 있죠.(웃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생기려면 적정 수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구마을에 한해서 케이터링이란 개념을 사용해 판매 중이에요. 행사장에 종종 나가서 저희 커피에 대해 홍보를 하죠. 또 보시면 알겠지만 매달, 혹은 2달에 한 번씩 지구마을 벽 쪽에 전시를 해요. 지금은 공정무역 축제 날에 사생대회 진행했던 그림을 걸어뒀는데 다양한 전시를 합니다. 또 협의체에 소속된 단체들이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도 종종 해요. 어스맨도 견체리랑 살구 나왔을 때 했었어요.

-현재 지구마을에선 다양한 공정 물품도 함께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직접 들어오신다면 어떤 물건을 들여오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식품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거리가 멀잖아요. 유럽은 거리를 극복하는 방법을 통해 과일이나 다양한 걸 들여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엔 현재 바나나와 건과일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외엔 커피, 올리브유, 초콜릿 같은 게 들어오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정말 한 번 해보고 싶네요. 전 그분들의 문화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악세사리를 들여오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다루는 단체가 있긴 하지만 그분들의 문화를 보고 있으면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이국적이면서 원주민적인 게 느껴지는. 같이 할래요?(웃음)

-바라시는 이상적인 세계가 있으신가요?

이상적이라고 하면 이뤄지지 않는 일일 것 같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현실로 나타났으면 하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이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공정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바랄 것 같아요. 공정무역 상품이 사람들에게 더 자주 이용되고 먹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일상에서 쉽고 자주 일어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겠죠.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에스페란토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벨기에로 넘어가서 게스트 하우스에서 묵었는데 정말 제가 본 대부분의 것이 페어 트레이드라고 적혀있던 것 같아요. 음료를 파는 자판기에도, 조식을 먹으려고 시작하는 부분에도. 정말 부러웠어요. 아무렇지 않게 일상에 들어와 있는 문화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인정해준다는 뜻이겠죠. 국가도 그걸 도와주고.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지구마을, 본인의 앞으로 걸어가실 길.

멀리 계획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이 일에 대한 본질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의 즐거움이 지속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앞으로 그러도록 더 열심히 오랫동안 일해야겠죠. 제 소박한 바람이에요.



Alternative Education  
/3.30~6.30까지  
대안교육연대

송륜근

▶순서

1. 단체 및 활동 소개
2. 활동 총평



•단체명 : 대안교육연대

•단체 프로필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85-2(월드컵로 11길 27) 2층(121-842)

이메일 : psae0590@daum.net

전화번호 : 02-322-0190

팩스번호 : 02-322-0191

•단체 소개

사무국장 : 이상화 / 활동가 : 엄영빈, 이상우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에 문제점을 느끼고 새로운 대안교육을 만들어 운영하는 대안학교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연대의 필요성을 느껴서 2002년 6월에 창단하게 된 단체이며 현재 대안학교, 홈스쿨링 네트워크 등 다양한 대안교육현장 53개의 네트워크와 대안교육 교사·학부모·활동가·연구자 등의 단체 및 개인회원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안교육에 관한 연구사업, 교사 학부모에 대한 교육사업, 협력과 연대의 네트워킹사업, 대안적인 삶과 교육의 사회적 실천 활동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합니다. 조직의 재정은 회원 현장 및 개인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 NGO 단체입니다.

•활동 기간 : 2016년 3월 30일 ~ 2016년 6월30일

•활동 내용

- 경기도판교혁신센터에서 쇼핑몰 창업 관련 사업 계획서 작성법 교육 강의 5일 듣기
- 대안교육연대 사이트 리메이크를 위해 각 대안학교 현장 정보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 14년 대안교육 문화제 영상 편집
- 15년 대안교육한마당 강의 녹취, 16년 교장, 대표교사 워크숍 녹취, 16년 학부모 워크숍 녹취 정리
- 운영위원회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
- 학봉장학회 준비 및 참석 (사진담당)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참여
- 2016 교장대표교사 워크숍 뒷정리 담당
- 2016 부모 워크숍에서 네임텍으로 쓰일 종이 자르기, 방명록 부스, 강당 꾸미기, 자료집에 들어갈 현장 주소록 만들기
- 대안교육 쇼핑몰 (공동체장터) 운영위원회 회의 참여
- 사무직 : 주 월요일 연대분들과 같이 사무실 청소, 사무실 식물 관리, 전화 상담 및 문의 기타 업무 수행

•활동 총평

처음 간디학교장학회에서 대안학교 쇼핑몰을 기획하고 그 과정에서 인턴을 구한다는 얘지만 듣고 무작정 인턴쉽을 하겠다고 했고 대안교육연대 소속으로 인턴쉽을 진행하며 쇼핑몰 일을 맡게 되었다. 그렇게 3월 30일에 떨리는 마음으로 대안교육연대 사무실 문을 열었던 내가 이제는 인턴쉽이 끝나고 소감을 쓰고 있다니 시간 참 빠르다. 이제는 연대 사무실로 가는 출근길을 가끔 가게 될 때마다 어딘가 반가운 기분이 든다. 초반에는 대안교육연대에서 인턴쉽을 하는 것에 대한 내 확신이 없었다. 인턴쉽은 내가 가고 싶은 단체를 찾아서 그 단체 연락을 해서 그 단체 일을 체험해보는 게 인턴쉽인데 나는 단체를 보지 않고 쇼핑몰을 한다는 그 하나만 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돌이켜 보면 여기로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쇼핑몰을 기획하는데 창업에 관해서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일주일에 5번 판교에 가서 창업 관련 사업 계획서 쓰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여러 사람들의 창업 아이템을 보고 그 아이템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사업으로 확장되는지 볼 수 있었다. 그런 사람들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을 보면서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 내가 판교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나를 보며 '나는 19살 때 머 했지?, 지금 그 나이에 듣기 쉽지 않은 좋은 강의를 듣고 있네요.' 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나도 20, 30대가 돼서 그때의 19살들을 보면서 저 나이 때 나는 머 했을까를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때 나는 좋은 경험들을 했었지, 로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었다.

대안교육연대에서 인턴쉽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활동은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인 거 같다.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는 1학기 2학기로 대안학교 재학생, 자퇴생, 졸업생들이 주를 이뤄서 창업, 사회적 문제를 찾는 법, 사회적 기업 및 각종 기업들을 알아보고 인턴쉽과 취업을 목표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거기에 스텝 겸 1학기 참여자로 들어갔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다. 창업자, 사회적 기업 대표, 세일즈맨, PD 등 정말 다양했다. 그 사람들과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의 직업 세계를 볼 수 있었고 앞으로 내 진로 방향의 고민 시야를 좀 넓힐 수 있었다. 같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애들은 다 나랑 비슷한 나이고 대안학교 출신들이여서 그런지 굉장히 재미있었다. 그래서 인턴하는 1주일 중에 가장 기대되는 날이기도 했다. 아마 인턴 하면서 비슷한 나이들의 애들을 만나서 그런 거 같다. 애들 중에는 벌써 자신들이 단체를 꾸려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런 애들과 있으면서 더욱더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많은 자극들을 받는 시간들이었다.

대안교육연대에서는 구글 드라이브, 엑셀, 인 디자인 등 여러 오피스들을 배울 수 있었고 대안교육연대 홈페이지 재조에서 메뉴 담당, 여러 녹취 파일 정리 등 많은 것들을 했다. 녹취들의 대부분은 대안교육과 관련된 강의들이었는데 이 녹취들을 풀면서 그 강의를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들을 수 있었다. 내 주 인턴 목적인 쇼핑몰 기획도 참여했다. 쇼핑몰 기획 회의를 하면서 하나 의 쇼핑몰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인턴 기간 내에 쇼핑몰이 만들어져서 오픈하지는 못하지만 인턴이 끝나도 계속 그 일은 할 것이기 때문에 아쉽거나 한 감정은 없고 앞으로의 할 일들이 기대된다.

대안교육연대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참석 하면서 대안교육연대라는 곳이 어떻게 운영되는 단체이며 학교에서 듣던 대안교육한마당이나 교사 한마당 등의 행사들이 어떻게 기획되고 운영되는지도 알 수 있었고, 지금 대안교육의 이야기들을 다른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들을 수 있었다. 사무실에서는 내가 화분도 관리했었다. 다들 식물에 관심이 없어서 다 죽어가던 식물들을 내가 다시 잘 키워 냈다. 이제 내가 없으면 누가 그 화분들을 관리해줄지 걱정된다. 연대 활동가분들과도 잘 지냈지만 다들 바쁘고 해서 사무적인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만 주로 나눠서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다. 그래도 다들 그 바쁜 와중에도 잘 챙겨주시고 가끔 내가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들을 가르쳐주는 재미도 있었다. 쇼핑몰 하나

로 시작했던 인턴이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에 작게나마 첫 발을 잘 내딛은 거 같다. 내가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에서 인턴을 하면서 연대 사무국에서 인턴 제도를 도입해볼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연대에 첫 인턴에 대한 기억을 내가 잘 해냈구나라는 뿌듯함이 들었다. 3개월 동안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게 많은 일들을 했다. 연대도 인턴을 처음 받아보기도 해서 나에게 어떤 선까지 일을 시킬 수 있을지 몰랐고 나도 또한 내 능력으로 어디까지 일을 나설 수 있을지 잘 몰랐다. 그래서 내가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 같다. 학교에서 정해진 최소 14주의 기간 동안 처음에 적응을 하다가 중간에 하나의 일을 맡고 후반에 잘 정리해서 나오는 그 기간이 14주 정도니까 좋은 거 같다.

인턴ships을 하면서 집을 떠나서 자취를 하면서 인턴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인턴이 하나의 교육과정으로서 그렇게 홀로서기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일 수 있겠지만 교육과정이니만큼 학교에서도 학교 밖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 ‘방물단을 다녀오다!’

/3.14~7.26까지

방물단

안다연

### ▶순서

i. 인턴을 시작하며.

- ①. 방물단을 선택한 이유
- ② 방물단이란?

ii. 방물단에서ing~

- ① 방물단 이야기
  - [?] 방물단 적응기.
  - [?] 좋았던 것들.
  - [?] 힘들었던 것들.
- ② 방물단에서 했던 일
  - [?] 구로 영-프라자
  - [?] 뽀짝놀이터
  - [?] 엄마와 함께하장
  - [?] 달시장
  - [?] 옹달숲 음악제

iii 느낀점

① 인턴을 마치며.

**인턴을 시작하며**

방물단을 선택한 이유.

나는 인턴 단체를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었다. 대안학교라는 틀에서 평생을 지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싶었다. 그게 가장 크게 잡은 목적이었고 내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단체를 찾기 시작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의 대한 부담감이 컸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곳을 원했다. 한 공간에만 있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방물단’을 알게 되었다. 홈페이지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을 잇다’, 라는 문장이 마음에 와 닿았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장터를 만드는 단체라니! 내가 가고 싶었던, 원하는 그런 단체였다. 이리 저리 전국을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고 방물단에서 선택

나를 받아주셨다.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인턴을 시작할 수 있었다.

### 방물단이란?

방물단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을 분화로 잇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장터를 통해 사회적 만남의 장을 만들고 마을장터를 통해 가치를 나눕니다. 문화예술 기획으로 문화와 예술, 사람을 잇는 축제 공간을 기획합니다. 공간에 어울리는 부스를 대여해드리고 어울리며 놀며 생각을 키우는 놀이터를 만드는 곳입니다.

방물단에서는 별명을 사용해, 월리(멘토쌤), 안다(나), 쿠키, 초코, 큐로 활동했다. 이 별명 순서는 방물단 입사하는 순서다. 어쩌다 보니 멘토쌤 다음으로 내가 사무실에 들어온 신기한 일이 생겨났다. 늘 든든하게 응원해주신 멘토쌤 월리, 방물단에 잘 적응하게 해주신 쿠키, 늘 다정하게 이것저것 잘 챙겨주신 초코, 늦게 들어와서 오랜 시간같이 일은 못 했지만 유쾌했던 큐! 그리고 인턴 안다! 이렇게 다섯 명이 같이 활동했었다.

### 방물단에서 ing~

#### 방물단 이야기

#### 방물단 적응기

방물단에 적응하기는 약 한 달이 걸렸던 거 같다. 처음 인턴을 시작할 때 사무실에 나와 멘토쌤 단둘 뿐이었다. 덕분에 어색해서 미치는 줄 알았다. 사람에게 먼저 잘 못 다가가는 성격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막상 학교 밖에 나오니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소심이가 되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쿠키도 오시고 초코도 오시고 같이 여행도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됐다. 방물단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것은 '시간개념'이었다. 나는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계획에 맞춰서 지내는 걸 좋아했다. 내 스스로 만들어둔 계획대로 하루가 되지 않으면 하루가 불안하고 짜증 났었다. 이런 나와 반대로 멘토쌤은 여유롭고 느긋하며 자유로우며 즉흥적인 면이 조금 있으신 성격이셨다. 그 점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그 덕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적응하기에 필요했던 거 같다. 그것만 빼면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내가 편히 지내다 갈 수 있게 배려해주셨기에 정말 즐겁게 방물단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자랑하나 하자면, 난 정말 인턴을 잘 왔다. 거리가 조금 멀지만 축복받은 곳에 왔다. 그 정도로 정말 잘 해주셨다.

#### 좋았던 것들.

위에서 말했듯이 나는 인턴을 정말 축복받은 곳에 왔다. 일본 여행을 공짜로 다녀왔으니 말이다. 차비도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정말 축복받은 인턴생활을 했다. 무엇보다 내게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했다. 19살, 사회생활 처음 해보는 애에게 믿고(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렸다)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새로운 걸 알려주셨다. 덕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다양하고 많은 경험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덕분에 행복했던 인턴을 보냈다. 그리고 정말, 진짜, 매우 죄송한 게 있다면 생일파티 해주셨을 때. 그 날 너무 부끄러웠다. 그래서 반응이 무덤덤했어. 다시 생각해도 너무 미안해요. 생일 축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힘들었던 것들.

힘들었던 거라면 우리 반 다 같이 느꼈던 인턴 권태기라고 해야 하나. 적당한 표현이 없으니

인턴 권태기라고 하겠다. 힘들었던 건 인턴 권태기가 왔을 때부터였다. 두 달 정도 되니 왕복 4시간인 출근 시간에 몸이 지쳤던 거 같다. 스스로가 컨디션을 조절 못 한 것도 있지만 인턴 권태기에 걸려서 한동안 멘붕이었던 거 같다. 내 스스로가 한심해지기도 했고 내가 일을 잘 하고 있나 싶기도 했고 처음 다짐했던 마음이(정말 열심히, 즐겁게 배운다는 마음으로) 사라져서 힘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변 사람들이 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냐며 계속 돈, 돈, 돈, 이야기만 해서 마인드컨트롤할 수 없어 힘들었다. 돈을 왜 받지 않냐, 일을 하면 이만큼의 돈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네가 일을 하면서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안 받냐, 이만큼 돈을 받으면 넌 이만큼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 돈을 받아라 등. 다들 돈, 돈, 돈, 이야기만 해서 너무 힘들었다. 돈을 받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은데. 돈에 얽매이게 되면서 처음과 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 힘들었고 가장 아쉽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처음 그 마음 그대로 유지했다면 이렇게 아쉽게 인턴 생활을 넘기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걸 뽑자면 시간 약속이라고 해야 할까. 아, 물론 지금은 괜찮다. 아마도?

방물단에서 했던 일

[?] . 구로 영-프라자(4월 29일)

(출처 - 구로 영프라자 페이스북 페이지)

구로 영프라자는 구로시장 한구석에 있는 상가로, 청년들이 모여 가게를 연 곳이다. 친구들과 술 한 잔, 여유를 즐기고 싶을 때 가는 것을 추천한다. 작고 조금은 어둡다는 느낌이 드는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다들 밝게 웃고 있어서 그런가, 따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구로에서 했던 일은 야시장을 기획하는 일이었다. 아주 잠깐 기획하고 의견을 냈던 거 외에는 한 일이 없었다(이 점이 매우 아쉽다). 영-프라자에서는 별로 비중이 없었다. 처음 시작했던 일이기도 했고 내가 기획하기로 했던 프로젝트가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일을 했다. 축제 당일에 했던 일은 사진을 찍어 즉석 인화해주는 일을 했다. 제일 편하게 했던 일인 거 같다.

방물단에서 첫걸음을 걸었던 곳이 구로였다. 사무실 말고 처음 간 곳이었으며 처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난 곳이었다. 내게 구로는 '처음'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다.

구로는 출근한지 이틀이 되던 날 방문한 곳이었다. 구로에 처음 방문한 날, 인턴 시작하고 처음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짧은 시간에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 사실에 들떠있었다. 구로로 가는 길이 조금 어려워 헤맸던 거 빼고는 정말 즐거웠던 거 같다. 그 당시의 일기를 읽어보면 영프라자가 어둡게 느껴졌다고 적혀있다. 아직 공사가 덜 된 곳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고 빛이 안 들어오는 골목이 있어 그랬던 거 같다. 구로는 어둡게 느껴졌지만 구로에서 만난 사람들은 밝고 유쾌하며 재미있었다고 적혀있다.

처음으로 구로에서 만난 분들은 유쾌하고 밝았다. 야시장을 준비하는 회의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고 특이한, 그리고 독특한 의견이 많이 나와 엄청 웃었다. 그 당시 월리(멘토쌤)를 두 번째로 만났던 때라서 어색했는데 그날 뒤로 조금 괜찮아졌다. 겨우 이틀째였지만 말이다. 구로에서 제일 좋았던 때를 고르자면 첫날이었던 거 같다. 시간이 가면서 구로를 다녀오기만 하면 몸에 힘이 빠졌었다. 집에서 멀어서 그랬던 것 인지 몰라도 구로에서 집에 오는 날에는 기운이 쭉 빠져 바로 잠들고는 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

구로에서는 조금 답답했던(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답답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것만 빼면 정말 즐겁게 일을 했던 거 같다. 구로 야시장은 처음으로 하는 축제라 기대감이 높았고 빨

리하고 싶어서 안달 났었다. 처음 내가 기획한다고 생각하니 설렜던 거 같다. 구로에서 기획하는 축제가 ‘야시장’이라는 말에 더더욱 기대가 됐다. 비록 내가 맡기로 했던 프로젝트(구로 야시장 탐방하는 가로세로 낱말 퀴즈 만들기)가 무산되어 내가 한 일이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

구로에서 내가 한 일은 아주 간단했다. 쿠폰 함을 만들기 위해 초코와 바느질한 것과 사진을 찍어 즉석에서 인쇄해주는 것이 일이었다. 구로에서 가장 좋았던 이야기를 하나 꺼내자면, 야시장이 마감되는 시간에 한 노부부가 오셔서 사진을 찍고 가신 것이다. 즉석으로 사진을 인쇄해준다는 판넬을 뺀히 쳐다보시기에 사진을 찍어드리겠다고 먼저 다가갔었다. 다 늙었는데 무슨 사진이냐던 두 분을 붙잡고 사진을 찍었다. 두 분은 어색해하시면서 내가 말하는 포즈를 잡으셨다. 두 분이 나온 사진은 여태까지 내가 찍었던 사진들 중에서 가장 예뻐던 사진이었다. 조명이 예쁘지 않은 곳에서 카메라로 어색하게 찍은 사진이었지만 내가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예쁜 사진이다. 구로에서 가장 남는 기억은 두 분의 사진 찍어드렸던 것이다. 두 분 덕분에 즐겁게 구로 야시장을 마무리했었다. 아, 그리고 생일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렸다. 방물단의 ‘처음’을 즐겁게 열었던 축제였다.

## [?] 뽀짝 놀이터(5월 5일).

서울혁신 테마파크에서 열린 5월 5일 어린이날 축제로 색다르고 다양한 놀이터가 열리는 축제였다. 5월 5일에만 뽀짝 열리는 의미로 뽀짝 놀이터다.

뽀짝 놀이터에서 했던 일은 가로세로 낱말퀴즈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이었다. 뽀짝 놀이터 가로세로 낱말퀴즈에 문제와 답을 만들고 운영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만들다 보니 어렵고 힘들었다. 문장을 이을 단어들과 그 단어를 쉽게 풀어써서 문제로 만들기가 어려웠다.

본격적인 일을 시작한 곳은 뽀짝 놀이터였다. 뽀짝 놀이터는 서울혁신테마파크(우리에게 친년허브로 익숙한)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였다. 내가 맡은 일은 가로세로 낱말퀴즈를 만들어 서울혁신 테마파크를 조형물들을 탐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거리상 출근하기가 제일 편해서 가는 날마다 기분이 좋았다.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이다.

서울혁신테마파크에서는 가로세로 낱말퀴즈를 만드는 일을 했다. 서울혁신테마파크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아서 조금 다뤘던 것이 있었다. 이렇게 큰일을 내가 해도 되나 싶어 불안해 나왔던 좋지 않은 행동이었다. 대화로 풀 수 있었던 문제를 작은 다툼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하여튼, 처음으로 내게 온 일이었고 가장 머리를 쓰며 괴로워한 일이었다. 서울시에서 일한다는 생각에 큰 부담감이 컸고 믿어주신 월리께 정말 죄송하지만, 날 뭘 믿고 이런 일을 주시는 거지?라고 한참을 고민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월리 덕분에 많은 것을 가로세로 낱말 퀴즈를 통해 배웠다. 내가 생각보다 단어를 많이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고 생각보다 문제를 잘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내가 어린이 친구들에 문화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고 가로세로 낱말퀴즈가 생각보다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서울혁신테마파크를 탐방할 수 있었고 딸기(딸기라테를 많이 사주셨다)가 맛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원래 딸기 싫어함). 사실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빨리 뛰는데 커피를 많이 사주셔서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뭐든 많이 하면 익숙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소한 거 하나하나 배워가고 나아가며 가로세로 낱말퀴즈를 만들었다.

문제를 만들 때 서울혁신테마파크의 대한 이야기를 섞어야 해서 막막했었다. 의미를 어떻게



풀어 놓아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혼자 끙끙 앓았는데 수빈님(반짝 놀이터 담당 자님)께서 도와주셔서 쉽게 만들 수 있었다. 가로세로 낱말퀴즈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파크 주변을 여러 번 돌고 자료를 찾아보고 서울혁신테마파크 투어를 했다. 그 덕분에 내가 남들에게 투어 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생각보다 결과물은 괜찮았다. 가로세로 낱말퀴즈를 다 풀어오면 주는 상품이 일찍 떨어진 것만 빼면 말이다.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다. 정확한 피드백을 받았던 기억이 없어서 객관적으로 잘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뿌듯했던 축제였다. 내가 언제 이렇게 큰 축제를 기획해보겠어, 라는 뿌듯함이 들었다. 마무리가 조금은 아쉬웠지만(상품이 일찍 떨어져 컴플레인이 들어왔었다) 뿌듯함이 가장 많이 남는 축제였다.

#### [?] 엄마와 함께하장(5월 13일 ~ 5월 14일).

5월 13일 ~ 5월 14일 안산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장.

엄마랑 함께하장에서는 부족한 물품을 나가서 사 오는 일을 했었다. 축제를 구경하고 느끼고 싶었는데 계속 늘어나는 사야 하는 물건에 한 번도 제대로 축제를 볼 수 없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했던 축제였다. 그래도 잘 운영된 거 같다.

엄마랑 함께하장은 달시장 다음으로 가장 기대하는 축제였다(달시장을 가장 기대했었다). 처음 만나 월리께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설명해주실 때 가장 기획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었던 축제였다. 엄마랑 함께하장은 기대의 10%도 채우지 못 했던 축제였다. 내가 축제에 참가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내가 맡게 된 역할은 밖으로 나가서 물건을 사 오는 일이었다. 하루 종일 밖으로 나가 물건을 사고 돌아다니느라 축제를 제대로 보지 못 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다 마무리가 될 즈음 윙가가 놀러와 잠깐 주변을 둘러본 게 다였다. 내가 방물단을 들어오기 전, 기획이 마무리가 된 축제라서 많은 공감대가 없는 것도 아쉬웠는데 막상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했었다. 인턴을 4.16 공방으로 갈까 잠깐 생각한 적이 있어서 내가 세월호 유가족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라는 생각에 들떠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속상했었다. 2일 연속으로 한 시장이었는데, 둘째 날은 내가 도착하자마자 비가 왔다. 즐겨보지도, 제대로 보지 못 해 너무 아쉬웠다. 제일 아쉬웠던 축제를 뽑으라고 하면 엄마랑 함께하장을 선택하겠다. 아무것도 보지 못 해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느낀 점도 없다. 그래서 정말 많이 아쉽다. 속상했던 감정을 잘 못 풀어냈던 거 같아 미안했던 축제가기도 하다. 이 내용의 대해선 비밀. 하여튼 가장 아쉬웠던 축제는 엄마랑 함께하장이었다.

#### [?] 달시장(5월 27일, 6월 24일)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열리는, 달이 뜨는 시간에 열리는 달시장.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다. 쓰레기도 금지! 개인 식기를 쓰거나 식기를 대여할 수 있다. 설거지는 셀프! 가장 기대했고 즐겁게 활동했던 축제다.

달시장은 마지막으로 기획했던 축제였다. 5월 27일, 6월 24일로 두 번 활동했었다. 달시장에는 달마당이라는 놀이 프로그램이 있다. 달마당은 방물단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미있는 놀이를 열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달시장은 '가족'이라는 주제로 운영이 되었다. 5월 달은 가족, 6월 달은 아빠, 7월 달은 쉬고 8월 달은 아이, 9월 달은 엄마. 나는 5

월 가족 달시장과 6월 아빠 달시장에 참여했다.

달시장에서는 달마당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달마당 대부분을 기획했고 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5월 달에는 '정크 피쉬'로 쓰레기 물고기를 낚아 분리수거하는 낚시놀이를 기획하고 운영했고 6월 달에는 '아빠를 위한 상자'를 기획했다. 아빠를 위한 상자는 상자마다 이름이 있는데(EX - 동심, 사랑등) 사랑이 필요한 아빠는 사랑상자를 동심이 필요한 아빠는 동심상자를 열어 부족함을 채우는 힐링 상자였다. 솔직한 후기를 남기자면 정크 피쉬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아이들이 매우 격하게 즐거웠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얼마나 격하게 즐거웠냐면, 일주일 내내 만들었던 약 60마리에 정크 피쉬들이 5월 27일 하루 만에 다 사망할 정도였다. 무엇보다 정크 피쉬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단체 분들이 힘들게 구해주신 풀장과 초코가 만들어 주신 멋진 정크 피쉬 가렌더 덕분이었다. 아이들이 웃으면서 즐겁게 즐겨줘서 매우 기뻐던 프로그램이었다. 다음은 아빠를 위한 상자, 아빠를 위한 상자는 정말 말 그대로 망했다. 아빠를 위한 상자였는데 아이들을 위한 상자가 되었다. 어떤 아주머니는 돈을 내고 열어야 하는 상자를 억지로 열어 물건만 가져가셨었다. 상자를 열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지만 이 프로그램은 망한 거 같다. 아빠가 딱 한 분 오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소가 별로 좋지 않았다. 영화관인 휴게실이라 어둡고 음침해서 다들 있는 줄도 모르시고 지나가기만 하셨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빠를 위한 상자는 망했다.

달시장은 마음 놓고 즐기고 운영하고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축제였다. 사람들 대부분 다 친절하셔서 좋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기획하다 보니 축제를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던 거 같다. 방물단에서 기획하는 축제라서 그런지 더 마음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던 거 같다. 달시장이 좋았던 점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같은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고 내가 기획했던 축제를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즐겨줘서 좋았다. 가장 따뜻하고 마음 편하게 즐겼던 축제였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너무 바빠서 축제를 구경하지 못 했던 것. 힘들었던 점은 폭력적인(내 물고기가 모두 산산조각 났다) 아이들 정도. 그 외에는 가장 즐겁게 보냈던 축제였다.

## [?] 웅달숲 음악제

웅달숲 음악제는 서울 양제시민의 숲에서 열렸던 언플로그 음악제였다. 숲 속에서 마이크와 앰프 없이 진행되는 음악제였다. 숲 한가운데 누워 노래를 듣는 축제, 힐링이 되는 그런 축제였다.

웅달숲 음악제에서는 사진 찍는 일을 했다. 다른 일들의 비하면 큰일을 하는 건 아니었다. 원래는 담당하던 다른 일도 있었는데 사진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공연을 구경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관객들을 지켜볼 수 있어서 좋았다. 나처럼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과 누워서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들, 공연자들 따라서 박수치며 웃는 아이들. 예쁜 사진이 많이 나왔다. 보고서에 담지 못 해 아쉽다.

힐링을 주제로 한 축제만큼 편안하게 즐겼던 축제였다. 짧게 여러 번 한 축제라서 축제 준비를 가장 익숙하게 하던 축제였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인턴을 하며 인터넷을 많이 볼 수 있게 돼서 뉴스를 자주 보게 되었는데, 뉴스에서 알려주는 소식이란 소식은 모두 비참한 이야기뿐이었다. 그런데 이 축제를 하며 많은 일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많이 목격했다. 그 덕에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좋은 사람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만 알고 싶으니 비밀. 아, 그리고 유일하게 내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랑 동갑인

19살 친구들. 연락처는 주고받지 못 해 아쉬웠지만 내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다. 웅달숲 음악제는 힐링이란 단어가 떠오르는 축제였다. 여유로움이 필요하다면 다시 열릴 이 음악제를 꼭 즐겨줬으면 한다.

## 느낀 점

### 다름과 이해

인턴을 시작하며 처음 느꼈던 감정은 이것이었던 거 같다. 이 덕분에 화나가는 일이 많았었다. 나는 여태까지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지냈으며 내가 내 삶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들만 만났었다. 개인의 삶은 같지는 않아도 대안적인 삶(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단어를 찾지 못 하겠다, 임시로 대안적인 삶이라고 하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굳이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줬다. 인턴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었다. 인턴을 하면서 집에 있다 보니 교회를 많이 가게 되었다. 내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내 삶을 이야기하라는 교회 선생님 덕분에 황당했었다. 딱히 내 삶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다. 내 삶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매우 불편했고 매주 같은 이야기를 질문해서 슬슬 화나기도 했었다.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질문을 이번 주에도 반복했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이야기를 해야 됐었다. 나는 발표 같은 걸 자주 하는 '대안학교' 학생이었으니 말이다. 내 삶이 신기하다며 나보고 좀 더 이야기하라는 선생님 덕분에 교회가 불편한 곳으로 변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일반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기한데 말이다. 먼저 내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묻지 않았다. 그 점의 대해선 별로 배려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매주 새로운 억지로 찾아내서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 그 점이 불편했다. 일반학교 학생들과 내 삶이 다른 건 맞지만 나도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있다. 여기서 새로운 일상을 뭘 더 말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이 내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시험, 학원, 공부, 실기가 다인 것처럼 나도 말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동의 없이 시작된 이 이야기는 내게 그리 반갑지 않았다. 다르게 생각하면 내 이야기가 궁금하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법한 상황이지만 나는 그러기가 힘들었다. 대안학교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일반학교 애들에게 말해주고, 그 아이들이 대안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던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인턴하는 내내 이 생각으로 힘들었었다.

나는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제는 조금 무더진 편이지만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내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 하면 그만큼 하루가 무거웠었다. 인턴을 시작하기 전 하자센터까지 갔지만 멘토쌤을 만나지 못 하고 다시 돌아갔던 일이 많았다. 솔직히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이 단체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참 고민했었다. 그래도 이왕 가기로 한 거 부딪쳐보자는 심정으로 인턴을 시작했었다. 인턴을 하는 중간에도 시간 약속 덕분에 화가 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힘들어서 울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후에 방물단은 여유가 가득한 곳이라고 이해를 하자,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인턴을 하면서 다름과 이해를 이해하는 법을 많이 배운 거 같다. 내겐 시간 약속이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 약속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는 점을 많이 배웠었다.

### 생각

나는 내 스스로가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고 틀에 맞춰진 생각만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글을 써도 뻘하고 지루한 이야기만 쓰고 내 생각이라고 해봤자, 남들 의견에 끼어 맞춘다고 생각했었다. 방물단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생각을 많이 하게 해 주신 거다. 축제를 기획할 때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의견을 실행하게 해주셨다. 빈말 일지 몰라도 내 의견을 듣고 칭찬해주셨고 실제로 내가 기획했던 것이 축제에서 실행되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내가 기획한 반짝 놀이터 가로세로 낱말퀴즈와 달마당 프로그램으로 두 번이나 실행되었다니!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기분이 좋다. 나를 믿어준다는 느낌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 같다. 많이 부족했을 텐데 웃으며 응원해줬던 방물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상상,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신 것도 매우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다.

## 돈

돈에 얽매이지 않고 인턴생활을 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돈에 얽이지 않아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배울 수 있었고 돈에 엉키지 않아 사람 대 사람으로 많은 것을 듣고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에 얽매이지 않아 돈보다 값진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무엇을 배웠는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저 돈보다 더 값진 것을 배웠고 그만큼 내 스스로가 성장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나는 처음에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정말 많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배우고 경험했으며 즐길 수 있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한심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 인턴을 하다가 알바가 필요했고 내 친구들을 불러서 알바 자리를 채웠다. 그전에는 돈의 대한 별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너는 돈 안 받고 일하는데 애들은 돈 받네'라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내 스스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억울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속상해지기 시작했다. 돈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값진 것을 배우는데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걸까. 처음에는 괜찮다고 나를 다독였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럽기 시작했다. 돈에 신경을 쓰게 되며 훨씬 더 값지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인턴 하는 내내 스스로가 한심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돈에 얽매여 정말 좋은 기회를 잡지 못 했으니 말이다. 스스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인턴생활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 하는 내가 너무나도 한심했었다. 그러니 제발 나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없길 바란다.

## 사람

내 인턴의 목적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었다. 대안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특성을 가진 단체를 찾았다.

생각보다는 인턴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다.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소심한 성격 탓에 용기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엄청 후회된다. 축제를 운영하며 아예 사람들을 만나지 못 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 욕심을 채울 만큼 만날 수는 없었다. 인턴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걸 말하라면,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왜 인턴을 하면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단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있었다. 인턴을 하는 동안 너무 방어적으로 지냈던 거 같다. 고등부가 되면서 성격이 점점 바뀌게 되었는데, 가장 크게 바뀌게 된 것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 것이다. 아직도 오지랖이 넓고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만큼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다. 인턴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그런 무서움을 이겨냈었다더라면 참 좋았을 텐

데, 하고 후회하고 있다.

## 일본

나는 정말 좋은 곳으로 인턴을 왔다. 차비도 주셨고 밥도 사주셨고 일본도 공짜로 데려가 주셨다. 죄송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받았다. 칭찬도 아낌없이 해주셨고 늘 만나면 안다, 파이팅! 하며 응원도 해주셨다. 일본에 가게 된 이유는 'Earth Day Tokyo'라는 축제를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일본에서 열리는 행사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온통 친환경적인 부스로 가득 찬 축제였다. 다양한 것이 많이 이것저것 구경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단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언어였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쉬웠던 만큼 재미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나만큼이나 영어를 못 하시는 일본 분께서 바디랭귀지로 부스 설명을 해주셨다. 일본 분께서 설명해주신 말은, '위아 부스, 이즈, 후쿠시마, 평! 도그, 공차공차, 도그 라이프 세드'였다. 해석을 하자면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했던 곳에서 구출해온 강아지들을 후원하는 그런 부스였다. 일본 분께서 말해주신 대로 강아지들의 표정이 정말 슬퍼보였다. 애들 표정이 다 우울했기 때문이다.

2박 3일로 여행을 가 하루는, 축제를 봤고 그 다음날은 일본 여행을 갔다. 일본에서 사시는 분들 만나서 일본식 백반도 먹어보고, 맛 집 찾아서 이리저리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횡집에서 한국말 하실 수 있는 일본인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정말 신나게 놀았었다. 방물단에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난 정말 인턴을 잘 간 거 같다.

## 후기

후기는 후기이니 정말 간단하게 쓰겠다. 방물단에서 내 욕심만큼, 생각만큼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없었지만 그만큼 얻은 것이 많았다. 인턴 권태기로 힘들었던 날만 빼면 정말 즐겁게 인턴을 보낸 거 같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했던 만큼 배울 수 있던 게 엄청 많았다(마지막은 좀 아쉽지만). 방물단에서 내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 그 배려만큼 잘 지낼 수 있던 거 같다. 무엇을 배웠는지 글로 다 남아낼 순 없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고 값지게 보낼 수 있었다. 19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방물단 안다' 시간이었다.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잘 지내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프린지를 다녀오고 나서  
/4.11~7.23까지  
프린지 네트워크

이가원

▶순서

I. intro

1. 인턴십에 대한 나의 기대
2. 단체를 선택하면서
3. 서울프린지네트워크

II. 활동

1. 프린지 적응하기
2. 올모스트 프린지 포럼
3. 기획학교
4. 여름 프린지페스티벌

III. outro

1. 느낀 점

## I. intro

### 1. 인턴십에 대한 나의 기대

나는 인턴십을 하면서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일을 졸업 후에도 생업으로 삼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싶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진로를 막연하게나마 그림으로 초점을 맞췄었지만 6학년이 다가오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다. 그림을 그리면서 슬럼프가 찾아와 지칠 때도 있었고, 대학을 꼭 가야 하는 걸까 하는 고민에서 답을 내릴 수가 없었다. 또 나중에 과연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런 문제를 나 혼자 끙끙대며 고민한다고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다른 예술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알아보고 싶었다. 예술가를 만나서 어디에서 영감을 얻는지, 사회에 자리 잡기까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슬럼프는 어떻게 이겨내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혹시 도움받을 정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인턴십도 예술가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 2. 단체를 선택하면서

사실 나는 인턴십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다. 개인 무빙의 짧은 기간도 적응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인턴십은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는 마음이었다. 그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만 있었다. 그런 나의 바람과 프린지는 나의 인턴십 현장으로 잘 맞았던 곳이었다. 처음엔 축제 안에서 그림 분야가 너무 적어서 실망도 조금 했지만 생각해보니 축제 예술 안에서 분야를 나누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되었다. 프린지페스티벌은 심사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예술축제보다 훨씬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았다. 이 작품들은 이제까지의 장르로 나누기 애매했다. 노래와 연극이 함께 하기도 했고, 내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설치미술 퍼포먼스도 있었다. 그래서 분야 상관없이 다양한 예술가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도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나면 나의 진로에도 새로운 길이 생길 것 같았다. 이제까지 했던 나의 고민들을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최대한 예술가를 많이 만날 수 있는 역할을 주셨다. 덕분에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졸업 뒤를 생각하며 초조했던 마음이 정리되었다.

### 3.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매년 여름마다 개최되는 민간독립예술축제이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모태는 1998년 대학로에서 펼쳐진 '독립예술제'이다. 당시 20대를 지나고 있던 한 무리의 예술가들이 모여 권위적인 순수예술과 상업적인 대중문화로 양분화되어 있는 문화예술계와는 다른 목소리와 존재를 알리고자 21일 동안 대학로를 점령하고 축제를 열었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후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한 독립예술제는 2002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로 축제 명칭을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프린지페스티벌은 현재 서울을 제외하고도 전 세계적으로 70여 개가 넘는 도시에서 개최되는 예술 축제이다. 프린지페스티벌은 1947년,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초청받지 못한 8개의 젊은 예술단체들이 축제가 열리는 도시 주변부의 빈 창고, 지하실, 거리 등의 공간에서 자신들의 공연을 선보였던 것에서 출발했다. 프린지(fringe)의 사전적 의미는 변방 혹은 주변부를 뜻하며, 문화적 의미로서 프린지란 미래지향적인 젊은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축제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 축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일반적인 예술축제와 달리, 사무국에서 작품을 심사하여 선별하지 않으며 예술가들이 경력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작품은 발표하고 교류한다는 점이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을 주관하는 서울프린지 네트워크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의 도전적인 실험과 지속적인 작품 제작을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프린지네트워크는 독립예술웹



진 ‘인디언밥’과 연계하여 작품 비평 및 예술가 연구를 진행하며 이를 서적으로 발간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담론 형성에 기여한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참여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포스트 프린지’, ‘프린지 협업 예술가 그룹’ 역시 그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창작교류, 예술과 지역 커뮤니티와의 만남, 사회에 말 걸기 등을 통해 예술과 관객, 시민의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작년부터 장소를 홍대에서 월드컵경기장으로 옮긴 프린지 페스티벌은 창작 레시던시 ‘프린지 빌리지’를 통해 공간에 대한 실험과 탐구를 시작했고, 예술가들에게 창작 인큐베이팅의 의미로 다가서고자 노력 중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디스트 교육 자료집)

## II. 활동

### 1. 프린지 적응하기

#### 1) 마포진로박람회

프린지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우물쭈물하던 무렵 처음 맡게 된 일이었다. 마포진로박람회는 말 그대로 마포구의 중학교 1학년들이 체험하고 싶은 부스에 신청해서 다양한 직업들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이었다. 같이 인턴 하는 성미산 학교 친구와 함께 부스 기획을 부탁받았는데, 하다 보니 기획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중1들을 상대하는 기획은 더욱. 프린지에서 하는 축제 기획하는 일을 중1들이 함께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나만의 축제 만들기’라는 주제로 작은 축제를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짜보았다. 우리 학교 가을축제를 떠올리며 축제를 만드는 과정을 객관식으로 예시를 들어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처음 맡게 된 일이라는 기대감에 차올라 열심히 준비했지만 축제 기획이 아이들이 만들 기에는 어렵고 지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은 너무 덥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짜증났지만 힘든 경험을 같이 하다 보니 사무국 식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다.

#### 2) 프린지를 거쳐 갔던 인턴들 인터뷰

프린지는 1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다 보니 그만큼 대안학교 학생들도 인턴을 많이 왔었다고 한다. 먼저 인턴을 왔었던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성미산 친구와 같이 그분들을 인터뷰하기로 했다. 나아가 앞으로 인턴 오는 후배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 계획에 넣었다. 질문은 프린지 인턴을 할 때, 우리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때 당시했던 진로 고민과 고민을 해결한 과정, 다녔던 대안학교에 대해, 대학에 관한 부분 등이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 얘기 나누는 것이 어색했지만 다양한 철학을 가진 대안학교 학생들을 만나 서로 학교가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보는 것이 재밌었고, 나와는 다른 새로운 생각을 들으면서 간혀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진 것 같다.

### 2. 올모스트 프린지 포럼

올모스트 프린지 포럼은 올해로 19년째인 독립예술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첫 포문을 여는 대화의 자리이다. 그간의 고민을 3개의 세션으로 압축해 다양한 이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했다. ‘심사와 검열이 없는 예술가의 자발적인 축제 공동체’로서의 지향과 19년을 이어온 축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올해 올모스트 프린지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루었다. 총 3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포럼의 구체적인 주제는 작년을 거치며 이슈로 부각된 내용들이다. 첫 번째 세션은 ‘이 시대 20대에게 예술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헬조선에서 미학투쟁을 외치기보다 생존투쟁을 먼저 외쳐야만 하는 20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작년 연극계 최고의 화두였던 검열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올해라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저 토론이 없다면 저항하는 방법조차 잊게 될까 두려울 뿐이라고 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도시와 예술과의 관계에 집중한다. 작년처럼, 올해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외국어를 익숙한 한국말처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테이크아웃드로잉 사건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니, 이제는 이리 카페가 사건의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프린지가 흥대를 떠나 상암에 자리를 튼 것도 젠트리피케이션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있지 않다. 그날 마지막에는 이리카페의 사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었다. 포럼 내용도 흥미롭고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을 줄 만한 내용이었지만 스텝으로 참가해서 포럼을 만드는 과정을 본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홍보 포스터를 포럼 장소 근처에 붙이고 다니는 사소한 일부터 인포메이션을 맡으며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일까지 하니 행사에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알 수 있었다. 또 나도 그 일원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 3. 기획학교

기획학교는 문화예술기획자를 꿈꾸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예비, 초보 기획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열댓 명 정도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문화기획자들의 강의를 들었다. 또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기획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기도 했다. 나도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성미산 학교 친구와 참여했다. 하지만 기획학교 일정이 전부 주말에 있다 보니 사람들의 참여가 줄어서 나중에는 한 수업에 대여섯 명이 모이면 다행일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처음 내가 수강했던 목적인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제대로 이루지는 못했다. 아마 내가 이미 아는 친구와 함께 다니면서 새로운 만남에 도전하는 것을 꺼렸던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만약 한 번 더 프린지에서 기획학교를 진행한다면 그때는 혼자 참여해보고 싶다.

### 4. 여름 프린지페스티벌

#### 1) 프린지 빌리지

프린지 빌리지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이 흥대에서 월드컵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생긴 프로그램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공간인 월드컵경기장을 더욱 실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예술가들에게 신청을 받아 스카이박스(VIP관람객들이 보는 방)를 열어둔다. 나아가 예술가끼리도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4번의 반상회를 열고, 예술계의 고민과 이슈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논의할 수 있는 마이크로 포럼을 진행한다. 예술가를 많이 만나고 싶다는 내 바람과 딱 맞는 프로그램이어서 나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그중에서 관객들이 축제 관람 전에 아티스트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빌리지 입주자 인터뷰를 내가 맡게 되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나도 아티스트 분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한 번 친해지고 나니 다양한 조언들과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했다.

또 인터뷰와 더불어 아티스트가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만들어 나도 전시를 했다. 모두 열 점의 그림이었고 각 예술가의 개성을 담기 위해 다른 재료와 색으로 그렸다. (부록 참고)

#### 2) 프린지페스티벌 공연 지원팀 합류

프린지페스티벌에는 인디스트라는 구성원이 함께한다. 인디스트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자원 활동가를 일컫는 말로, 독립을 뜻하는 ‘indie-’와 사람을 뜻하는 ‘st-’를 결합해서 만든 단어이다. 인디스트는 축제의 구성원이자 열혈 관객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인디스트는 일곱 여개의 팀으로 나뉘져 각자 관심 있는 역할을 맡아 일한다. 나는 예술가의 모습을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공연 지원팀에 들어가 일했다.

그 안에서 주로 내가 했던 일은 축제 전에는 공연자 정보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아티스트에게 전화드리는 것도 해보았다. 나는 타자가 느리고, 전화하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했던 일들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래도 막상 다 하고 나니 다른 인디스트보다 공연자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었다.

축제가 시작되고부터는 아티스트 두 팀에 붙어 하우스 매니저 역할을 했다. 축제 기간 내내 정신없고 피곤해서 아티스트와 얘기할 시간은 없었지만 다른 팀과는 비교적 시간이 남아 공연을 많이 볼 수 있었다.

### III. outro

#### 1. 느낀 점

그림을 진로로 생각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든 고민은 내 그림 실력의 문제였다. 학교라는 좁은 공간에서 그려오다 보니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볼 기회가 적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도 없는 환경이었다. 물론 학교 미술시간은 그림 실력과는 또 다른 것을 알려주었지만 진로가 초조한 내 눈엔 잘 들어오지 않았다. 세상에 잘 그리는 사람은 너무 많았고 내 실력으로 그려낼 수 있는 그림은 너무 적었다. 막상 졸업하고 대학만 가게 되도 적어도 일 년은 준비하는 기간으로 잡아야 했다.

빌리지 입주자 인터뷰 때, 이런 내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다들 많은 격려를 해주셨다. 그리고 본인들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 내용은 사람마다 달랐지만 다 듣고 나서 느낀 것은 결국 실력에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을 보며 조급한 마음에 남들 따라 대학이나 취업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다.

프린지에서 인턴하며 가장 좋았던 것은 사람들과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예술가들, 인디스트들, 대안학교 학생들까지 많은 인연을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뿌듯하다.

#### 2. 부록

##### 1) 빌리지 스케치



열아홉, 지옥철, 점심메뉴, 커피  
/03.02~06.20까지  
아이디어팩토리

장우정

## ▶순서

1. 단체소개
  
2. 인턴십 준비과정
  - 1) 단체 찾기
  - 2) 아이디어팩토리
  - 3) 확정짓기까지
  
3. 내가 했던 일들
  - 1) 운영팀
  - 2) 직원 인터뷰
  - 3) 프로젝트\_미자전
  
4. 인턴십을 마무리하며

## 5. 사진자료

### 1. 단체소개

아이디어팩토리는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이다. 일종의 공용 사무실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들이 입주해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이디어팩토리는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외에도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만들고, 실행하는 곳이다.

### 2. 인턴십 준비과정

#### 1) 단체 찾기

처음엔 조용한 책방 같은 곳에서 3개월을 보내보고 싶었다. 그러나 원하던 곳에 거절당한 후 눈물 한 번 거하게 쏟고 생각이 바뀌었다.

정말 졸업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는 것들을 학교 밖에서 실

행해볼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았다.

학교에서 꾸준히 사진 수업을 들으며 많은 흥미를 느꼈지만, 미래에 내 일이 된다고 상상했을 때 나는 내 사진을 전시장에 거는 것보다 어떤 전시를 만들지 고민하고 기획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작품을 보고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에 관심이 더 많이 갔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전시공간을 알아봤다. 하지만 좋은 반응을 주는 곳은 잘 없었고, 내 생각에도 그렇게 전문적인 공간에 가면 정말 청소 말고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 것 같았다.

## 2) 아이디어팩토리

인턴십 준비 초반에는 욕심이 많이 났다. 두 번 오는 기회가 아닌 만큼 인턴을 하면서 많은 것을 얻고 싶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거절을 당하면서 점점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욕심이 없어졌다. 마치 자소서를 쓰는 기계가 된 마냥 아무 곳이나 영혼 없이 찌르고 있던 도중에 선배가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봤다며 아이디어팩토리 이야기를 했고, 한시가 급했던 나는 코워킹스페이스가 뭔지 파악하지도 않은 채 방문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무작정 메일을 보냈다.

며칠 후에 아이디어팩토리에 찾아가 담당자분을 만났는데, 솔직히 처음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은 아니다'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직원인지 이용객인지 분간도 가지 않을뿐더러 내가 3개월간 안정적으로 함께 하는 모습이 전혀 그려지지 않았다.

담당자분과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왜 찾아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과는 다르게 첫 만남부터 선을 긋지 않고 호의적인 반응을 주셔서 살짝 당황했다. 난 아직 이곳을 잘 몰라서 파악해보기 위해 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치 이미 아이디어팩토리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은 것처럼 말해버렸나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다.

결국 그냥 복잡한 생각들은 잊어버리고 자기소개서를 보냈고, 인턴으로 와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인턴십 단체가 정해져서 안심되기도는 불안한 마음이 더 컸다. 나와 잘 맞는 곳인지도 모르겠고 상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왠지 부담스럽고 조금 무서웠다.

## 3) 확정짓기까지

인턴생활이 전혀 상상되지 않고 낯선 공간이라서 내 댄에는 일종의 도박을 걸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도 굳이 마음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그냥 나를 끊임없이 낯선 환경에 노출시켜보고 싶었다. 여태 학교를 다니면서 만나본 수많은 사람이나 단체들과는 또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극소수에 해당하는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으로서 그냥 보편적인 공간에서 대안교육이 낯선 사람들과 지내보는 것도 괜찮은 경험일 것 같았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팩토리가 '코워킹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공용 사무실로 공간을 이용한다. 그래서 나와는 정말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분야와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푼 기대 덕분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기간 동안에 나도 스스로 나만의 무언가를 실행해볼 기회가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단체들에 비해 잡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스스로 주체적인 3개월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들었다.

## 3. 내가 했던 일들

### 1) 운영팀

아이디어팩토리 내부에서는 콘텐츠사업팀, 운영팀으로 나뉘어있는데 나는 운영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안에서 말 그대로 아이디어팩토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함께 했다. 공간 한편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음료를 만들고 각종 문의와 안내, 공간 관리 등이 일상적인 나의 주요 업무였다. 그러다 보니 인턴기간 내내 일종의 서비스업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 덕분에 커피를 비롯한 여러 음료 만드는 법도 익히고 나중에 카페 알바 등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 유난히 반복적인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긴 하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니 괜찮은 경험이었다.

## 2) 직원 인터뷰

인턴을 시작한 초반에는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아 회사에 나가서 사람들과 말도 많이 섞지 않고 카운터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길 기다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3개월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멘토분이 14주간의 커다란 계획이나 목표를 적어보라고 제안을 하셨고, 난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모든 직원들을 인터뷰하겠다고 했다.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고 느꼈던 부분은, 느낌상 회사의 규모나 분위기에 따라 모든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4개월 가까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이야기 한 번쯤은 제대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리고 ‘아이디어팩토리’라는 회사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함께 이끌어가고 계신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았다. 끝나는 기간이 이미 정해져있는 짧은 인턴이지만 최대한 그 안에 녹아들어보고 싶었다.

결과적으로는 대표님과 이사님을 제외한 9명의 사원분들을 인터뷰했다.

직원들의 나이가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있기 때문에 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편하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질문은 다소 식상할 수 있는 것들이었으나 인터뷰를 빌미로 평소에는 쉽게 오가지 않을 법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만났던 직원분들은 평소와는 느낌이 조금 달랐던 것 같다. 나는 아직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만 하고 상상만 하는데, 실제로 성인이 되어 본인의 의지대로 살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니깐 그냥 막연히 대단해 보였던 것 같다.

사실 질문들이 정말 식상하긴 했다. ‘언제부터 아팩에서 일을 하셨는지’,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등등 참 뻘하고 어렵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의미는 충분히 있었다.

5학년 때 처음 학교를 벗어나 개인 무빙 스쿨을 할 때부터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졸업 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인터뷰를 하면서 새로운 힌트를 얻거나 인생에 대한 영감을 얻거나 그런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알아서들 잘 살고 계신 직원분들을 보면서 내가 여태 하고 있던 불안정한 생각들에 대해 스스로 조금 더 확신할 수 있게 됐던 것 같다. 앞으로에 대한 뽕족한 계획이 있다거나 자신감이 넘치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나한테 충실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굳이 완벽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태 머리로는 알겠지만 심리적으로는 공감하지 못해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다 떠나서 직원 인터뷰는 나한테 좋은 요인일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내 고민이나 그냥 생각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대상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가 전부였다. 따라서 세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거나 아님 또래니까 나랑 별반 다를 바

가 없거나 그랬는데, 직원분들은 20대 중후반의 연령대라서 나의 상황에 공감도 해주시면서 한 편으로 실제로 나보다 많은 경험을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현실적인 조언이나 이야기를 해 주실 수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충분히 신선한 경험이 되었다.

### 3) 프로젝트\_미자전

[미자전(미성년자들의 사진전) : 열아홉의 기록]

내가 바라던 바와 같이 인턴십 도중 자연스럽게 나의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생겼고 큰 고민 없이 '사진전'을 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 ▶구상, 기획

무엇을 주제로 전시를 만들지 고민했지만 자연스럽게 '10대들의 사진전'으로 정하게 되었다.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따금씩 상상하던 키워드였다.

구체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직원분들과 오며 가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디어나 조언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나는 '10대'에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 관람객이든 참여자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고 결국 나이를 한정 지어 '19세'들의 사진전을 열기로 정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열아홉'은 스무 살을 앞두고 혼란이 많은 시기이지만 한 편으로는 아직 미성년자라는 생각에 어리광을 부리면서 무작정 놀기도 하고, 여태 보내온 10대 시절 중 '나'에 대해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나이이다. 이걸 누구나 겪었던, 또는 앞으로 겪을 순간이기 때문에 익숙하고 뻔하지만 매력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 ▶참여자 모집

나는 욕심쟁이니까 프로젝트를 하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재밌는 일도 하면서 관심사가 같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서 서로 고민도 나누고 친해질 기회가 되길 바랐다. 하지만 사실상 '19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수험생'이고, 수능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학기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걱정이었다. 그래서 이름을 많이 들어봤던 친구의 친구 두 명을 먼저 섭외했다. 다행스럽게도 오히려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며 흔쾌히 합류해줬고 그 두 친구들과 셋이 모여 프로젝트의 틀을 잡아갔다.

또 다른 참가자를 모집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페이스북에 참여자 모집 홍보물을 올렸다. 신기하게도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고 결과적으로는 두 명의 친구들이 새로 합류하게 되어 나를 포함해 총 다섯 명이 모였다.

#### ▶크라우드 펀딩

학교가 아닌 다른 단체에 속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건 처음이라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막막했다. 그러던 와중에 회사에서 '텀블벅'(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을 이용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인턴을 시작하기 전 겨울방학 동안 '세월의 기억을 펼치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후원금을 모으는 방식을 결정할 때 텀블벅을 이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이용하지 않았던 과거가 있는 나로서는 또다시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목표금액이 100% 달성되지 않으면 1원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는 시스템이 너무 불안했다. 그래서 애들이랑 얘기를 할 때에는 정말 최소한의 금액으로 목표를 잡으려고 5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200만 원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매우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듣다 보니 펀딩에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회사 내에서 지원을 받아 진행하면 된다는 말에 설득당해 결국 목표금액을 160만원으로 잡았다.

텀블벅 사이트에 게시글이 올라가기까지의 기본적인 심사과정도 거쳐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목적과 앞으로의 과정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조금 더 확고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모금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이용했던 것은 도움이 참 많이 되었다.

망할 것만 같았던 우려와는 다르게 우리 사진전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았다. 하루하루 목표액 달성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너무 기대하면 어떡하나, 후원금을 냈는데 전시를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나 점점 걱정이 많아졌다. 결국 펀딩 결과는 우리의 부담감을 전혀 배려해주지 않고 150%의 달성률을 자랑하며 끝이 났다. (덕분에 직원분께 영어 이름을 '장 크라우드펀딩'으로 하는 게 어떨겠냐는 말도 들어봤다.)

#### ▶첫 만남과 회의

드디어 다섯 명이 처음 만나게 된 날, 우리 전시 시작일까지 시간이 거의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낮을 가리고 수줍어할 시간조차 없었다. 처음 보는 얼굴들과 작은 책상에 둘러앉아 무척대고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의 과정이 쉽지는 않겠다는 느낌이 들었었다. 나와 있는 작품은 단 하나도 없고 한 달 후에는 지금 있는 이 공간에 우리 사진들이 걸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시작도 안 했는데 한숨부터 나왔다.

첫 만남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각자의 일과가 끝난 저녁시간에 모여 회의를 하면서 촬영 장소 등을 정하고 전시 준비에 필요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행히 네 명의 친구들과는 서로 잘 맞는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후부터 부담감이 줄고 안심이 많이 됐던 것 같다.

#### ▶출사

사실 나는 프로젝트를 처음 기획할 때 사진을 거는 작가로는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온전히 기획자로서만 하나부터 열까지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회의를 하고, 전시 주제를 명확히 정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 같이 하는 친구들의 반응도 그렇고 솔직히 아쉬울 것 같아서 그냥 나도 사진 작업에 함께하기로 했다.

출사를 갈 때는 장소보다 피사체인 우리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아니면 그냥 예쁜(?) 그런 곳들을 다녔다. 평일 오후에 나는 반차를 내고, 학교는 땡땡이를 치고 다양하게 출사를 다니기도 하고 매주 주말마다 곳곳으로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녔다. 평일에는 학교, 학원에 가거나 회사에 출근을 하고 주말에는 이틀 내내 출사를 다니니 체력적으로 피곤할 법도 한데 서로 잘 맞는 친구들과 좋아하는 사진을 찍으러 다녀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도 막상 만나면 마냥 재밌기만 했다.

아마 다섯 명 모두가 이렇게 정해진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건 처음이었을 텐데, 같은 공간에서 찍은 서로의 사진을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내 사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 ▶전시

사진 작품을 찍어내는 것과는 별개로 전시를 준비하는 일도 만만치는 않았지만 주변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함께 하는 친구들 학교의 한 학부모님이 충무로에서 현상소를 운영하시는데, 우리의 전시용 작품 인화와 액자를 후원해주시겠다는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너무 과분한

것 같기도 하고, 인화와 액자 비용까지 모두 책정해서 텀블벅 후원 목표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힘으로 다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보내주시는 마음 잘 받기로 결정했다. :) 지금 생각해 보면 대형 인화나 액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참 다행이었던 후원과 결정이었다.

함께 출사를 다니며 찍었던 수많은 사진들 중에서 액자에 걸 최소한의 사진을 추려내는 건 예상보다도 너무 어려웠다. 다들 본인은 전시를 할 만한 사진이 아직도 나오질 않았다며 징징댔으면서 막상 4장으로 추려내려니 제외될 사진들을 두고 마음이 아파 정말 긴 시간 회의를 하기도 했다.

필요한 과정들을 무사히 거치고 드디어 5월22일에 아이디어팩토리에서 오프닝파티를 열었다. 백퍼센트 지인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셨고,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하루를 보냈다. (일 년에 몇 번 안 쓰는 일기도 쓸 뻔했다.)

#### ▶마무리

전시 관람객은 약 3주 동안 아팩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제외하고 누적 130명을 기록하며 끝이 났다. 주말에 나와 사진들을 모두 철거하고 깨끗이 벽을 비우니 기분이 참 묘했다.

남은 후원금과 사진엽서를 판매한 수익금으로는 서울SOS어린이마을에 기저귀를 구매해 기부를 했다.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더욱 알차다고 느껴졌다. 직접 방문해서 기저귀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봉사활동이나 기부에 특별한 관심은 없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이번에 함께 했던 친구들과는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 f/19라는 팀명을 만들었다. 앞으로 죽기 전까지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냥 편한 친구들과로 지내게 될 것 같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확인 게 분명하다.

(f는 카메라 조리개 값을 뜻하고 19세에 처음 만났다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진 팀명이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정신없이 휘몰아치며 진행이 돼서 돌이켜봐도 간혹 꿈이었나 싶기도 하다. 정말 사진에 있어서도, 같이 무언가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 ▶각종자료

### 4. 인턴십을 마무리하며

진로?

아이디어팩토리에서 인턴십을하기로 마음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위에도 적었지만, 어떤 형태던지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이었다.

5학년 진로 프로젝트 때 여러 명의 사진작가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동안 속으로 생각만 했던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 조심스레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들었었다. 다양한 공부와 준비가 많이 필요한 직업인 건 알겠으나 사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그만큼 무언가를 해 볼 기회가 없으니 확신이 없는 게 당연했다.

그래서 나는 인턴십을 통해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에 대해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심화된 활동을 해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더 재밌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힌트를 얻을 생각이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 사실 괜찮고, 안 괜찮고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확신을 얻었다. 앞으로 내가 하게 될 일이 내 머릿속에서 구상하는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획하고, 사람들이 내가 기획한 그 현장에서 신선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 같다. 사실 여태껏 학교에서 전시보다는 축제, 무대 등 조금 다른 성격의 기획을 했었고 인턴십을 하면서 내가 해보지 못 했던, 그러나 해보고 싶었던 전시 기획을 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너무 즐거웠다.

당장 졸업 직후의 계획이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스스로 어느 정도 확신을 얻는 건 정말 큰 수확이 아닐까 싶다.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조금 더 훌가분한 마음으로 망나니처럼 한 바탕 놀고 난 후에 열심히 살아야지.

### 프로젝트

나에게 ‘프로젝트’란 짜증 나는 것이었다. 그동안 학교에서 진절머리 나도록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재미를 느꼈던 적은 딱히 없는 것 같다. 그냥 학교 수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자전’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스스로 많이 놀랐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나와 뜻이 잘 맞는 친구들과 아무 규제 없이(학교 수업과는 다르게)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느낀다.

우선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마찰이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고, 총책임자 역할이기 때문에 받는 부담감이나 답답함도 없었다. 이런 최적의 상태 덕분인지 평소보다 훨씬 큰 스케일의 결과를 만들었다. 정말 나로서는 안 좋았던 게 단 하나도 없는 프로젝트였다.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좋기만 했을까 신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내 너무 문제없이 잘 풀려서 ‘한 번 엮어질 때가 됐는데’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그래서 불안감이 조금 생겼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즐거운 프로젝트를 해본 건, 운이 참 좋았던 것 같다. 오지랖 넓지만 앞으로 인턴십을 나갈 후배들도 이런 생각을 직접 해볼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 면담 미스터리

우리 학번이 이상할 정도로 정환쌤이랑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면담을 꾸준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쌤한테 늘 듣던 말이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 여러 역할을 맡았었고 난 언제나 적당히 리더십 있게, 책임감 있게 해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꾸 마치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다. 면담이든 기말평가서든 내 역량을 더 끌어올려서 좋은 더 결과를 낼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난 그게 굉장히 싫었다. 역할에서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단순한 칭찬한 마디는커녕 늘 아쉽다는 평가만 하니 내 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인턴십을 하면서 그 미스터리가 풀리는 시점인가 싶은 생각이 간혹 들기 시작했다. 난 ‘미자전’을 하면서 정말 후회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한 것 같다고 느낀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스러운 일을 해보고 나니 여태 학교에서의 나를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의 나는 나를 비롯한 소수만 열심히 한다고 느끼는 순간 의욕을 잃고 ‘수업 이수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다녔다. 성격상 남들한테 욕을 먹거나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만큼 나태해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딱 거기까지만 신경 썼다. 남들 하는 만큼은 하되 그보다 더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심보로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던지 내가 처음에 생각하고 떠올렸던 것을 전부 충족시키면서 후회 없이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먹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재밌고 신선한 경험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내 스스로 틀에 갇혀서 지루하고 바쁘기만 한 학교생활을 했던 것 같다.(물론 다시 몇 년 전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다.)

쌤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비슷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맞던 아니던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스스로 이런 감정을 느껴보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건 정말 다행이다. 조금 더 훌가분하게 학교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 관계와 욕심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듣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늘 어딜 가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교성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사귀었다. 그런데 이번 인턴십이 내 생각을 조금 바꿔놓았다.

미자전을 통해 네 명의 다른 학교 친구들을 사귀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이디어팩토리에 있으면서 직원들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을 오가며 만났다.

학교 특성상 그동안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지만 아팩에서 4개월 가까이 지내면서 내 인생에서는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에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 각자 다른 매력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일이 벅찬 것 같기도 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인지하는 데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나중에는 내가 점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나를 빠르게 인지시킬 간단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4개월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계속 또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미 나에게 있는 관계를 잘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새롭게 사람들을 만나는 건 언제나 좋겠지만, 그보다 지금 내가 가진 관계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게 나 스스로한테 좋을 것 같다.

### 인턴이 끝나고

아이디어팩토리에 있으면서 교육과정 때문에 하는 인턴십치고 되게 다양한 일들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시 인턴 단체를 정하는 시점으로 돌아가도 주저 없이 아이디어팩토리에서 인턴십을 할 것이다. 이 시기의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었다. 정말 우연히 알게 되고, 얼떨결에 시작하게 된 곳에서의 인턴십이 이런 결과를 가져다준 것에 대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를 스스로 만족스럽게 잘 보낸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내 인턴십에 대해 뭐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나 싶겠지만 그냥 지금의 나에게 여러모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무조건 좋기만 했던 건 아니지만 단점들도 굳이 반납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

마지막으로 준비과정부터 귀찮게 구는 나를 다 받아준 엄마, 김정환선생님, f/19친구들, 아이디어팩토리의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이 보고서를 마치겠다.

## 5. 사진자료

감사합니다. ☺



함께 살아간다는 것  
/03.03~.6.22까지  
큰들

조익준

▶순서

- 캠프가 아닌 체험학생으로 큰들에 가다
- 불안했던 첫날
- 설장구와 팽과리를 배우고 싶어요.
- 내생에 처음으로 마당극을 보러가다.
- 마당극에 참여하다.
- 정기공연을 하다.
- 인턴ships을 마치며

▶예산  
매달 40만원

▶기간  
3월3일~6월22일 까지 약 3개월

▶일정  
▶일지 참조

### 캠프가 아닌 체험학생으로 큰들에 가다

인턴십을 하고 싶다고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다. 확정되었을 때 그 기쁨도 마찬가지다.

처음 큰들에 갔을 때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던 것 같다. 솔직히 그렇게 환대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정말 도착하고 나서 너무나 반겨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어색하기도 했지만 낯설지 않아서 앞으로 여기에서 체험 학생 생활이 너무나 기대됐다.

### 불안했던 첫날

첫 출근하던 날 한편으로 설레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긴장해서 괜한 걱정을 하기도 했었다.

캠프에서만 보던 그 연습실 말고 처음 보는 사무실에 풍경은 정말 신기했다. 예전에 한번 들어와 보긴 했지만 앞으로 여기서 출퇴근하면서 지내는 것이 다행히 익숙한 환경이라서 좋았고 또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 소박하고 여유로운 환경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체험 학생은 처음 3개월을 할 때 사무실에 일손을 도우면서 지낸다. 그게 체험 학생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나머지 시간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면서 지낸다. 비록 인턴이지만 체험 학생과 똑같은 개념으로 일해야 해서 무슨 일을 할지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그저 멍하게 있거나 극단이 연습하는 거 구경하거나 이게 전부였다.

큰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무처랑 극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극단은 주로 공연을 도맡아서 하고 있고 사무처는 창작, 공연 접수, 후원회원 관리, 체험 학생 관리, 손님맞이, 정기공연 준비(이건 사실상 극단과 사무처가 다 같이 준비한다.)등등 많은 일을 한다. 내가 처음 일했던 것은 예상외로 상당히 간단해서 좀 의아했지만 열심히 했다.

### 설장구와 팽과리를 배우고 싶어요.

계속 사무실 일손 돕기를 하면서 지내다가 대표님이 이렇게 일손돕기만 하다가 갈순 없으니까 큰들 안에서 하고 싶은 것 10가지를 적어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10가지를 적는데 아무래도 풍물을 좀 예전부터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설장구랑 팽과리가 배우고 싶다고 적었다.

사실은 큰들에 계시는 쌤들이 워낙 바빠서 사실 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배우고 싶어 하던 것을 배우게 되어서 정말 기뻐다.

설장구를 배우게 되었을 때 정말 들떠서 첫 수업을 갔는데 너무 내 스스로 내 능력을 너무 믿은 나머지 조금 실망할 뻔했다. 솔직히 장구도 나름 오래 쳐서 나름 자신 있었는데 기초부터 다시 배워서 약간 지루했기 때문이다.

팽과리 수업은 반대였다. 쳐본 적도 없고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었지만 연습할 때 혼자 연습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지루했다. 하지만 설장구는 조금 배웠을 뿐인 대도 정말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어서 정말 좋았고 팽과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우고 싶



고 배울 때 너무 좋았던 것 같다.

### **내생에 처음으로 마당극을 보러가다.**

큰들 안에서는 정말 많은 큰들에 마당극 의상과 소품과 포스터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의상과 소품에 대부분들은 전부 큰들에서 직접 만들어서 쓴다. 그 점이 매우 놀라웠다.

큰들에 와서 처음으로 본 마당극은 ‘최참판택 경사났네’ 라는 제목에 마당극이다. 박경리 선생님의 소설인 ‘토지’를 원작으로 드라마로도 많이 각색이 되었던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큰들에 있던 다른 체험 학생이 같이 보자고 해서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재미있어서 계속 웃으면서 봤다. 근데 실제로 소설 ‘토지’에 주 무대인 경상남도 하동 평사리 세트장으로 가보니까 이런 세트장을 이용해서 공연을 할 정도에 공연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보는 순간 편견이 사라져서 사람에게 편견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마치 설명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간디학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보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마당극을 보면서 내가 만약 저기서 이런저런 역할을 맡아서 한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하기도 해보고 하면서 연기가 배우고 싶어 졌다.

### **마당극에 참여하다.**

마당극들을 계속 보면서 막 상상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오시더니 마당극에 출연할 수도 있다고 말하셔서 깜짝 놀랐다.

솔직히 별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큰들 온지 2개월도 안된 나한테 마당극 출연이라니 기쁜 것보다 겁부터 났다.

평소에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무대에 서거나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있어서 괜히 내가 공연을 망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겁부터 났지만 막상 연습을 시작하고 나니까 할 게 너무나 많아져서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연습만 했다.

공연 날이 다가오니까 그제야 덜컥 다시 생각나서 되게 곤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공연 날에 공연하는데 무대에 설 때 같이 연기하는 형들과 쌤들이 옆에 있으니까 안심이었다. 긴장감이 싹 풀려서 실수할 뻔했다. 하지만 정말 공연이 끝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었다. 무대에 서면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다.

### **정기공연을 하다.**

한 1주일 정도 지났을 때 큰들이 이번에 6월18일날에 정기공연을 한다고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정기공연 안에 130명 사물놀이라고 해서 사물놀이 공연을 한다고 들어서 혹시 나도 참가할 수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된다고 흔쾌히 말해 주셔서 정기공연에 참가하게 되었다. 연습은 3월22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6월 17일 금요일까지 연습을 진행했다. 처음 연습은 정말 지루했다. 일단 장단이 잘 아는 장단이었고 진도가 느려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미있었다. 이상하게 뭔가 흥이 났었던 거 같다.

시간이 좀 흐르니까 어느덧 벌써 전부 다 배우고 나서 한번 맞혀 봤을 때에 그 짜릿함이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다.

막상 또 정기공연이 다가오니까 너무 긴장되고 실감이 안 났던 것 같다. 심지어 정기공연 2일 전에 발에 인대가 늘어나는 바람에 정기공연을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셔서 너무 허탈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장이 없어서 괜찮았다.

공연 날에 엄마가 일찍 오셔서 공연전에 보러 가려고 가야 하는데 다리가 다쳐서 가기 힘들었는데 대표님이 업어주셔서 갈수 있었다. 완전 감사합니다.

첫 공연인 3시 공연은 정말 긴장해서 하나도 안 틀리고 했는데 반대로 7시 공연 때는 정말 많이 틀려서 조금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성공리에 잘 마쳐서 정말 다행이었다.

### **인턴ships을 마치며**

앞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걱정만 가지고 갔었는데 오히려 함께 지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를 많이 얻어서 가는 것 같아 뿌듯하다.

연기할 때에도 자주 틀리고 잘 하지 못하는데도 계속 격려해주시고 그래서 연습할 때 되게 힘이 났던 것 같고 사무실에 있을 때도 항상 잘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민폐만 끼치고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들에 있는 진관쌤, 팡팡쌤, 기원쌤, 경희쌤, 은숙쌤, 명희쌤, 용철쌤, 정순쌤, 진이쌤, 안순쌤, 은희쌤, 라미쌤, 정호쌤, 개비쌤, 혜란쌤, 셋별쌤, 진묵쌤, 진우쌤, 요한이형, 명기형, 솔이형, 세림누나, 인근쌤, 태국쌤, 은주쌤, 감독님, 상문쌤, 지은쌤, 춘우쌤, 영란쌤, 정민이 정말 모두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15.09.14~16.02.14까지  
봉가봉가레코드

하한

▶순서

- 기회
- 서울
- 지속가능한 땀따라질
- 나의 지속가능함은?
- 졸업

학교에 돌아가기 위한 과정, 그들을 다시 마주하기 위한 단계로 인턴십을 시작했다. 마냥 즐거울 수 없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한다는 것부터 큰 부담이었고, 학교라는 의무감이 없었다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다.

## 기회

학교를 다니면서 줄곧 외부로 나가는 무빙 스쿨과 인턴십은 기회의 시간으로 생각했다. 몇 번 되지 않는 기회였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과정이 되기를 바랐다. 간디학교에 입학하면서 줄곧 바라 왔던 음악 하는 삶은 언제든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빙과 인턴십은 그간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을 둘러보는 시간으로 만들자고 생각했다. 무빙으로 갔던 옥천신문은 그 목적에 충분히 부합했다. 이것에 연장선으로 인턴십은 옥천에서 짧게 볼 수 있었던 기자의 삶을 조금 더 견고하게 그려보고자 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의 시간은 앞선 계획들을 많이 바꿔놓았다. 이미 스무 살, 스물한 살이 되어버렸고, 남들보다 한 걸음, 두 걸음은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른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마음의 여유가 한치도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게 익숙하고, 편해 보이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무엇이든 잘 할 거라 자신했던 스스로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 서울

원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지만 무빙과 인턴십이 가진 기회의 의미는 놓고 싶지 않았다. 다시 학교라는 이름을 업고 지금이 아니면 못 해볼 것 같은 것을 찾았다. 음악 하는 삶이라면 크게 '아티스트'와 '음악종사자'쯤으로 나뉘겠거니 싶었고, 음악에 종사하는 직업 중에 가장 그럴듯해보이고, 멋도 조금 있어 보이는 인디레이블을 찾았다.

붕가붕가레코드는 유명하다. 그리고 좋은 음악을 한다. 특이하다. 그것이 기존 것에 대한 대안을 표방하는 것 같았다. 8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의 지난한 연락을 통해 메일로 답장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에서 사장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길었던 답장과는 다르게 흔쾌히 사무실의 출근 날짜를 정했다.

## 지속가능한 탄따라질

대안스러운 느낌을 받았던 붕가붕가레코드의 모토이다. 가장 맘에 드는 말이었지만 이 말로 인해 좌절하기도 했다. 여기서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내 음악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나는 55%의 음악과 45%의 생계유지 정도의 비율을 가진 말이 아닐까 생각했다.

조금 더 풀어보자. 음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특히나 서울에선 더), 인디음악은 돈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돈이 되지 않으니, 1.음악으로 돈을 벌기 위해 내 음악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대중의 입맛에 맞는 음악을 하는 것만은 하지 말자는 의미이다. 이 부분에서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나는 붕가붕가레코드의 '매니저'로 출근을 했다. 매니저의 역할은 아티스트가 음악을 하는 시간만큼은 조금이라도 더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음악 외적인 부분을 챙긴다. 물론 매니저는 아티스트와 계획을 짜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제2의 멤버로서 '음

악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 하지만 아티스트와 그 정도의 호흡을 맞추기까지는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노력과 ‘재능’이 필요하다.

재능. 참 불편한 단어이다. 음악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 생각하며 왔기 때문에 매니저 일의 전문성을 깨닫고는(어떤 직업이 쉽겠냐만은) 정말 힘이 들었다. 그냥 여기서 멈추면 그만이지만 쟁쟁한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내가 정말 음악을 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까지도 하게 되었다. 이게 문제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 나의 지속가능함은?

사장님께서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졸업 후에도 일을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셨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잠깐 다시 와있지만 졸업 후에 정식 매니저의 명함을 달고, 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사장님의 요지는 그것이다. 어차피 음악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니, 매니저 일을 하면서 음악을 병행해라. 매니저 일과 아티스트의 일은 병행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었다.

1. 매니저의 일은 힘들다. 절대적인 시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매니저로서 아티스트의 지속가능한 탄따라질을 돕기 위해서 내 음악은 커녕 어떤 취미생활을 가지기가 힘들었다.

2. 하지만 어딜 가든 힘들면 더 힘들었지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일 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엔 ‘나의 학력’ 정도로는 어딜 가도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을 거란 전제가 있었다.

3. 그렇게 돈이 되는 매니저 일을 하면서 아티스트로서의 작업도 해 나간 후에 음악적으로 대안이 생기고 나면 그때 음악에 전념해도 괜찮다고 했다.

4. 하지만 이 말에선 짧은 시간 안에 음악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음악적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의미를 담고 있다.

굳이 모든 생각의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다. 나의 음악에서 지속가능함이란 2. 생계(돈)를 위해 내 음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이다. 적어도 학교에서 배운 건 이 부분이였다. 꼭 행복한 삶은 배부른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 졸업

회사에 다니면서 본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았다. 서울 생활 자체에 대한 감상도 많았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꼭 풀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내 삶을 그리는 것에 있어서 인턴십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명 많은 걸 배울 수 있던 시간이었다. 음악 산업의 최전선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 혹여나 놓치고 갔을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었다. 어디까지나 고민이 들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이 있어서 었기 때문이다.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불가불가레코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졸업을 앞두고 재능이라는 단어에 꽂혀있다. 같은 나이 또래에 벌써부터 재능을 발현하는 아티스트들이 많다. 그것에 비해 나는 정말 초라하고, 작다. 그들도 치열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가는 과정이지만 나의 걸음을 찾는다는 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일까 하는 고민이 든다. 만약 내가 음악적으로 엄청난 재능을 타고났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까. 하고 싶은 마음과 잘하는 것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꽤 절망적인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래 부를 때 가장 재미있다. 인턴십을 하며 확고해진 건 ‘고작’

이것뿐이다. 이만 줄인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여름’의 고양자유학교 인턴기  
/3.1~6.24까지  
고양자유학교

최형규

▶순서

1. 단체 정하기
2. 고양자유학교 소개
3. 여름의 인턴 일정
4. 여름이 했던 수업들
5. 인턴이 끝나고...

## 1. 단체 정하기

인턴 단체 정하기에 앞서 '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과거의 '나'부터 지금의 '나'까지.. '나'를 돌아보면서 왜 간디학교를 택했고 남들과는 다른 대안학교라는 길을 택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왜 이 사회는 경쟁을 통해 1등만 살아남아야 할까, 왜 사회는 각자의 개성을 무시한 채 좋은 대학만을 성공하는 삶으로 강요할까, 과연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까...?

일반 초등학교를 다녔던 난, 고학년이 되고서부터 이런 궁금증들이 생겼던 것 같다. 그래서 중학교는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길인 대안학교를 택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대안학교를 다니면서도 무의식 속에 그런 궁금증들이 계속 이어졌었던 것 같다. 쉽사리 답을 얻지 못한 내가 가졌던 생각은 '대안학교 선생님을 해보고 싶다!' 였다. 같이 운동도 하고 장난칠 수 있는 편한 선생님을 생각했던 것 같다. 대안학교는 선생과 학생의 거리도 일반학교와 달리 가깝고 소통도 자주 하고 편한 존재니까 그런 점에서 대안학교 선생님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또 대안학교 선생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 다른 이유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재밌어 보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재밌어 보였던 우리 학교 선생님의 그 이면을 내가 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지난날들의 '나'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서 무의식 속에서 이어졌던 교육에 대한 궁금증, 무의식 속 막연하게 꿈꾸었던 대안학교 교사라는 직업. 이 두 가지 생각에 대한 확신을 통해 이번 기회에 대안학교 교사를 해보고 싶었다. 마침 주변 친구들의 권유와 선배들의 인턴 사례도 있던 고양자유학교라는 대안학교에 인턴을 가게 되었다.

## 2. 고양자유학교 소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에 위치한 고양자유학교는 2003년부터 시작한 12년제 초중고 통합과정인 대안학교이다.

고양자유학교에서는 1, 2학년을 1주기, 3~5학년을 2주기, 6~9학년을 3주기, 10~12학년을 4주기라 부르는데 각 주기별로 싹터, 꿈터, 숲터 라는 공간에서 지내고 생활한다.

## 3. 여름의 인턴 일정

2월 23일 인턴 시작 전 첫 만남

3월 1일 ~ 6월 24일 (총 17주)

5월 23일 ~ 5월 26일 3주기 참관

5월 27일 4주기 참관

6월 13일 ~ 17일 2주기 들살이 보조교사

## 4. 여름이 했던 수업들

3월

학년 별 수업 참관하며 적응

4월

- 1학년 즐거운 몸 (체육)
- 2학년 즐거운 몸 (체육)
- 3학년 고운 몸 (체육)
- 3, 4, 5학년 전체 즐거운 몸 (체육)
- 2학년 담임 (2주)

5월

- 5학년 수영수업
- 3, 4, 5학년 전체 즐거운 몸
- 4학년 주기수업 보조교사

6월

- 3, 4, 5학년 전체 즐거운 몸
- 4학년 주기수업 보조교사

## 5. 인턴이 끝나고...

우선 내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고양자유학교에 인턴이 확정된 후에도 계속된 걱정은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말 없고 무뚝뚝한 내 성향에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해질 수 있을까? 사촌이나 친척 동생들도 이미 나랑 몇 살 차이도 나지 않는 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을 대해 본 적이 없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다.

인턴 첫 주엔 아이들이 아직 나를 어색해하고 낯설어하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설마 이 낯선 분위기가 인턴 끝날 때까지 가진 않겠지...? 걱정했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나의 걱정은 모두 쓸데없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단지 처음 보는 사람이라 낯설었을 뿐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쉽게 맘을 열고 다가와 주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첫 주쯤이었나 나도 아직 아이들이 어색했을 때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여름~ 잘가요~’ 라고 먼저 인사해주던 아이들이 기억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놀아달라고 그네 밀어달라고.. ‘여름~’ 이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아이들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이전의 나는 아이들을 되게 싫어한다고 나 자신을 단정 짓고 있었다. 말도 많고 잘 울고 되게 아이들을 피곤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첫 주엔 아이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한 주 한 주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앵기면서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

러웠다. 정말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라는 말을 여기 와서 실감한 것 같다.

흠장난하는 아이들, 그네를 밀어달라고 놀아달라는 아이들, 달려와서 꽃을 꺾어주고 꽃을 머리에 꽂아주던 아이들 보면서 정말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들과 같이 장난칠 때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웃는 아이들을 보고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면 아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는구나. 여태 단정 지었던 나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다.

뭐 가끔 너무 매달릴 때면 힘들기도 하지만...;;ㅋㅋ

인턴이 끝나고도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도 역시 아이들이었고.. (꿈에도 나왔다)  
여기서 인턴하면서 정말 아이들의 순수함 덕에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다.

교사를 해보면서...

교사로 인턴을 가긴 했지만 아직 학생이고 스스로도 교사라는 느낌을 잘 받지 못했지만 2주간 2학년의 담임을 맡을 때는 정말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난생처음 모든 것을 교사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 같다. 늘 수업을 받던 입장이었고 소풍을 가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수업을 진행하는 입장, 소풍 가는 아이들을 인솔하는 입장이 되었으니까.

머릿속으로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막상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수업 진행은 쉽지 않았고 마냥 놀아줄 때 량도 다르고 담임 맡으니 뭔가 애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할 때도 좀 생기고 애들이 싸우면 울면 모든 것이 내 탓 같고 놀아줄 때량은 달라서 정말 상황 상황이 닥칠 때마다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다.

어떤 선생님이 진짜 좋은 선생님일까? 하는 고민도 들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 열정만으로 교사라는 직업을 해나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들고 정말 교사라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하면서 아, 내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도 정말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사였기에 드는 생각들, 교사였기에 할 수 있었던 생각들이 많았고 정말 선생님들께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다.

진로로 생각했던 대안학교 교사

이번 인턴을 통해 얻은 귀한 경험 중 하나는 막연한 꿈이었던 대안학교 교사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것이었다. 아침 교사 회의부터 교사회의도 같이 참여해보고... 지켜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대안학교교사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말 바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모임, 회의 등. 대안교육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그런지 인턴을 통해 본 대안학교 교사의 모습을 정말 바빴다.

하지만 그런 바쁜 학교 일정들의 공통적 모든 중심은 ‘아이들’을 향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교사회의 때는 선생님들의 아이들의 대한 ‘사랑’ 과 더 나은 대안교육을 만들기 위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인턴이 끝나갈 무렵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  
'졸업을 하고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은 걸 봐선 졸업하고도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든다.

막연한 꿈에 대한 작은 확신을 이번 인턴을 통해 얻었다는 것.. 정말 이번 인턴을 통해 소중한 것들을 얻은 것 같다.

정말 이외에도 말로 표현 못할 많은 것들을 느꼈다. 그만큼 너무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이었고 살면서 잊혀지지 않을 순간들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렬했던 3, 4주기 참관도 많이 기억난다. 나와는 또 다른 대안학교 학생의 모습과 고민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정말 이런 소중한 경험할 수 있게 기회 주신, 또 처음이라 아직 부족하고 많이 서툰데도 따뜻하고 다정하게 해주신 고양자유학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진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92-3에서 농사 지어보기  
/02.21~06.30까지  
제천간디학교

한승희

▶순서

1. 왜 제천간디학교로?
2. 내가 인턴에서 한일
3. 인턴을 하면서
4. 총평, 소감(내가 인턴에서 배운 것 느낀 것)

### 1. 왜 제천간디학교로?

-이유

인턴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무엇을 해야 3개월 동안 재밌을까?'였다. 5년 학교생활 중 제일 재밌고 열심히 한일을 생각하니 농사였던 거 같아서 농사를 지으러 가고 싶었다. 혼자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천간디학교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목표

1. 여러 가지 시도하기(각종 허브, 밭 디자인)
2.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 체험
3. 보조교사로서 내가 배워온 것 나누기

### 2. 내가 인턴에서 한 일

- 농사기초수업 보조
- 농사 작업장수업 보조
- 개인 농사
- 비닐하우스 짓기
- 그 외 자그마한 일들

두 개에 농사 관련 수업에서 보조를 하였고, 그 외 시간에는 학교 밭에 필요한 일을 하거나, 작업장 밭, 내 밭 관리를 하였다.

### 3. 인턴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

#### 1. 계획과 다른 인턴생활

처음 계획했던 대로 인턴이 진행되지 않았다. 나의 게으름 때문도 있고,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아서 정작 내 밭에는 많이 신경 쓰지 못해서 아쉬웠다.

#### 2. 너무 익숙한 공간과 사람들

너무 익숙한 공간과 사람들과 인턴을 함께해서 긴장감도 없고 새로움도 없었다.

새로운 공간과 사람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놓친 것 같아 아쉽다.

그냥 학교생활을 하면서 일만 많이 하는 느낌이었다.

### 4. 총평, 소감(내가 인턴에서 배운 것 느낀 것)

-배운 점

인턴을 하면서 학교 다닐 때 했던 일들 보다 조금 더 힘들고 전문적인 일을 배웠다.

예초기를 돌려서 풀을 베는 법을 배웠고, 관리기를 돌려 밭을 가는 법을 배웠다.

진짜 농부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몇 걸음 내딛었다고 생각한다.

-느낀 점

인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은 졸업하고 농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었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내가 농사를 진정 좋아하는 일인가? 아니면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 농사나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려는 것인가 아직도 모르겠다.

밭일은 정말 힘들다. 일을 하면서도 수백 번 생각한다. '존나 힘든데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